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경영센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이희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연구보고서 2020(수시)-2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 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 지역 전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총 응답규모는 22,941명이다. 설문 내용은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영역, 인권침해경험과 대응역량 영역, 인권증진 제도 영역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 경험은 2020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등교수업이 적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9~2020년의 두 해 간의 경험을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88.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지는데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를 따르지 못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남도 지역 학생들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인권 이슈, 즉 초·중·고등학생 역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나 용모·복장 등에 대한 개성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권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 차별 경험율이 11.78%에 달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나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전면적으로 폐지된 차별점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아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23.79%에 달했다.

한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차별 경험 비율은 16.78%로 나타났다. 차별 사유 중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출신 학교나 성적으로 인한 차별(5.89%), 외모나 생김새로 인한 차별(5.70%), 학년이나 나이로 인한 차별(5.90%), 성별로 인한 차별(4.89%) 등이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학벌·학력·성적으로 인한 차별 해소, 성평등한 문화 조성, 위계적이지 않은 평등 문화 구축 등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개성 표현의 자유 관련 대부분의 문항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2배 가까이 권리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 공결제도 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경우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72.38%에 달해 생리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조차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 '매우 잘 인정된다'고 답변한 학생은 68.03%인 반면 제도를 모르는 학생들은 접근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권 증진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 차

I.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조사 개요	3
3. 조사 영역 및 내용	6
II.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분석	9
1.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9
가. 학교 인권교육 경험	9
나.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	12
다.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15
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18
마.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23
1) 학생인권	25
2) 차별반대	25
3) 정보권	26
4) 개성표현의 자유	28
5) 참정권	29
바.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	30
2.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역량	33
가. 인권침해경험	33
1) 직접체벌	33
2) 간접체벌	37
3) 언어폭력	39
4) 반인권적 벌	41
5) 차별	48
6) 권리 제한	49
7) 위계적 통제	54
8) 방과후학교 강요	58
9) 정보권 침해	60
나. 인권침해 대응 역량	64
1) 인권 옹호 기관 인식	64
2) 인권 옹호 실천	66

3. 인권 보장 및 증진	68
가. 참여	68
나. 인권 증진	72
1) 생리 공결 인정	72
2) 급식 대체 식단 제공	74
3)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75
다. 학교 시설 이용	76
4. 서술식 문항 의견 수집	77
Ⅲ. 논의와 제언	83
1. 연구요약	83
2. 논의 및 제언	83
참고문헌	87
부록 1 설문지	89
부록 2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100

표목차

〈표 1〉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개요	3
〈표 2〉 참여자의 학교급별 구성	3
〈표 3〉 참여자의 학년별 구성	4
〈표 4〉 참여자의 성별 집단 구성	4
〈표 5〉 참여자의 동/읍·면별 구성	4
〈표 6〉 참여자의 지역별 구성	5
〈표 7〉 참여자의 소속 학교 설립유형별 구성	5
〈표 8〉 참여자의 소속 학교 설립유형별 구성(초등학생 제외)	5
〈표 9〉 설문 참여자 배경 변인	6
〈표 10〉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영역 조사 문항	6
〈표 11〉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역량 영역 조사 문항	7
〈표 12〉 인권 증진 제도 영역 조사 문항	8
〈표 13〉 인권교육 경험 실태	10
〈표 14〉 인권교육 경험 실태(학년별)	11
〈표 15〉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	13
〈표 16〉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13
〈표 17〉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14
〈표 18〉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14
〈표 19〉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16
〈표 20〉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초등학생 평가(성별)	16
〈표 21〉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중학생 평가(성별)	17
〈표 22〉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고등학생 평가(성별)	18
〈표 2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19

〈표 2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학년별)	20
〈표 25〉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지역별)	21
〈표 26〉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24
〈표 27〉 학교의 인권 증진 실천에 대한 신뢰	30
〈표 28〉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학년별)	31
〈표 29〉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성별)	32
〈표 30〉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신뢰(성별)	32
〈표 31〉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중학생들의 신뢰(성별)	33
〈표 32〉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신뢰(성별)	33
〈표 33〉 교사로부터의 직접 체벌 경험	34
〈표 34〉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성별)	35
〈표 35〉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비율(성별 · 학교급별)	35
〈표 36〉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35
〈표 37〉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36
〈표 38〉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사립고등학교 남학생)	36
〈표 39〉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38
〈표 40〉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학년별)	38
〈표 41〉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39
〈표 42〉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39
〈표 43〉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39
〈표 44〉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초등학교)	40
〈표 45〉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중학교)	40
〈표 46〉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고등학교)	41
〈표 47〉 반인권적 벌의 경험	41
〈표 48〉 반인권적 벌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46
〈표 49〉 반인권적 벌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47
〈표 50〉 반인권적 벌 경험에 대한 성별 비교	48

〈표 51〉 학교내 차별 경험	48
〈표 52〉 개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	50
〈표 53〉 개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설립유형별)	51
〈표 54〉 휴대전화 수거 경험	53
〈표 55〉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학교 설립유형별 비교	54
〈표 56〉 등교시 교문 지도 경험	54
〈표 57〉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 경험	56
〈표 58〉 방과후학교 강요에 대한 응답	58
〈표 59〉 교복 및 활동복의 이름표 방식	60
〈표 60〉 민감 개인정보의 공개 경험	61
〈표 61〉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동의 없는 사진 게재 경험	61
〈표 62〉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 안내 여부	62
〈표 63〉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하는지 여부	63
〈표 64〉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복수응답)	65
〈표 65〉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항하여 실제로 한 실천	66
〈표 66〉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68
〈표 67〉 생리 공결 인정 여부	72
〈표 68〉 생리 공결 인정 여부에 대한 여성 학생의 응답	73
〈표 69〉 급식에서 대체 식단 제공 여부	74
〈표 70〉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여부	75
〈표 71〉 보건실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76
〈표 72〉 학생 편의시설의 사용 편의성	77
〈표 73〉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 여부	78
〈표 74〉 서술식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유 의견	80
〈표 75〉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 인권 실태조사 현황	88
〈표 76〉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성별 응답)	103

〈표 77〉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동/읍, 면별 응답)	103
〈표 78〉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104
〈표 79〉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설립유형별 응답)	104
〈표 80〉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지역별 응답)	105
〈표 81〉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응답)	106
〈표 82〉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106
〈표 83〉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응답)	107
〈표 84〉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읍, 면별 응답)	108
〈표 85〉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08
〈표 86〉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	109
〈표 87〉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09
〈표 88〉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10
〈표 89〉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11
〈표 90〉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11
〈표 9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응답)	112
〈표 9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112
〈표 9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113
〈표 9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114
〈표 9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114
〈표 96〉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성별 응답)	115
〈표 97〉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년별 응답)	115
〈표 98〉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지역별 응답)	116
〈표 99〉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117
〈표 100〉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117
〈표 10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별 응답)	118
〈표 10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년별 응답)	118
〈표 10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역별 응답)	119
〈표 10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읍, 면별 응답)	120

〈표 10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설립유형별 응답)	120
〈표 106〉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응답)	121
〈표 107〉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121
〈표 108〉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122
〈표 109〉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123
〈표 110〉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123
〈표 11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응답)	124
〈표 11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124
〈표 11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125
〈표 11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126
〈표 11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126

〈표 116〉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응답)	127
〈표 117〉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127
〈표 118〉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응답)	128
〈표 119〉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읍, 면별 응답)	129
〈표 120〉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29
〈표 121〉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30
〈표 122〉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30
〈표 123〉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31
〈표 124〉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32
〈표 125〉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32
〈표 126〉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33
〈표 127〉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33
〈표 128〉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34
〈표 129〉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35
〈표 130〉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35
〈표 131〉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36
〈표 132〉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36
〈표 133〉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37
〈표 134〉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38
〈표 135〉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38
〈표 136〉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39
〈표 137〉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39
〈표 138〉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40
〈표 139〉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41
〈표 140〉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41
〈표 141〉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성별 응답)	142
〈표 142〉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학년별 응답)	142
〈표 143〉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지역별 응답)	143
〈표 144〉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44
〈표 145〉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44
〈표 146〉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성별 응답)	145
〈표 147〉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학년별 응답)	145
〈표 148〉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지역별 응답)	146
〈표 149〉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147
〈표 150〉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47
〈표 151〉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48
〈표 152〉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48

〈표 153〉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49
〈표 154〉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50
〈표 155〉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50
〈표 156〉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51
〈표 157〉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51
〈표 158〉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52
〈표 159〉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53
〈표 160〉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53
〈표 161〉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154
〈표 162〉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154
〈표 163〉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55
〈표 164〉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56
〈표 165〉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56
〈표 166〉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성별 응답)	157
〈표 167〉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학년별 응답)	158
〈표 168〉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역별 응답)	159
〈표 169〉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동/읍, 면별 응답)	163
〈표 170〉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설립유형별 응답)	164
〈표 171〉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165
〈표 172〉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65
〈표 173〉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66
〈표 174〉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67
〈표 175〉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67
〈표 176〉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	168
〈표 177〉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68
〈표 178〉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69
〈표 179〉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70
〈표 180〉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70
〈표 181〉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성별 응답)	171
〈표 182〉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학년별 응답)	171
〈표 183〉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지역별 응답)	172
〈표 184〉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173

〈표 185〉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73
〈표 186〉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174
〈표 187〉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74
〈표 188〉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75
〈표 189〉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76
〈표 190〉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76
〈표 191〉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	177
〈표 192〉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77
〈표 193〉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78
〈표 194〉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79
〈표 195〉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79
〈표 196〉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180
〈표 197〉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80
〈표 198〉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81
〈표 199〉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82
〈표 200〉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82
〈표 201〉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성별 응답)	183

〈표 202〉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학년별 응답)	183
〈표 203〉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지역별 응답)	184
〈표 204〉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85
〈표 205〉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85
〈표 206〉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성별 응답)	186
〈표 207〉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학년별 응답)	186
〈표 208〉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지역별 응답)	187
〈표 209〉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188
〈표 210〉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88
〈표 211〉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189
〈표 212〉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89
〈표 213〉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90
〈표 214〉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91
〈표 215〉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91
〈표 216〉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92
〈표 217〉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92

〈표 218〉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93
〈표 219〉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94
〈표 220〉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94
〈표 221〉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195
〈표 222〉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195
〈표 223〉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196
〈표 224〉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197
〈표 225〉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197
〈표 226〉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성별 응답)	198
〈표 227〉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학년별 응답)	198
〈표 228〉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지역별 응답)	199
〈표 229〉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동/읍, 면별 응답)	200
〈표 230〉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200

그림 목차

[그림 1] 참여자의 학교급별 구성	3
[그림 2] 인권교육 경험 실태	9
[그림 3]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 비교	12
[그림 4]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13
[그림 5]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14
[그림 6]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15
[그림 7]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학년별 평가	16
[그림 8]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17
[그림 9]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17
[그림 10]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18
[그림 1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19
[그림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학년별)	20
[그림 1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지역별)	22
[그림 14]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23
[그림 15] 학생인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년별 비율	25
[그림 16] 차별반대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성별 비율	26
[그림 17]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년별 비율	26
[그림 18]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성별 비율	27
[그림 19]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교 설립유형별 비율	27
[그림 20] 개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28
[그림 21] 개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년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29
[그림 22] 참여권에 대한 학년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29

[그림 23] 참여권에 대한 성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30
[그림 24]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학년별)	31
[그림 25]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성별)	32
[그림 26]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학년별)	34
[그림 27]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35
[그림 28]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36
[그림 29]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사립 중·고등학교)	37
[그림 30]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학년별)	38
[그림 31]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학년별)	40
[그림 32]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은 경험(학년별)	42
[그림 33] 빠지 등 특정한 글을 반복해 쓰게 하는 벌의 경험(학년별)	43
[그림 34] 벌점제 등의 점수제 벌의 경험(학년별)	43
[그림 35] 출마 제한 등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 벌의 경험(학년별)	44
[그림 36] 노동을 강제하는 벌의 경험(학년별)	44
[그림 37] 반인권적 벌의 경험(설립유형별)	45
[그림 38] 반인권적 벌의 경험(성별)	46
[그림 39]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에 대한 학교 설립유형별 비교	51
[그림 40]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비율(학년별)	52
[그림 41] 휴대전화 수거 경험 비율(학년별)	53
[그림 42] 휴대전화 수거 경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53
[그림 43]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성별)	55
[그림 44]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학년별)	55
[그림 45]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56
[그림 46]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	57
[그림 47]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학년별)	58
[그림 48]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59
[그림 49]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설립유형별)	59

[그림 50]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동의 없는 사진 게재 경험(학년별)	61
[그림 51]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학년별)	63
[그림 52]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하는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매우 그렇다' 비율)	64
[그림 53]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65
[그림 54]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실천한 경험	67
[그림 55]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야별 학생 참여 실태	69
[그림 56]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년별 응답	69
[그림 57]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축제 등 학교 행사에 대한 학년별 응답 ·	70
[그림 58]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대한 학년별 응답	70
[그림 59] 학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	71
[그림 60] 학교의 설문조사 결과가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	72
[그림 61] 생리 공결 인정 여부에 대한 학년별 응답	73
[그림 62] 급식에서 대체 식단 제공에 대한 학년별 응답	74
[그림 63]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설립유형별)	75
[그림 64]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학년별)	77
[그림 65] 학생 편의시설의 사용 편의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학년별) ·	78
[그림 66]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지역별)	79
[그림 67]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설립유형별)	79
[그림 68] 침해사례 텍스트 마이닝	81
[그림 69] 학생 인권 관련 요구의 텍스트 마이닝	82
[그림 70] 인권 관련 의견의 텍스트 마이닝	84

제1장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 전반에 대두되었다. 1991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면서 학교교육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당사국의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권리를 가진다.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살펴야 할 의무를 한국 정부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5년간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실시했고, 2011년부터는 매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2016, 2017)’ 등 부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2013)이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2019), 전국참교육학부모회(2014)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전국적 실태조사로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2010년 경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4개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2015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2020년 학생인권조례 발의 및 제정의 근거와 자료를 얻고자 2019년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실태조사 역시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경남교육연대는

2008년 10월에 실시한 제1차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경남교육연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제정운동에 나섰다. 2010년에도 경남교육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2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응답이 학생, 학부모, 교사 각각 6%, 8%, 4.5%로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큰 동력이 되었다(조례만드는청소년, 2019: 21).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학생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학생인권실태조사로 이는 2019년 교육감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기반이 되었다.

요컨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 따라, 또는 특정 정책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조례 제정과 별도로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 영역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는 정부 주체는 국가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은 국제법상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청의 대표자로서 학생인권의 실태를 교육 공동체 구성원 및 지역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 시행의 구체적 실태와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관련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장려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적용과 상관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실천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 책무이자 본질이라는 점에서 시·도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자료 수집의 필요성은 정책 수립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시행과정과 실태가 정기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밝히고

자 한다. 조사의 결과를 통해 경남 교육인권 정책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이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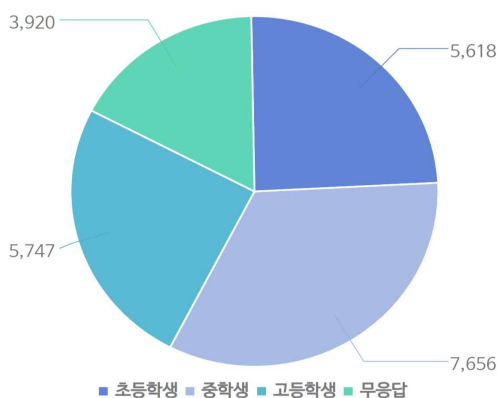
2. 조사 개요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는 경상남도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 이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경남 교육인권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소재 학교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응답 규모는 22,941명이다.

〈표 1〉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일정	2020년 10월 6일 ~ 10월 12일(7일간)
조사 대상	학생(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응답 규모	22,941명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여자의 학교급별 구성

〈표 2〉 참여자의 학교급별 구성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무응답	계
응답	24.49%	33.37%	25.05%	17.09%	100%
	5,618	7,656	5,747	3,920	22,941

〈표 3〉 참여자의 학년별 구성

학년	비율	응답수
초등학교 5학년	9.93%	2,277 명
초등학교 6학년	14.56%	3,341 명
중학교 1학년	13.57%	3,114 명
중학교 1학년	10.71%	2,456 명
중학교 1학년	9.09%	2,086 명
고등학교 1학년	10.95%	2,512 명
고등학교 2학년	8.98%	2,060 명
고등학교 3학년	5.12%	1,175 명
무응답	17.09%	3,920 명
계	100.00%	22,941 명

〈표 4〉 참여자의 성별 집단 구성

성	남성	여성	기타	무응답	계
응답	34.40%	47.96%	0.56%	17.09%	100%
	7,891	11,002	128	3,920	22,941

〈표 5〉 참여자의 동/읍·면별 구성

지역	동지역	읍, 면지역	무응답	계
응답	50.77%	32.14%	17.09%	100%
	11,647	7,374	3,920	22,941

〈표 6〉 참여자의 지역별 구성

지역	응답		지역	응답	
고성	1.17%	222	거제	7.39%	1,406
거창	2.58%	490	김해	12.74%	2,423
남해	1.39%	265	밀양	2.69%	511
사천	3.28%	624	산청	0.71%	135
양산	9.07%	1,725	의령	1.16%	220
진주	15.04%	2,861	창녕	2.58%	491
창원	31.41%	5,974	통영	3.09%	587
하동	2.22%	422	함안	1.54%	293
함양	0.92%	175	합천	1.04%	197

〈표 7〉 참여자의 소속 학교 설립유형별 구성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모름 및 무응답	계
응답	38.85%	24.58%	36.57%	100%
	8,912	5,639	8,390	22,941

응답 참여자 소속 학교의 설립유형별 구성은 〈표 7〉과 같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공립 학교이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설립유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설립유형별 참여자 구성을 〈표 8〉과 같이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8〉 참여자의 소속 학교 설립유형별 구성(초등학생 제외)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모름 및 무응답	계
응답	41.43%	40.06%	18.51%	100%
	5,553	5,369	2,481	13,403

3. 조사 영역 및 내용

설문의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9년에 실시한 전북 학생인권실태조사(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0.4.)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대구 학생인권연대가 2012년에 실시한 대구 학생인권실태조사 문항(대구학생인권연대, 2012)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역량, 인권 보장 및 증진 제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등교수업이 적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9~2020년의 두 해 간의 경험을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9〉 설문 참여자 배경 변인

설문 참여자 배경 변인
학교급 및 학년, 성, 거주지역(동지역/읍·면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설립유형

〈표 10〉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영역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1 학교에서 2020년에 받은 인권교육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학생은 헤어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집회 등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1〉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역량 영역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인권 침해 경험 및 대응 역량	인권 침해 경험	7	선생님에게 직접 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8	선생님에게 간접 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색합니까?	
		12	다니는 학교는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14	학교에서 지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5	학교에서 학교/교직원/다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차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6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제한하는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대응 역량	19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및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거나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표 12〉 인권 증진 제도 영역 조사 문항

영역		문항	
인권 보장 및 증진 제도	참여 보장	21	<p>다니는 학교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는 학생회 선거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 우리 학교는 축제 등의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받아들인다. -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 학교에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수업 시간 중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 있다. -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미리 안내되어 원하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2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을 통해 주로 묻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건강 권 보장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정보 권 보장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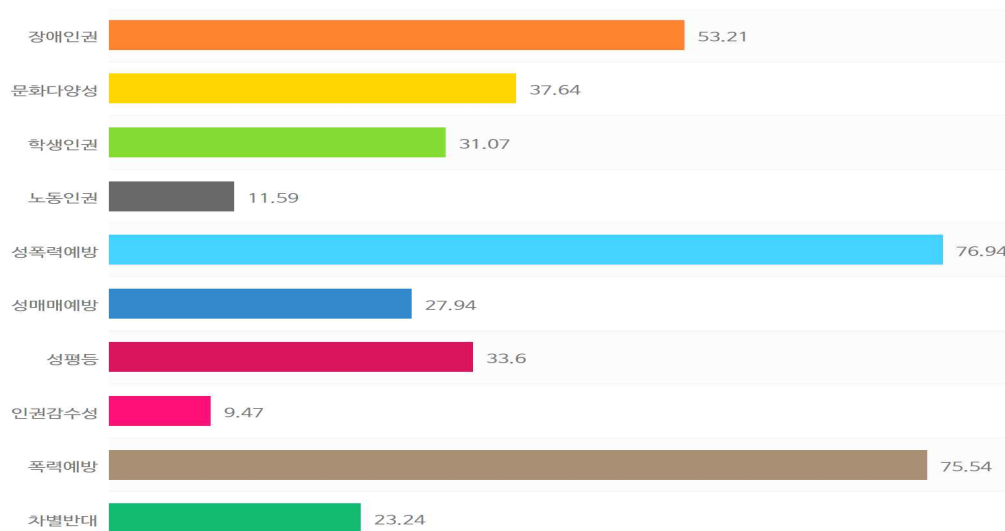
제2장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인권교육 및 인권 인식

가. 학교 인권교육 경험

‘2019~2020년 학교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을 모두 선택하시오.’라는 질문에 초·중·고등학생들의 답변은 성폭력예방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가장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경험했다고 답한 것은 장애인권 교육뿐이다.



[그림 2] 인권교육 경험 실태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단독 시수를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교과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보다 유의미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을 때여야 인권교육을 경험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에서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체

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것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이 실제 경험으로 다가가려면 더 많은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3〉 인권교육 경험 실태

인권교육 경험	응답	
장애인권교육 또는 장애인인권교육	53.21%	12,085명
다문화교육 또는 문화다양성교육	37.64%	8,548명
학생인권교육	31.07%	7,057명
노동인권교육	11.59%	2,632명
성폭력 예방교육	76.94%	17,473명
성매매 예방교육	27.94%	6,345명
성평등교육 또는 성인권교육 또는 성인지교육	33.60%	7,631명
인권감수성 교육	9.47%	2,151명
폭력예방교육	75.54%	17,155명
차별금지교육 또는 반차별교육	23.24%	5,278명
해당없음	6.49%	1,473명
	응답 수	22,711명
	무응답 수	230명

학교 인권교육의 경험을 학교급 및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전 학년에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폭력예방교육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예방교육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의무교육화되어 있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낮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전 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역시 학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권감수성 교육과 차별반대교육 역시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현저하게 적은 응답을 보였다.

〈표 14〉 인권교육 경험 실태(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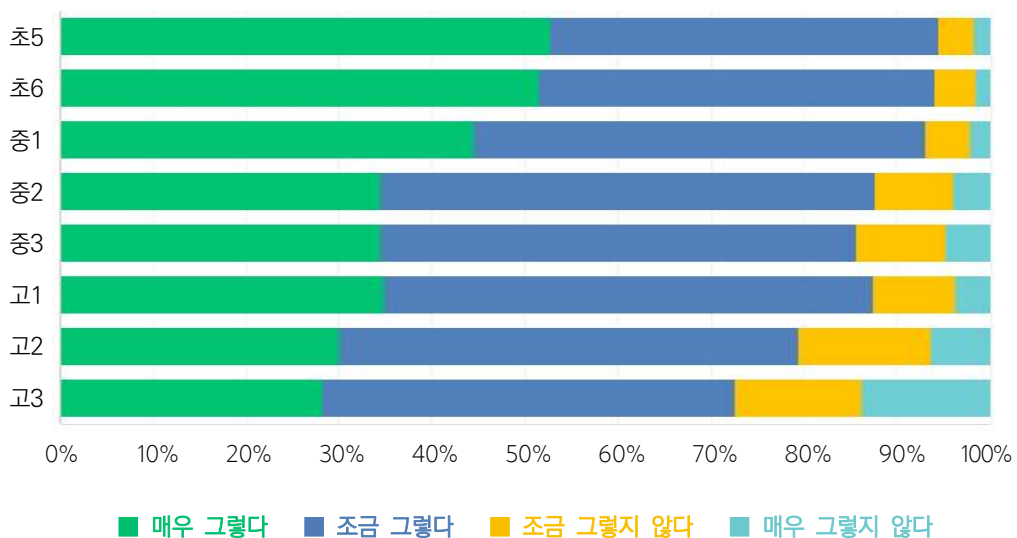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장애인권 교육	64.85%	58.86%	56.41%	49.73%	50.58%	48.06%	49.39%	49.01%
	1,461	1,944	1,747	1,211	1,045	1,200	1,009	571
문화 다양성교육	54.11%	44.99%	40.33%	31.66%	31.51%	32.32%	29.61%	32.02%
	1,219	1,486	1,249	771	651	807	605	373
학생인권 교육	45.72%	38.42%	32.97%	24.80%	27.06%	24.83%	24.08%	27.21%
	1030	1269	1021	604	559	620	492	317
노동인권 교육	11.94%	14.32%	10.01%	9.40%	10.84%	10.33%	10.33%	20.17%
	269	473	310	229	224	258	211	235
성폭력 예방교육	77.14%	78.08%	79.72%	75.56%	83.16%	75.45%	76.16%	73.91%
	1738	2579	2469	1840	1718	1884	1556	861
성매매 예방교육	14.82%	17.89%	28.87%	28.79%	36.11%	34.00%	36.37%	36.82%
	334	591	894	701	746	849	743	429
성평등교육	23.92%	26.85%	37.81%	35.03%	37.46%	38.89%	38.47%	37.77%
	539	887	1,171	853	774	971	786	440
인권감수성 교육	12.38%	11.20%	7.68%	8.25%	12.00%	6.53%	8.66%	8.84%
	279	370	238	201	248	163	177	103
폭력예방 교육	83.58%	83.95%	75.88%	76.18%	77.73%	68.60%	72.10%	65.06%
	1883	2773	2350	1855	1606	1713	1473	758
차별반대 교육	37.33%	32.15%	25.86%	18.73%	15.83%	14.94%	17.03%	16.31%
	841	1,062	801	456	327	373	348	190
해당없음	6.17%	5.96%	5.23%	6.12%	5.32%	6.37%	5.78%	8.93%
	139	197	162	149	110	159	118	104
계	11.95%	17.51%	16.42%	12.91%	10.95%	13.24%	10.83%	6.18%
	2,253	3,303	3,097	2,435	2,066	2,497	2,043	1,165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인권교육이 전 학년에 걸쳐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노동인권교육은 전 학년에서 10% 안팎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오직 고등학교 3학년만 20.17%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과 곧 근무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면한 노동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하는 노동법 교육에 가까운 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노동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인권은 비단 개별 사용자와의 관계 종속성에 귀속되는 노동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노동행위가 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일과 노동이 유지되어야 할 조건, 노동력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훈련(교육·학습권), 그리고 집단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 및 사회정책에 참여하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송태수·이원희,2018:29). 이러한 노동인권교육은 지식과 함께 권리의식과 감수성, 참여의 경험 등을 포괄하기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노동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전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응답이 88.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별 만족도를 보면 고2와 고3 학년의 학생들에게서 긍정답변이 줄어드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인권교육이 형식화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지는데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를 따르지 못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3]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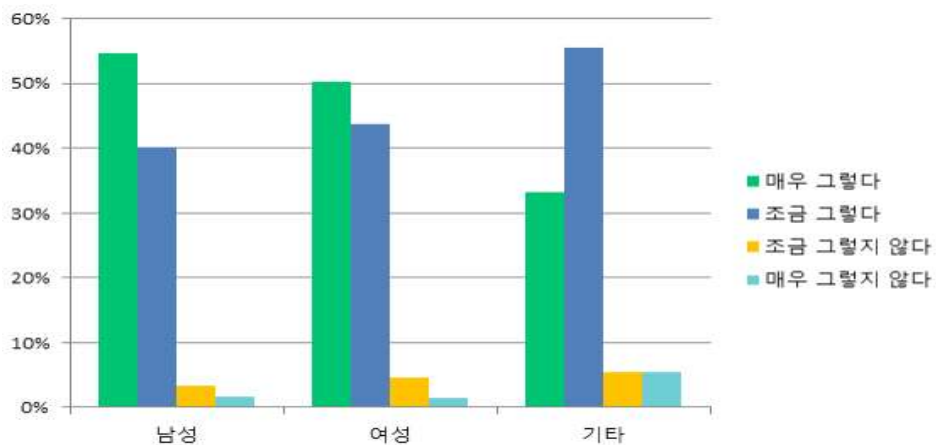
〈표 15〉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40.64%	47.63%	7.77%	3.96%		
	9,323	10,927	1,783	908	22,941	0

학년예 따라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학교급별·성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전체 집단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기타 성 집단 외에는 50%가 넘는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성 집단 역시 긍정응답이 88.89%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6〉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남성	54.73%	1,296	40.24%	953	3.42%	81	1.60%	38
여성	50.31%	1,626	43.72%	1,413	4.52%	146	1.45%	47
기타	33.33%	6	55.56%	10	5.56%	1	5.56%	1
전체	52.12%	2,928	42.29%	2,376	4.06%	228	1.53%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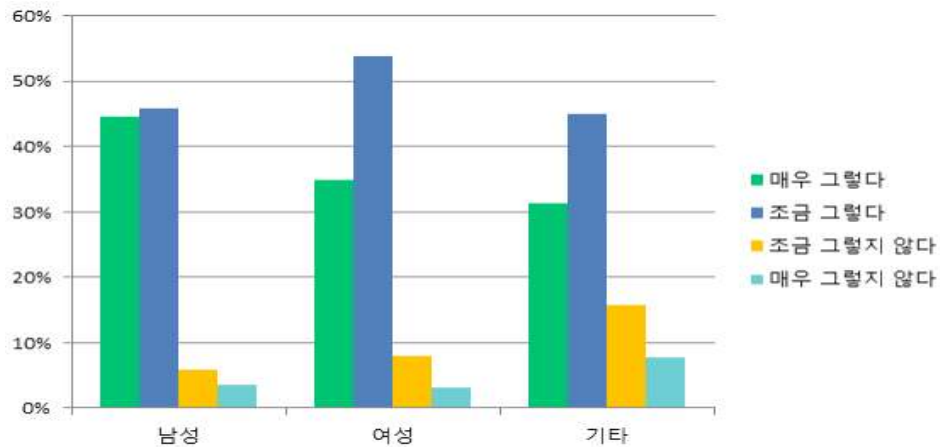


[그림 4]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집단의 답변과 비교할 때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줄고 ‘조금 그렇다’의 응답이 늘어나 긍정응답의 질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집단과 기타 성 집단의 부정응답이 늘어났다.

<표 17>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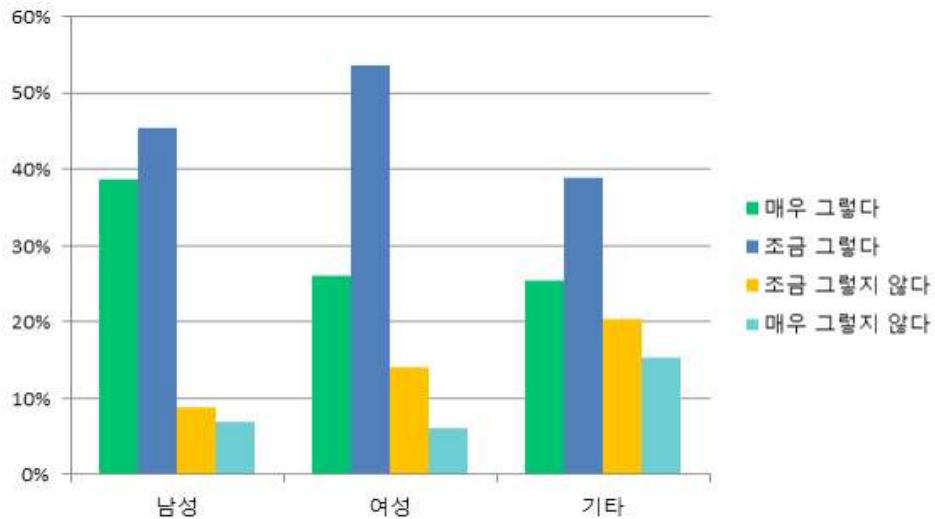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44.59%	1,298	45.86%	1,335	5.94%	173	3.61%	105
여성	34.92%	1,639	53.92%	2,531	8.05%	378	3.11%	146
기타	31.37%	16	45.10%	23	15.69%	8	7.84%	4
전체	38.57%	2,953	50.80%	3,889	7.30%	559	3.33%	255



[그림 5]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표 18>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38.78%	1,013	45.37%	1,185	8.81%	230	7.04%	184
여성	26.11%	803	53.74%	1,653	14.08%	433	6.08%	187
기타	25.42%	15	38.98%	23	20.34%	12	15.25%	9
전체	31.86%	1,831	49.78%	2,861	11.75%	675	6.61%	380



[그림 6]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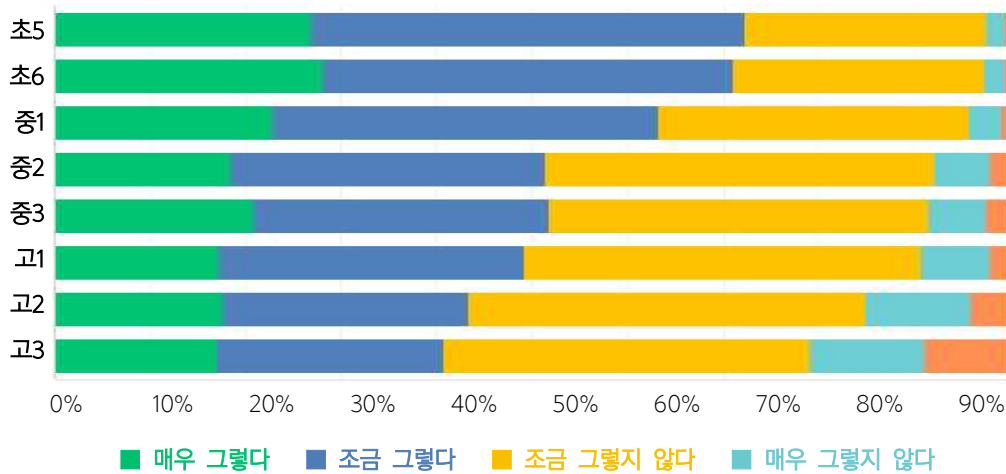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집단에 따라 ‘매우 그렇다’의 응답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차별받거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학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이희진(2020)의 「참정권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견 조사」의 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여성] 집단의 경우 긍정응답이 77.38%, [성-남성] 집단의 경우 58.83%로 나타났고 투표참가 응답 역시 [성-여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참정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집단간 응답차이를 고려할 때, [성-여성] 집단과 [성-기타] 집단의 인권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답변은 7.46%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 응답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답변이 평균값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21.86%	35.52%	35.16%	5.40%	2.06%	100%	
	5,016	8,149	8,066	1,238	472	22,94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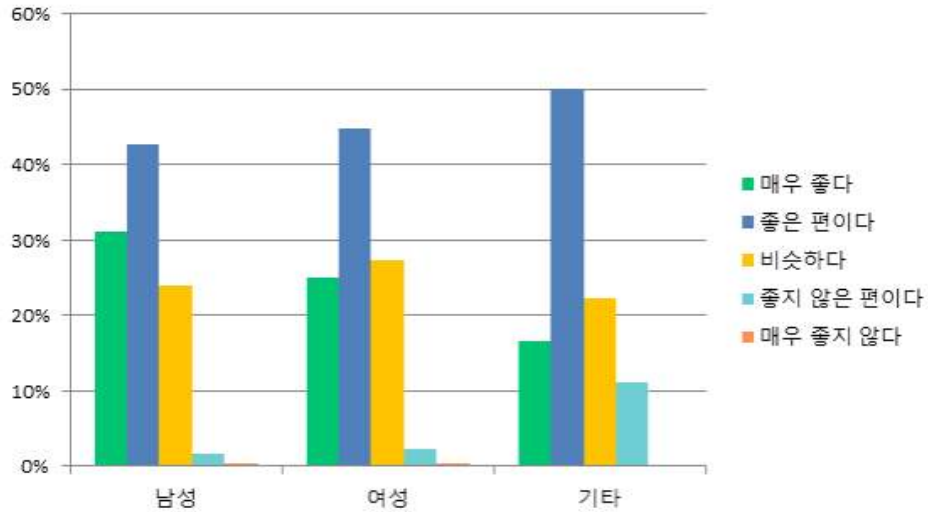


〈그림 7〉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학년별 평가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에서 초등학생 응답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학교급별·성별 집단으로 응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초등학생 평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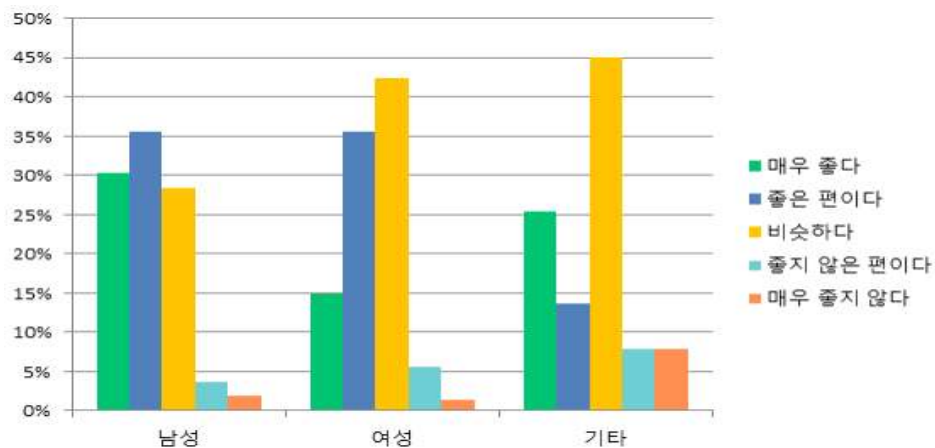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31.08%	736	42.78%	1013	24.07%	570	1.60%	38	0.46%	11
여성	25.03%	809	44.77%	1447	27.41%	886	2.32%	75	0.46%	15
기타	16.67%	3	50.00%	9	22.22%	4	11.11%	2	0.00%	0
전체	27.55%	1548	43.95%	2469	25.99%	1460	2.05%	115	0.46%	26



[그림 8]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초등학생 만족도(성별)

<표 21>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중학생 평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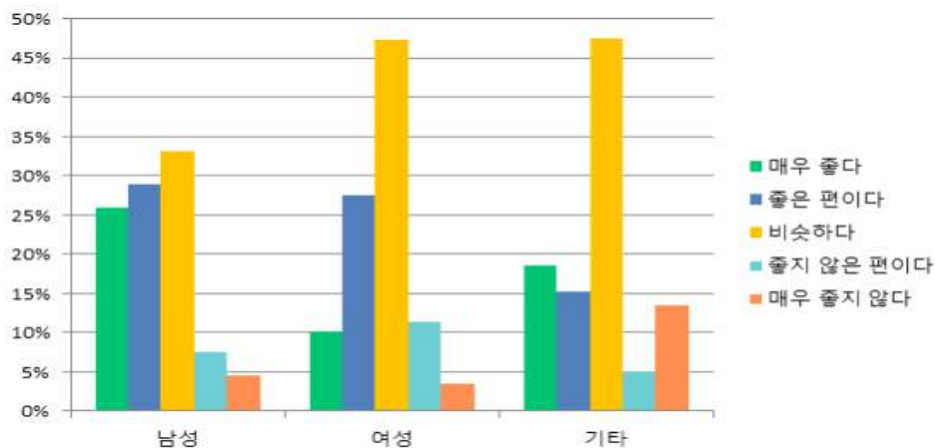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30.40%	885	35.66%	1,038	28.48%	829	3.61%	105	1.86%	54
여성	14.93%	701	35.60%	1,671	42.35%	1,988	5.69%	267	1.43%	67
기타	25.49%	13	13.73%	7	45.10%	23	7.84%	4	7.84%	4
전체	20.89%	1,599	35.48%	2,716	37.10%	2,840	4.91%	376	1.63%	125



[그림 9]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중학생 만족도(성별)

〈표 22〉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고등학생 평가(성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26.00%	679	28.87%	754	33.08%	864	7.54%	197	4.52%	118
여성	10.14%	312	27.47%	845	47.37%	1,457	11.44%	352	3.58%	110
기타	18.64%	11	15.25%	9	47.46%	28	5.08%	3	13.56%	8
Total	17.44%	1,002	27.98%	1,608	40.87%	2,349	9.61%	552	4.11%	236



[그림 10] 학생인권 보장수준에 대한 고등학생 만족도(성별)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집단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성 학생의 ‘매우 그렇다’ 응답은 초등학생 31.08%, 중학생 30.40%, 고등26.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 초등학생 25.03%, 중학생 14.93%, 고등학생 10.14%로 나타나 남성 학생과의 수치 차이는 물론 학교 재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남지역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학교 내에서 성별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학생을 대우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정책적 방향성에 성평등한 문화 조성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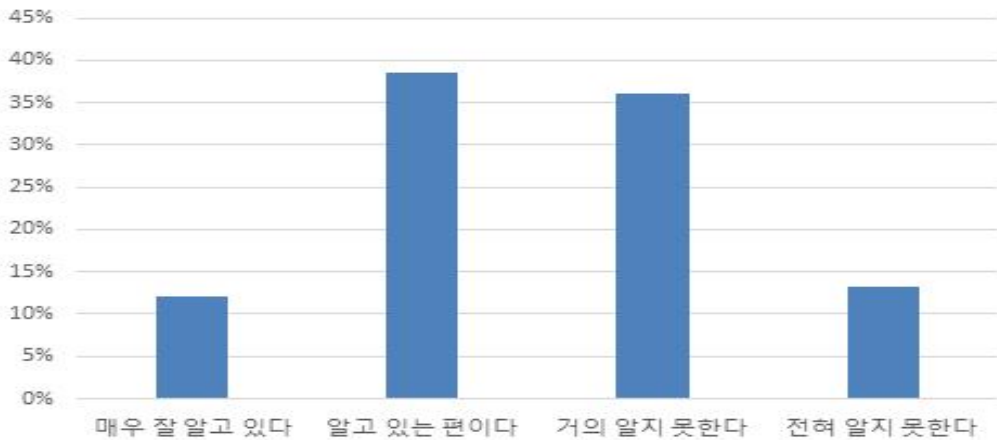
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경상남도 지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2008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있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도되었다. 특히 2018~2019년은 교육감 발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있었던 시기로, 도교육청의 주도하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가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인권을 둘러싸고 최근 가장 활발히 논의된 정책에 대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2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거의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12.07%	38.52%	36.14%	13.28%	100%	
	2,769	8,836	8,290	3,046	22,94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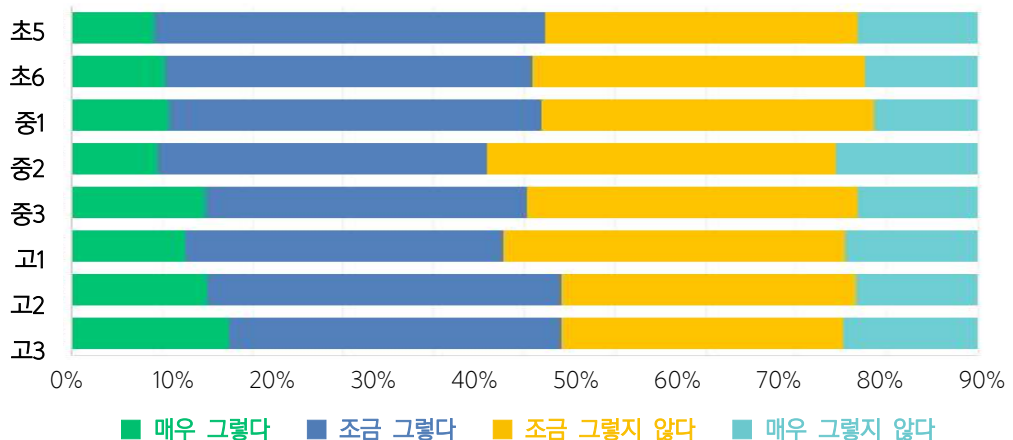


[그림 1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교육감 발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었기에 교실마다 학생인권조례 홍보물도 부착되었음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및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42%로 절반에 가까웠다.

〈표 2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학년별)

·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거의 알지 못 한다		전혀 알지 못 한다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초5	9.22%	210	43.13%	982	34.65%	789	13.00%	296
초6	10.39%	347	40.59%	1,356	36.73%	1,227	12.30%	411
중1	10.89%	339	41.10%	1,280	36.71%	1,143	11.30%	352
중2	9.65%	237	36.40%	894	38.48%	945	15.47%	380
중3	14.86%	310	35.47%	740	36.63%	764	13.04%	272
고1	12.58%	316	35.31%	887	37.62%	945	14.49%	364
고2	15.10%	311	39.13%	806	32.62%	672	13.16%	271
고3	17.45%	205	36.77%	432	31.06%	365	14.72%	173
전체	11.96%	2,275	38.78%	7,377	36.01%	6,850	13.24%	2,519



[그림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학년별)

더욱 주목할 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학교급 및 학년별·성별·설립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1, 2, 3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시기를 학생의 입장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세대이다. 그럼에도 초등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제 학교 교육에서, 실제 학교 문화에서 접근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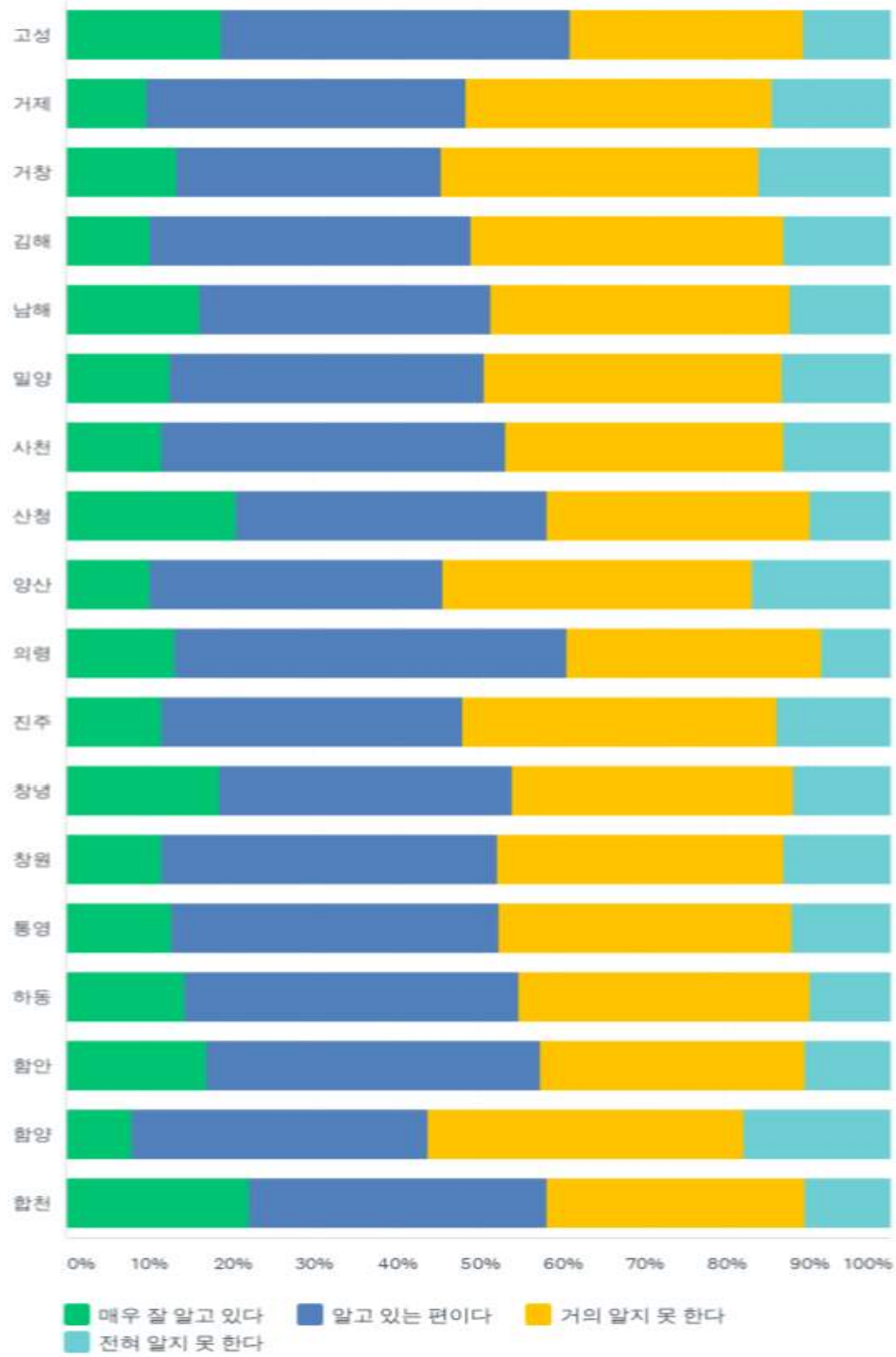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조금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고성과 의령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거창, 함양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10% 안팎의 응답자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정책이며,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을 증진하는 제도와 방법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인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여러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들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5〉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지역별)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거의 알지 못 한다		전혀 알지 못 한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고성	18.92%	42	42.34%	94	28.38%	63	10.36%	23
거제	9.89%	139	38.76%	545	37.06%	521	14.30%	201
거창	13.47%	66	32.04%	157	38.57%	189	15.92%	78
김해	10.19%	247	39.08%	947	37.80%	916	12.92%	313
남해	16.23%	43	35.47%	94	36.23%	96	12.08%	32
밀양	12.72%	65	38.16%	195	36.01%	184	13.11%	67
사천	11.70%	73	41.67%	260	33.81%	211	12.82%	80
산청	20.74%	28	37.78%	51	31.85%	43	9.63%	13
양산	10.32%	178	35.54%	613	37.57%	648	16.58%	286
의령	13.18%	29	47.73%	105	30.91%	68	8.18%	18
진주	11.60%	332	36.67%	1,049	38.13%	1,091	13.60%	389
창녕	18.74%	92	35.44%	174	34.22%	168	11.61%	57
창원	11.65%	696	40.78%	2436	34.67%	2071	12.91%	771
통영	12.95%	76	39.69%	233	35.60%	209	11.75%	69
하동	14.45%	61	40.52%	171	35.31%	149	9.72%	41
함안	17.06%	50	40.61%	119	32.08%	94	10.24%	30
함양	8.00%	14	36.00%	63	38.29%	67	17.71%	31
합천	22.34%	44	36.04%	71	31.47%	62	10.15%	20
전체	11.96%	2,275	38.78%	7,377	36.01%	6,850	13.24%	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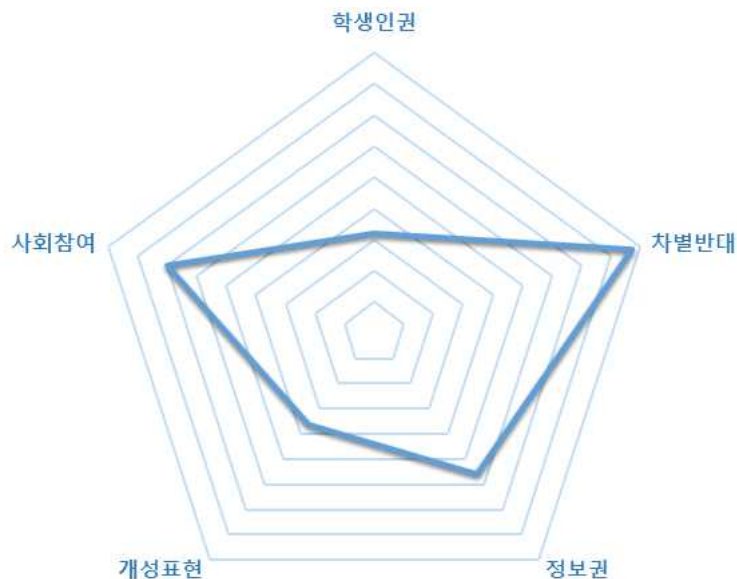


[그림 1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지역별)

마.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각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수준을 통해 학생의 인권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상남도 학생의 인권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인권(‘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차별반대(‘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정보권(‘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개성표현의 자유(‘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권(‘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상남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해 지지하는 응답을 보였다.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남도지역 학생들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인권 이슈, 즉 초·중·고등학생 역시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나 용모·복장 등에 대한 개성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권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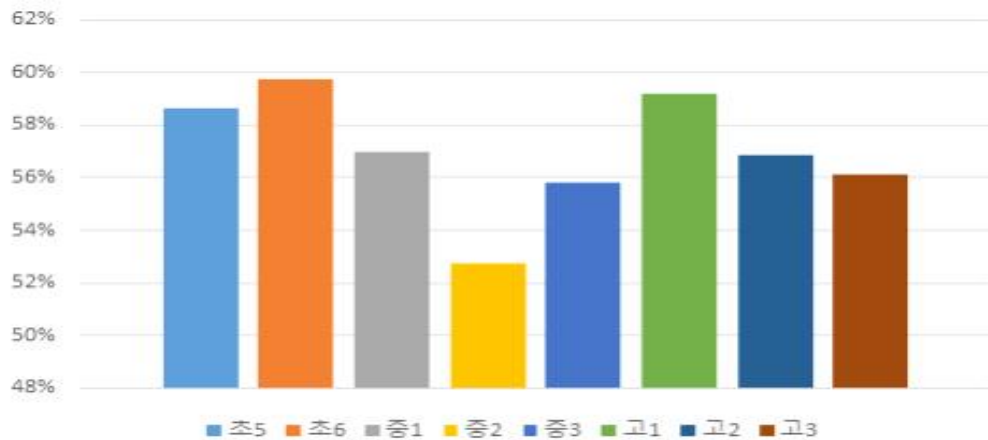
〈표 26〉 분야별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

응답	매우 동의한다		조금 동의한다		조금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가중 평균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56.79%	13,028	31.83%	7,301	9.42%	2,160	1.97%	452	4.32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90.71%	20,810	7.87%	1,805	0.72%	166	0.70%	160	4.87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8.01%	15,602	26.73%	6,131	4.21%	966	1.05%	242	4.56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56.96%	13,067	33.53%	7,691	8.05%	1,847	1.46%	336	4.36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5.07%	17,221	22.53%	5,168	1.86%	427	0.54%	125	4.7
응답 수								22,941	
무응답 수								0	

1) 학생인권

경상남도 학생의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인권인식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의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이 56.53%, 여성이 57.64%, 기타 성이 62.5%로 기타 집단이 다소 높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매우 동의한다’가 52.77%)를 보였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매우 동의한다’가 59.77%)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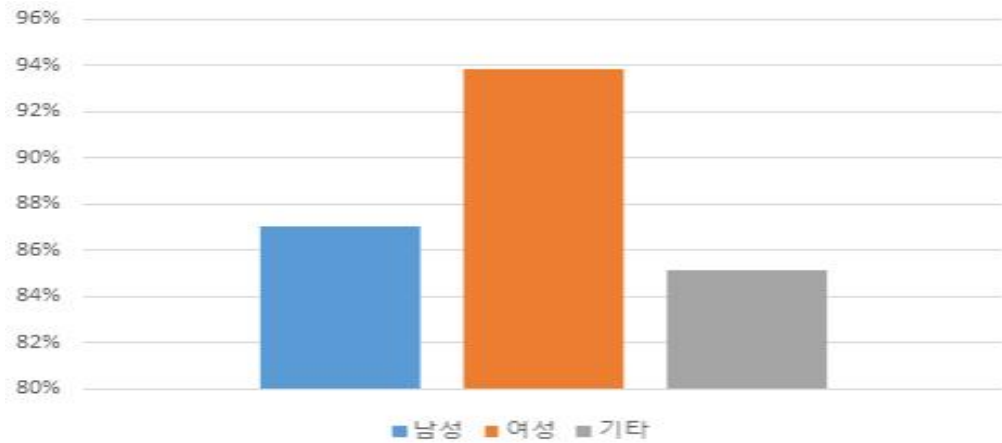


[그림 15] 학생인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년별 비율

이는 다른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다소 차별성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몇몇 인권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학년이나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성년과 미성년 사이의 권리 구분에 대한 경계가 되는 만 18~20세에 가까워지면서 지지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반면 경상남도 학생들은 학년 및 학교급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교의 지역성이나 설립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차별반대

경상남도 학생들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높은 지지 수준을 나타냈으나 성별 집단별로 볼 때 여성 학생 71.33%, 남성 학생 65.37%, 기타 성 학생 63.83%로 여성 학생들의 지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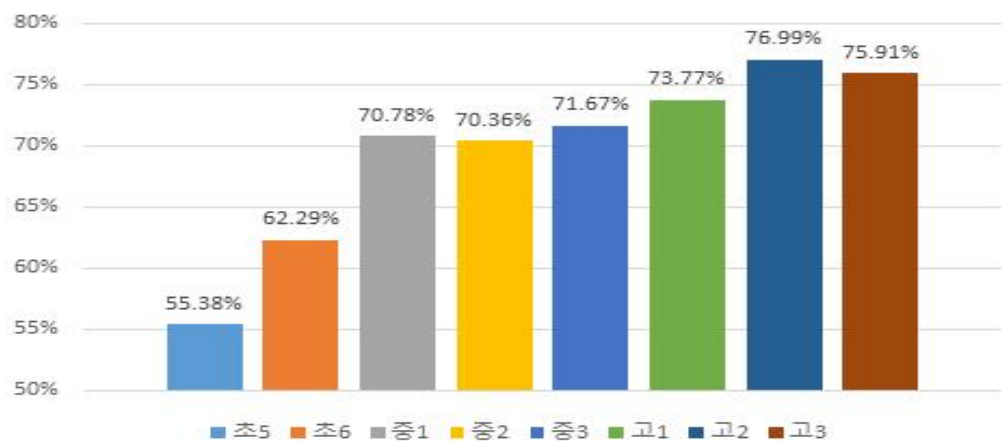


[그림 16] 차별반대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성별 비율

3) 정보권

학생인권과 차별반대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동등함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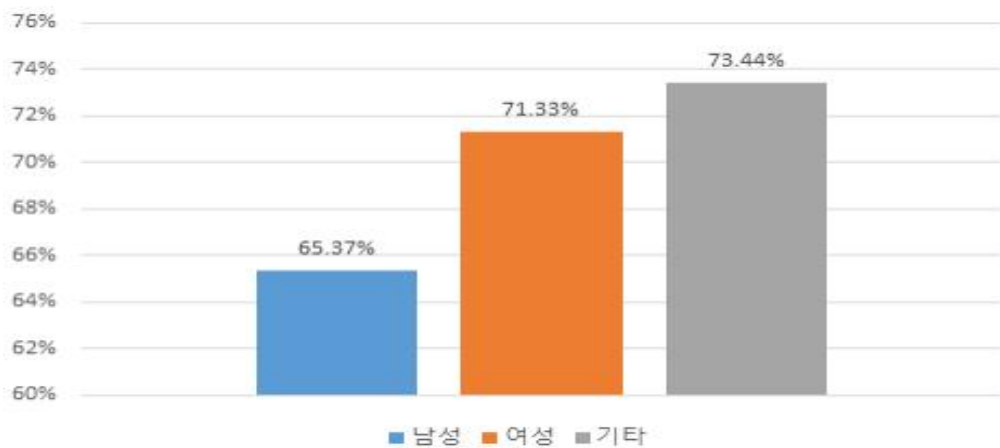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학년 및 학교급별로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점차 높아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76.99%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다소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권인식 증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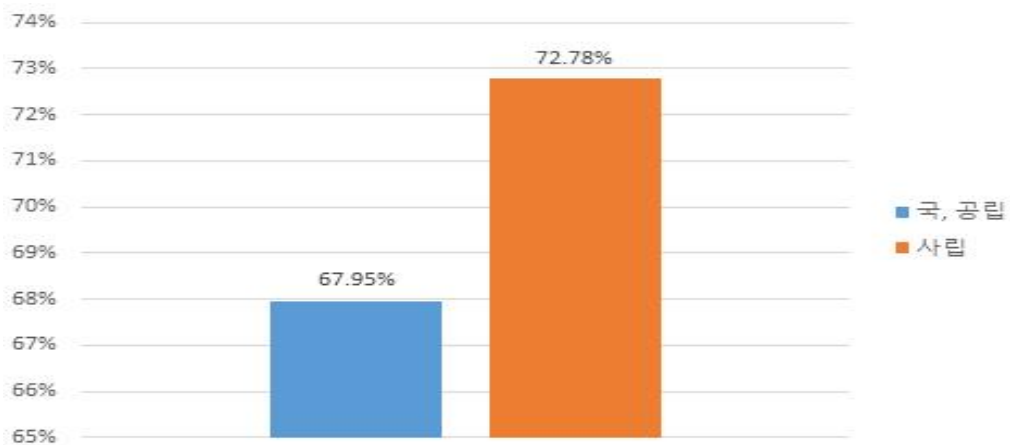
[그림 17]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년별 비율

성별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학생 65.37%-여성 학생 71.33%-기타 성 학생이 73.44%로 남성 학생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립 학교 학생이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72.78%)이 공립학교 학생의 응답 비율(67.9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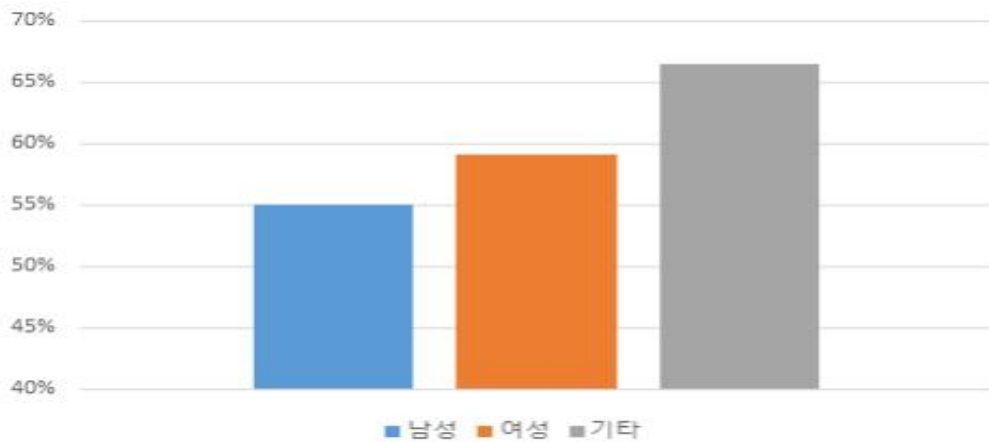
[그림 18]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성별 비율



[그림 19] 정보권에 대한 '매우 동의한다' 응답 학교 설립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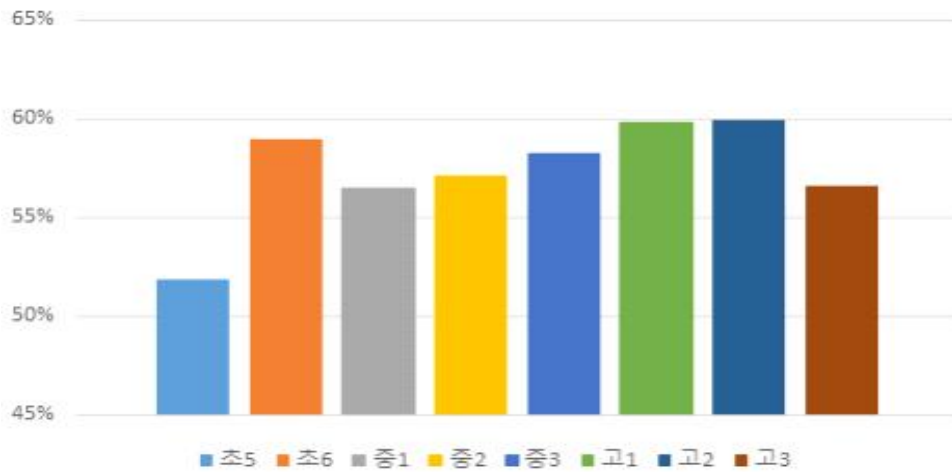
4) 개성표현의 자유

개성표현의 자유는 두발 모양 제한 및 복장 규정 등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갈등과 권리 침해 사례에서 언급되는 권리이다.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남성 학생은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55.06%, 여성 학생이 59.08%, 기타 성 학생이 66.41%으로 나타나 여성 학생이, 그리고 기타 성별 학생들이 개성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0] 개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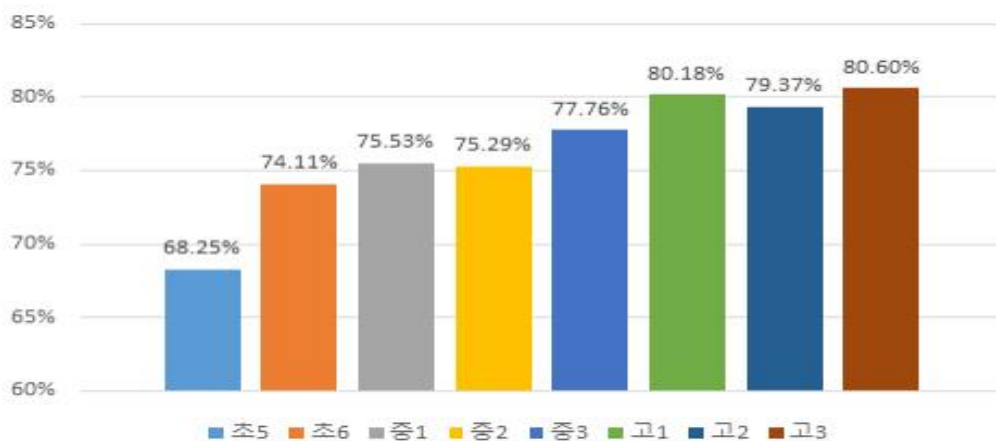
학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중2~고2 학년까지는 조금씩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장과 외모에 관련하여 학교 내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초 6과 중 3에서 학교급 내 가장 높은 지지수준을 나타냈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권인식이 낮게 나타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59.9%)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지지 수준(56.6%)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 경향성으로,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권리의 제한을 더 많이 강요받거나 이를 내재화하고 있는 등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 개성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년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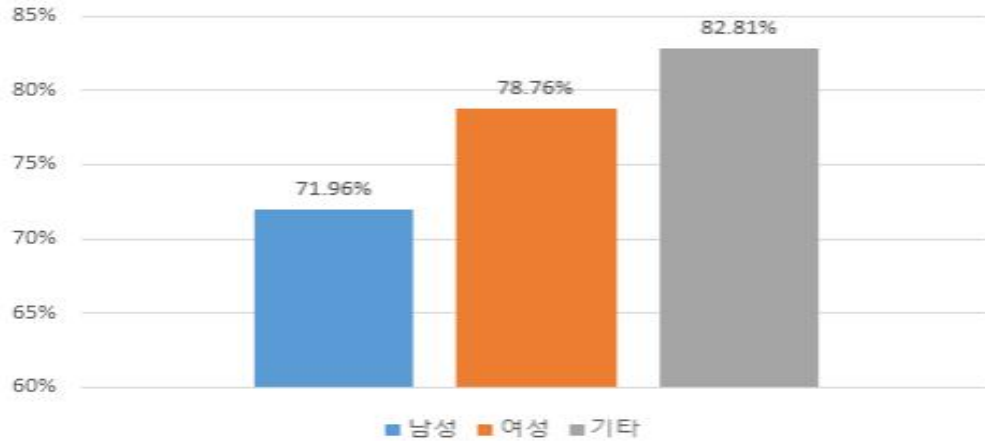
5) 참여권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5번 문항 전체에서 유일하게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성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하여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낸 것은 참여권 문항이 유일한데, 2019년에 개정하여 올해 학생 유권자가 탄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참여권에 대한 학년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성별 응답에서는 전체적인 응답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남성 학생은 71.96%, 여성 학생은 78.76%, 기타 성 학생은 82.81%으로 남성 학생이 가장 낮은 지지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남성 학생의 인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3] 참여권에 대한 성별 '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

바.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긍정응답은 85.00%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행복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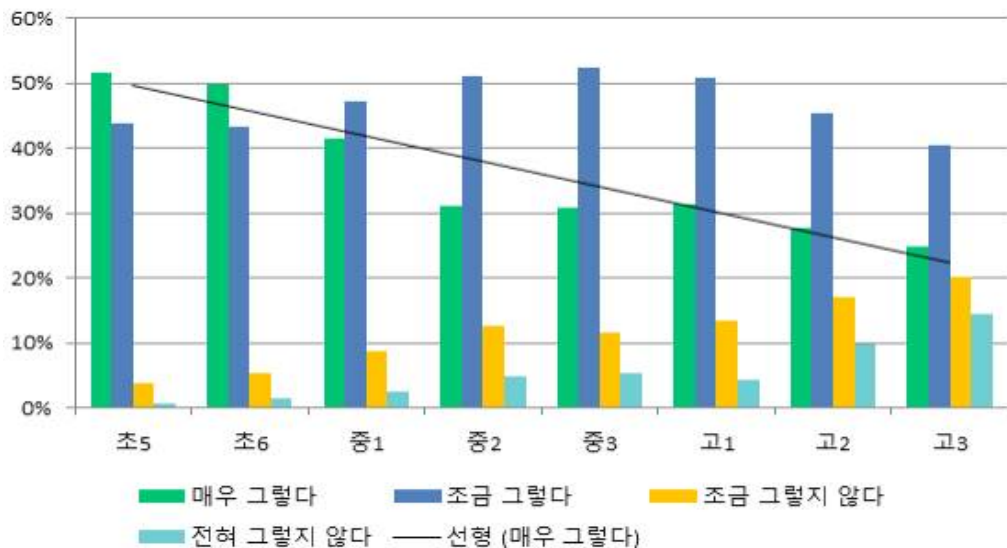
<표 27> 학교의 인권 증진 실천에 대한 신뢰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명)	38.02%	46.98%	10.50%	4.50%	100%	
	8,722	10,778	2,409	1,032	22,941	0

그러나 이 질문도 학년별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정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학교급별·학년별, 성별 응답을 분석해보았다.

〈표 28〉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학년별)

·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초5	51.52%	1,173	43.74%	996	3.91%	89	0.83%	19
초6	49.84%	1,665	43.22%	1,444	5.48%	183	1.47%	49
중1	41.59%	1,295	47.17%	1,469	8.67%	270	2.57%	80
중2	31.11%	764	51.22%	1,258	12.74%	313	4.93%	121
중3	30.78%	642	52.40%	1,093	11.51%	240	5.32%	111
고1	31.33%	787	50.80%	1,276	13.57%	341	4.30%	108
고2	27.77%	572	45.34%	934	17.14%	353	9.76%	201
고3	24.94%	293	40.43%	475	20.17%	237	14.47%	170
전체	37.81%	7,191	47.03%	8,945	10.65%	2,026	4.52%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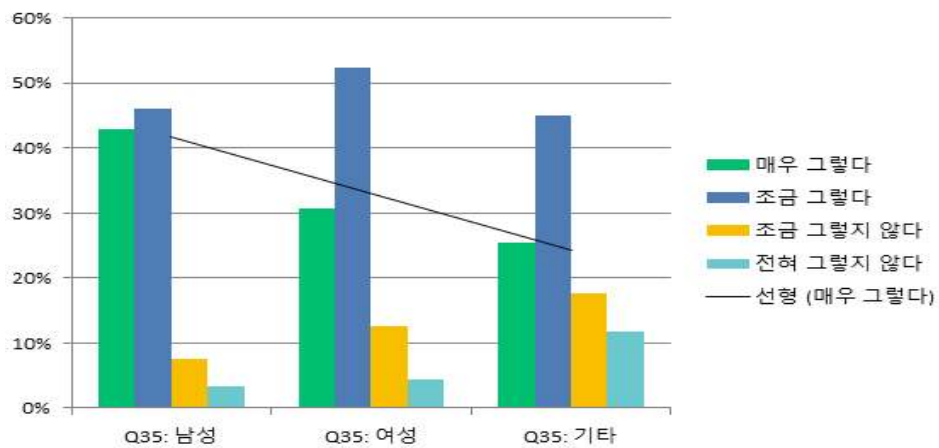


[그림 24]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학년별)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응답이 93.95%에 달해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신뢰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1/3 수준에 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4.47%로 나타나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42.84%	1,247	46.10%	1,342	7.63%	222	3.44%	100
여성	30.70%	1,441	52.30%	2,455	12.61%	592	4.39%	206
기타	25.49%	13	45.10%	23	17.65%	9	11.76%	6
전체	35.28%	2,701	49.90%	3,820	10.75%	823	4.08%	312



[그림 25]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신뢰(성별)

성별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 여성, 기타 성의 순으로 신뢰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및 기타 성 집단의 부정응답도 남성 집단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아 학교의 문화가 성차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30〉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신뢰(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52.74%	1,249	41.30%	978	4.77%	113	1.18%	28
여성	48.92%	1,581	45.05%	1,456	4.80%	155	1.24%	40
기타	44.44%	8	33.33%	6	22.22%	4	0.00%	0
전체	50.52%	2,838	43.43%	2,440	4.84%	272	1.21%	68

〈표 31〉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중학생들의 신뢰(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42.84%	1,247	46.10%	1,342	7.63%	222	3.44%	100
여성	30.70%	1,441	52.30%	2,455	12.61%	592	4.39%	206
기타	25.49%	13	45.10%	23	17.65%	9	11.76%	6
전체	35.28%	2,701	49.90%	3,820	10.75%	823	4.08%	312

〈표 32〉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신뢰(성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34.95%	913	43.53%	1,137	14.20%	371	7.31%	191
여성	23.47%	722	49.61%	1,526	17.95%	552	8.97%	276
기타	28.81%	17	37.29%	22	13.56%	8	20.34%	12
전체	28.75%	1,652	46.72%	2,685	16.20%	931	8.33%	479

조직에 오래 있었던 집단일수록 더 조직에 익숙하고 친근하며 기득권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직과 개인의 일체화도 나타나므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소속기간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남지역 학생들은 학교의 인권 증진 의지에 대해 학교 재학 기간이 길수록 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인권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방향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인권침해경험 및 대응 역량

가. 인권침해경험

학교 내에서 경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체벌(도구 또는 몸의 일부를 사용하여 때리는 형태의 벌), 간접체벌, 언어폭력, 차별, 권리 제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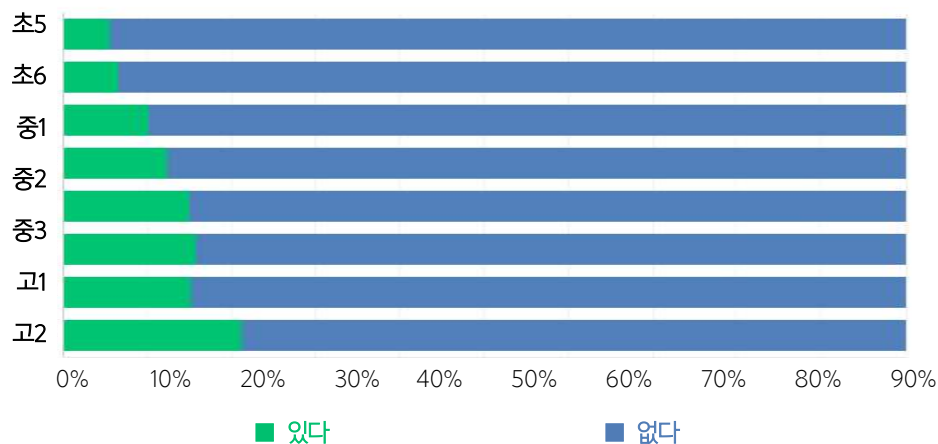
1) 직접체벌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을 끄는 점은 직접 체벌 경험율이 11.78%에 달한다는 점

이다. 2019년의 전라북도 지역 직접 체벌 경험 응답(16.87%)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광주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5%가 교사로부터의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김이수, 2019), 경기도의 경우 도구를 이용한 교사 체벌 경험은 1.2%, 손발을 이용한 직접 체벌 경험은 1.4%에 불과했다. 위법적 행위이자 가장 원초적인 폭력인 체벌이 아직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인권 침해적 실태라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체벌 경험율이 다른 인권 영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33〉 교사로부터의 직접 체벌 경험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11.78%	88.22%		
	2,426명	18,176명	20,602명	2,339명



[그림 26]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학년별)

또한 [그림 12]를 통해 학년이 높을수록 직접 체벌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직접적 체벌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저항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달라질 수록 직접체벌 비율은 낮아지고, 폭언이나 생활기록부 등을 이유로 하는 위협이 더 많이 발견된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체벌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체벌에 대한 통념 2가지 ‘성별에 따라 직접체벌이 다르게 행해진다’와 ‘사립학교에서 직접체벌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집단별 및 설립유형별로 직접체벌 경험을 살펴보았다.

<표 34>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성별)

성	있다		없다		합계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15.37%	1,213	84.63%	6,678	41.49%	7,891
여성	9.24%	1,017	90.76%	9,985	57.84%	11,002
기타	21.88%	28	78.13%	100	0.67%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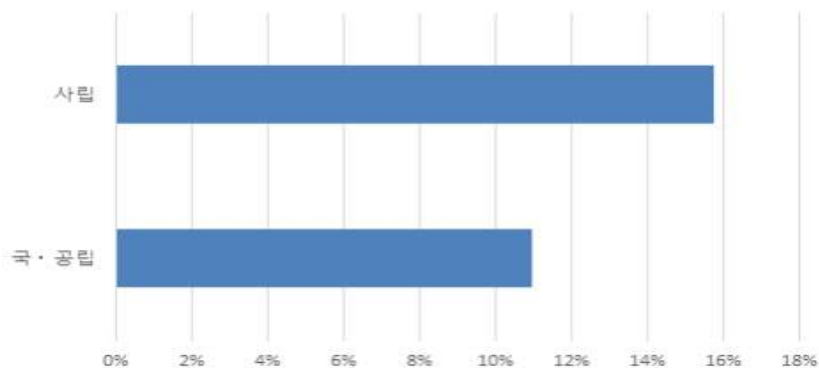
<표 35>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비율(성별 · 학교급별)

성	초	중	고
남성	6.63%	16.66%	21.86%
여성	6.00%	9.52%	12.22%
기타	16.67%	17.65%	27.12%

남성 학생의 직접체벌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남성 학생과 기타 성 학생의 경험 비율이 여성 학생 경험 비율의 2배 가깝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성 학생과 여성 학생 간의 직접체벌 경험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남학교에서 직접체벌이 더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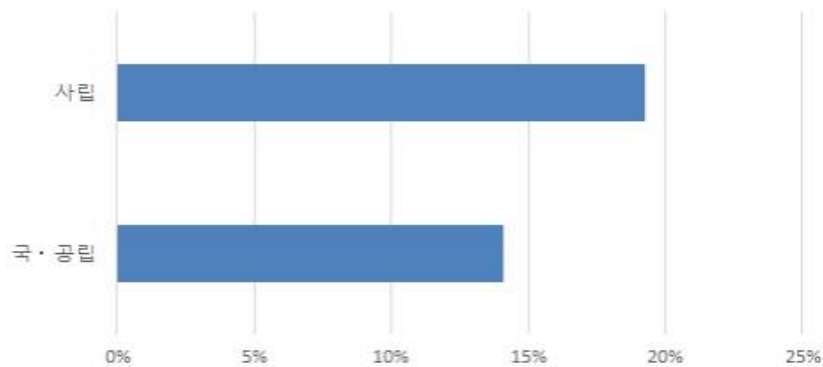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국·공립	10.94%	373	89.06%	3,038
사립	15.73%	368	84.27%	1,972
전체	12.88%	741	87.12%	5,010



[그림 27]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표 37〉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국·공립	14.10%	302	85.90%	1,840
사립	19.25%	583	80.75%	2,446
전체	17.11%	885	82.89%	4,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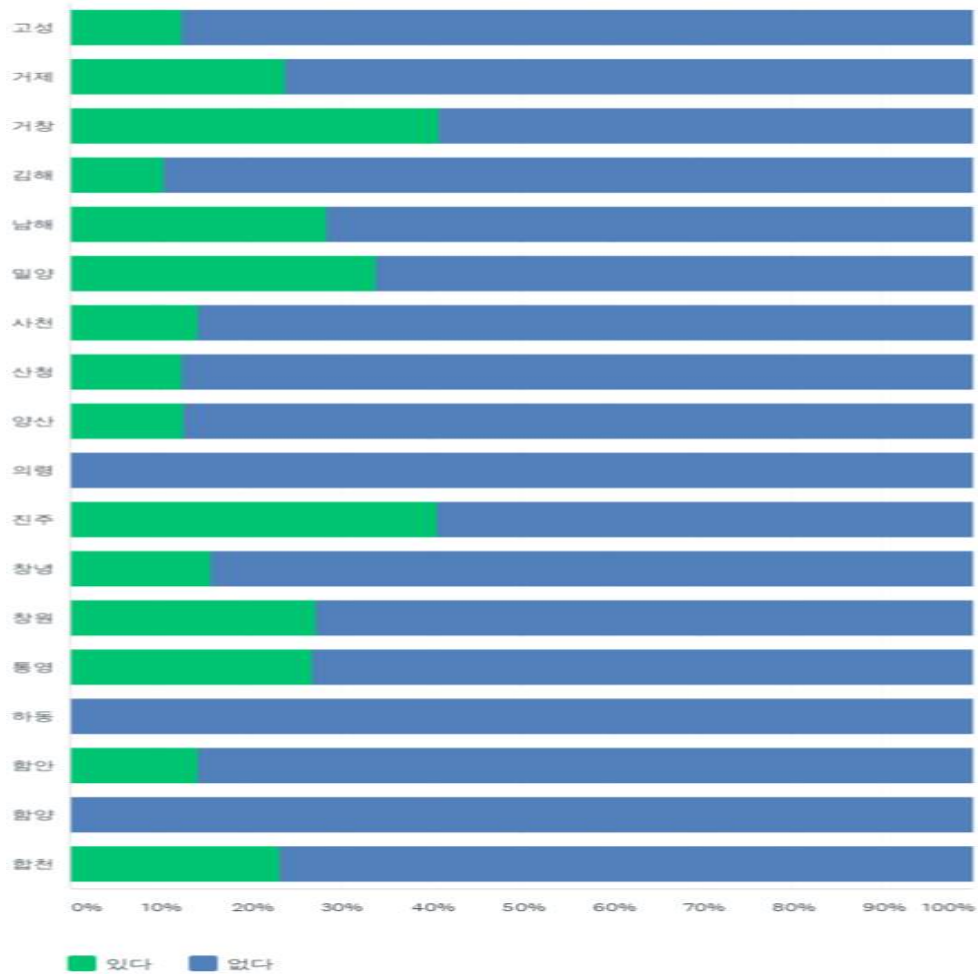
[그림 28]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직접체벌 경험 비율 역시 국·공립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사립학교에서 직접체벌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사립고등학교 남학생)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고등학교 1학년	27.14%	168	72.86%	451
고등학교 2학년	22.50%	99	77.50%	341
고등학교 3학년	41.03%	96	58.97%	138
전체	28.07%	363	71.93%	930

직접체벌 경험 응답이 높은 배경 변인인 사립학교·남성·고등학교를 중복해 적용할 경우, 2019~2020년 직접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1.03%에 달했다. 사립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직접체벌 경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창, 밀양, 진주 지역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교사로부터의 직접체벌 경험(사립 중 · 고등학교)

직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상 금지되어 있고 형법에서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경남지역의 학생들은 직접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직접체벌을 학교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

2) 간접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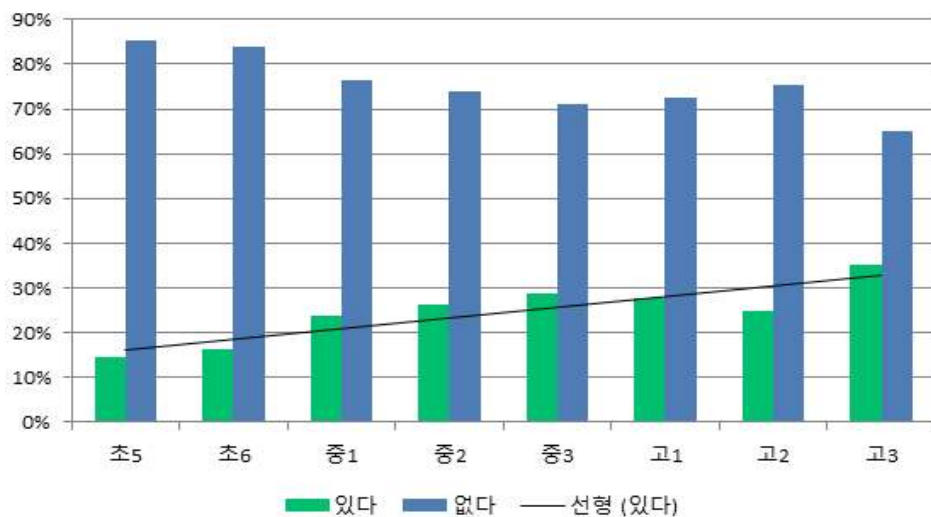
손들고 있기, 운동장 뛰기 등 어떤 행동을 하게 하여 고통을 주는 형태의 벌, 즉 간접체벌을 경남지역 학생의 23.39%가 2019~2020년에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져 고등학교 3학년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39〉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23.39%	76.61%		
	4,819	15,783	20,602	2,339

〈표 40〉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학년별)

	있다		없다	
	비율	수	비율	수
초등학교 5학년	14.58%	332	85.42%	1,945
초등학교 6학년	16.16%	540	83.84%	2,801
중학교 1학년	23.70%	738	76.30%	2,376
중학교 2학년	26.22%	644	73.78%	1,812
중학교 3학년	28.76%	600	71.24%	1,486
고등학교 1학년	27.59%	693	72.41%	1,819
고등학교 2학년	24.81%	511	75.19%	1,549
고등학교 3학년	35.06%	412	64.94%	763
전체	23.50%	4,470	76.50%	14,551



〈그림 30〉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학년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응답에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나 사립학교에서 간접체벌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이가 크지 않고 국·공립학교의 간접체벌 경험 비율도 1/4 수준에 달해 교사-학생 간의 인권기반적 관계 맺기 및 지도 방법에 대한 개발과 연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의지에 대한 장려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41〉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국·공립	25.74%	878	74.26%	2,533
사립	29.27%	685	70.73%	1,655
전체	27.18%	1,563	72.82%	4,188

〈표 42〉 교사로부터의 간접체벌 경험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국·공립	25.21%	540	74.79%	1,602
사립	31.43%	952	68.57%	2,077
전체	28.85%	1,492	71.15%	3,679

3) 언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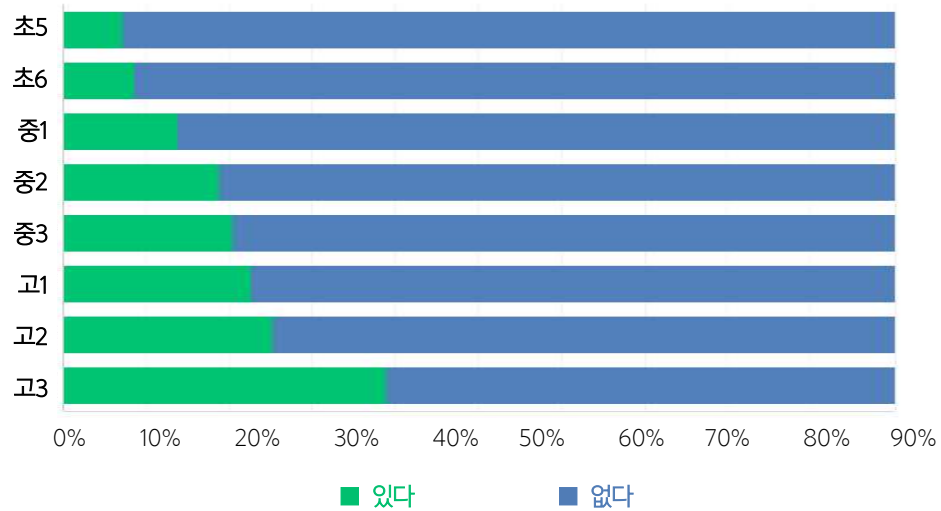
〈표 43〉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17.52%	82.48%	
	3,609	16,993	20,602	2,339명

교사로부터 모욕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7.52%로 나타났다.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은 단순히 거친 표현이라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인격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역시 체벌과 같은 양상을 보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2019~2020년에 교사로부터 언

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가 1/3 수준에 달했다.



[그림 31]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학년별)

학교급·성별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기타] 집단의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생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 태도가 모욕과 욕설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초등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7.85%	186	92.15%	2,182
여성	8.17%	264	91.83%	2,968
기타	22.22%	4	77.78%	14

<표 45>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중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17.97%	523	82.03%	2,388
여성	16.72%	785	83.28%	3,909
기타	31.37%	16	68.63%	35

〈표 46〉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성별 비교(고등학교)

	있다		없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남성	26.57%	694	73.43%	1,918
여성	27.05%	832	72.95%	2,244
기타	37.29%	22	62.71%	37

4) 반인권적 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권적인 이유를 들어 학생의 지도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내용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학생들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전면적으로 폐지된 상벌점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아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3.79%에 달했다. 또한 벌청소 등 노동으로 잘못을 대신 상쇄하는 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7.6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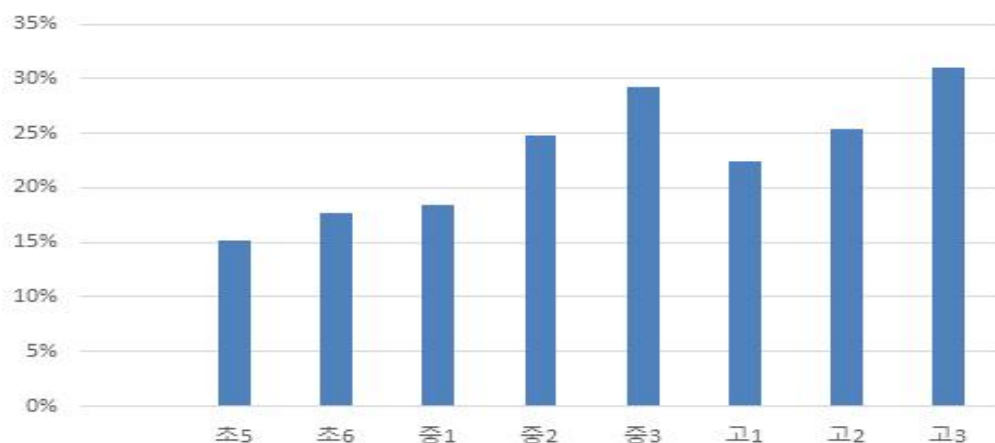
〈표 47〉 반인권적 별의 경험

내용	응답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요구	21.82%	4,496
박지(작은 글자를 박박하게 써서 종이를 가득 채우는 일)나 명심보감 등 특정한 글을 따라 쓰기	16.48%	3,395
벌점이나 마일리지, 횡수를 세는 경고, 스티커 제도, 점수제도	23.79%	4,902
학교행사나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예: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5.24%	1,080
벌청소 등의 노동	37.65%	7,756
해당없음	39.72%	8,184
	응답 수	20,602
	무응답 수	2,339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관련되어 수 차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6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만든 '학교규칙 개선안'을 통해 "서약서, 각서, 사과문 등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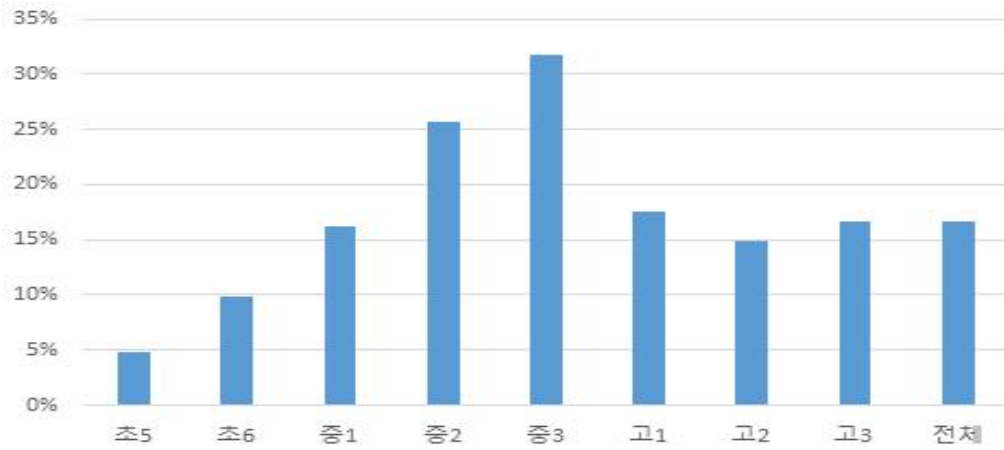
면의 양심을 강요하여 서식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각종 서약서를 폐지한 바 있다(이영주, 2019.3.31.).

그러나 2019~2020년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21.82%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험이 포함되므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 역시 초등학교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서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입시와 관련되어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이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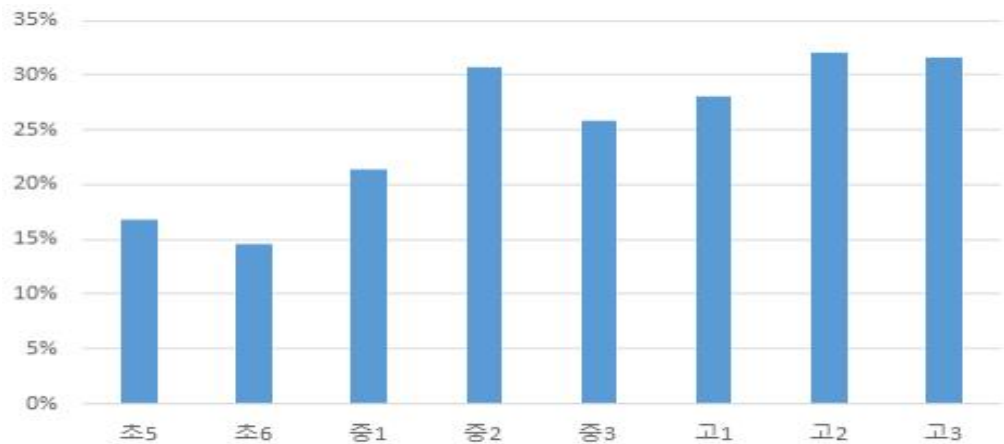


[그림 32]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은 경험(학년별)

박지 등 특정한 글을 반복해서 쓰게 하는 벌의 경험은 중학교 2, 3학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일리지나 별점제 등 점수화하는 형태로 학생을 규제하는 벌은 전 학교급에서 응답이 나타났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1/4 수준의 응답이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년 2학기부터 상·별점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생활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점수화된 벌이 없는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성호, 2017.7.10.).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응답은 점수화된 벌이 지도의 방법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다른 방식의 벌은 초등학교에서는 적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점수제 벌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도 15% 안팎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이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33] 빠지 등 특정한 글을 반복해 쓰게 하는 벌의 경험(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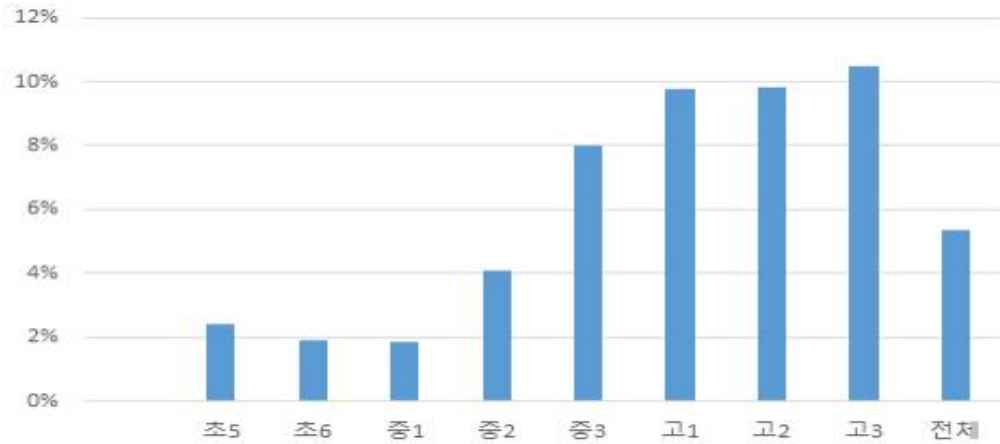


[그림 34] 벌점제 등의 점수제 벌의 경험(학년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3월,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김향미, 2012.2.29.). 잘못이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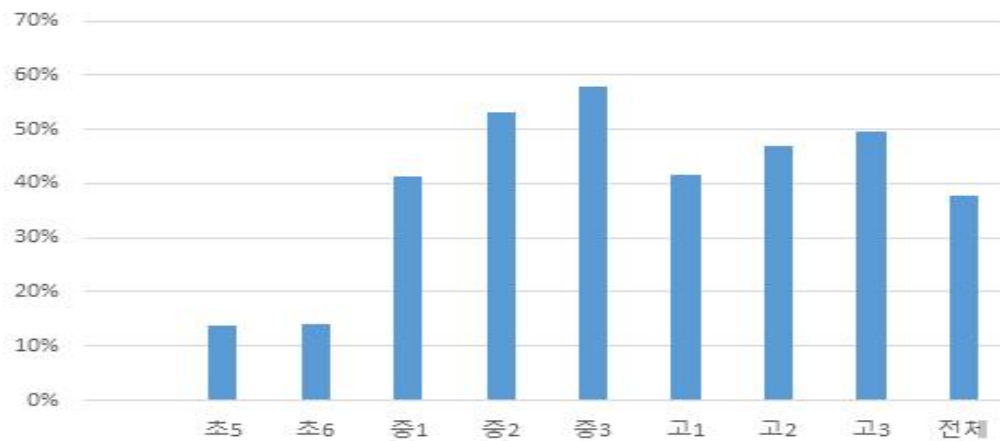
그러나 응답자의 5.24%가 출마 제한 또는 동아리활동 제한 등을 잘못에 대한 벌로 받은 경험이 2019~2020년에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반인권적 벌과 관련된 응답에서처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삶 중에서 사회참여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참여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 유권자가 등장한 상황에서 출마 제한이나 학생 자치 활동의 제한을 지도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35] 출마 제한 등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 별의 경험(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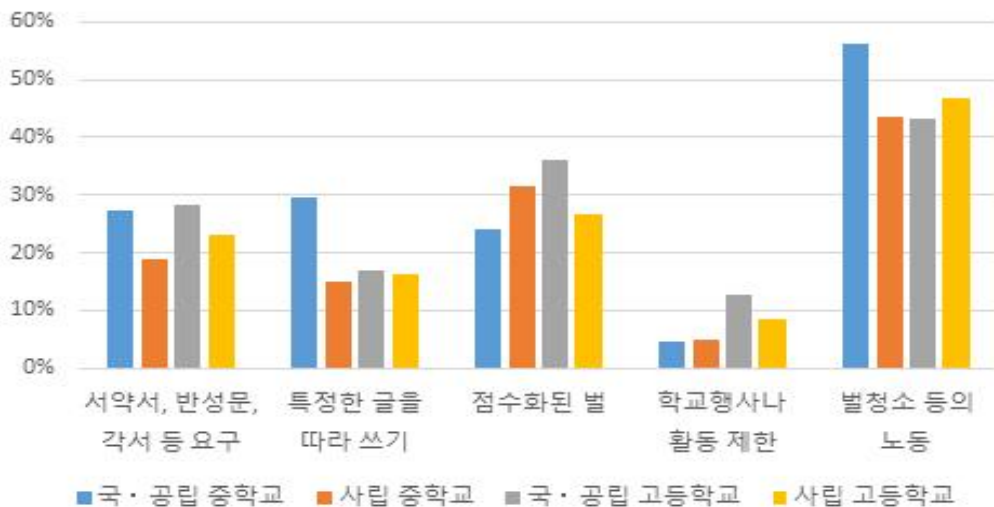
별청소 등 노동을 강제하는 별의 경험은 중·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이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2018년 교육감 발의로 도의회에 제출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에도 제5조(신체의 자유)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강제 노동을 별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인권의 관점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의 관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림 36] 노동을 강제하는 별의 경험(학년별)

반인권적 별의 경험을 설립유형별로 비교하였을 때,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에서 더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직접체벌, 간접체벌, 언어폭력 등은 사립학교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반인권적 인 별에서는 국·공립 학교에서 경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립학교는 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공립 학교는 보다 통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립학교보다 국·공립 학교가 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학생 지도에서 동원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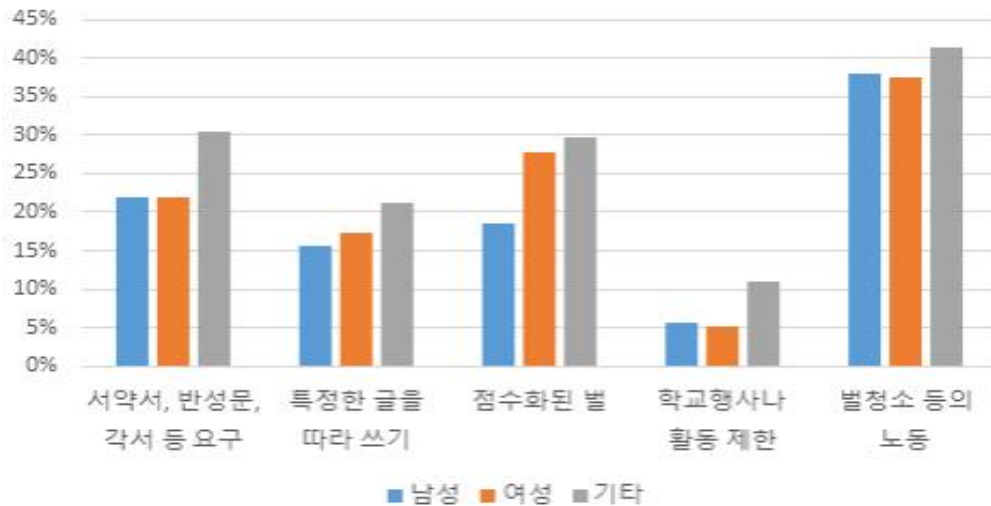


[그림 37] 반인권적 별의 경험(설립유형별)

동아리 활동 등의 학생 자치 활동의 제한이 별로 쓰이고 있는 점 역시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경기학생인권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서도 ‘①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로 밝히고 있으며 ‘②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별도 조항으로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별로 쓰일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행사나 활동에 대한 제한을 별로 경험한 사례가 중학교 및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징계처분자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은 차별이라는 결정례를 내놓은 적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10.07.).



[그림 38] 반인권적 별의 경험(성별)

<표 48> 반인권적 별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중학교)

	국·공립	사립	전체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요구	27.21%	18.85%	23.80%
	928	441	1,369
박지(작은 글자를 박박하게 써서 종이를 가득 채우는 일)나 명심보감 등 특정한 글을 따라 쓰기	29.55%	14.91%	23.60%
	1,008	349	1,357
벌점이나 마일리지, 횡수를 세는 경고, 스티커 제도, 점수제도	23.92%	31.50%	27.00%
	816	737	1,553
학교행사나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예: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4.57%	4.83%	4.68%
	156	113	269
벌청소 등의 노동	56.05%	43.46%	50.93%
	1,912	1,017	2,929
해당없음	24.92%	31.11%	27.44%
	850	728	1,578

〈표 49〉 반인권적 벌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전체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요구	28.38%	23.14%	25.31%
	608	701	1,309
박지(작은 글자를 박박하게 써서 종이를 가득 채우는 일)나 명심보감 등 특정한 글을 따라 쓰기	16.90%	16.41%	16.61%
	362	497	859
벌점이나 마일리지, 횡수를 세는 경고, 스티커 제도, 점수제도	35.99%	26.64%	30.52%
	771	807	1,578
학교행사나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예: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12.56%	8.65%	10.27%
	269	262	531
벌청소 등의 노동	43.18%	46.81%	45.31%
	925	1,418	2,343
해당없음	26.38%	30.17%	28.60%
	565	914	1,479

성별 집단으로 반인권적 벌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으나, 점수화된 벌에 있어서 여성 및 기타 성 집단에서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으로 복장 및 외모 등에 대한 학교규정이 성중립적이지 않고 특히 여성의 몸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2020년에는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인권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학교생활규정을 평가함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규정 적용의 부담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50〉 반인권적 별 경험에 대한 성별 비교

	남성	여성	기타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요구	21.97%	21.89%	30.47%
	1,734	2,408	39
빡지나 명심보감 등 특정한 글을 따라 쓰기	15.66%	17.42%	21.09%
	1,236	1,916	27
벌점이나 마일리지, 횡수를 세는 경고, 스티커 제도, 점수제도	18.64%	27.77%	29.69%
	1,471	3,055	38
학교행사나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5.68%	5.04%	10.94%
	448	554	14
벌청소 등의 노동	38.02%	37.55%	41.41%
	3,000	4,131	53
해당없음	40.27%	38.97%	34.38%
	3,178	4,287	44

5) 차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 인식은 높지 나타난 반면, 차별 경험 비율은 16.78%로 나타났다. 차별 사유 중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출신 학교나 성적으로 인한 차별(5.89%), 외모나 생김새로 인한 차별(5.70%), 학년이나 나이로 인한 차별(5.90%), 성별로 인한 차별(4.89%) 등이다.

〈표 51〉 학교내 차별 경험

내용	응답	
출신학교나 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5.89%	1,213
외모나 생김새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5.70%	1,174
가정환경이나 가족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1.50%	310
학년이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5.90%	1,216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4.89%	1,007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외국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0.92%	189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0.60%	123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2.06%	424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2.21%	456
해당없음	83.22%	17,146
	응답 수	20,602
	무응답 수	2,339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학벌·학력·성적으로 인한 차별 반대, 성평등한 문화 조성, 위계적이지 않은 평등 문화 구축 등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의 여러 제도들이 성별과 성적, 학년(나이)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별 경험 응답은 다른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편이다. 전북의 경우 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 응답은 2.6%,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응답은 5.5%, 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 응답은 10.9%. 외모 등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은 4.3%로 나타났다(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0). 경기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차별은 31.4%, 성별로 인한 차별은 28.8%,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28.5%,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24.1%의 어린이·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정연, 2019). 그러나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의 인권감수성이나 인권 인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의식 정도에 따라 실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는데,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용모 지도 경험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정연, 2019:138). 서울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인권교육과 인권 인식에 따라 공감과 소수자 차별에 대한 행동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김상원, 2020: 221). 즉, 차별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다른 지표들과의 비교 분석의 맥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권리 제한

가) 개성표현의 자유 제한

개성 표현의 자유는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갈등의 배경이 되어 왔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① 머리 길이나 색깔, 형태 변화(예: 펌 등)에 대한 제한, ② 계절에 따라 교복 착용 시기나 착용법을 학교가 정해서 제한, ③ 화장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용 관련 기기와 용품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제한, ④ 운동화, 양말, 면 티셔츠, 외투 등의 색상을 제한, ⑤ 악세서리, 배지(뱃지), 책 등의 소지품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⑥ 교복 위의 겹옷 착용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6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교내 외투 착용 금지 규

칙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10월, “교내 외투 착용 금지는 학생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하의 기온에서만 재킷 착용이 가능한 등 조건부로 허용하거나 외투를 입으면 별점을 매기는 규정이 있는 등 겉옷 착용과 관련한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김규희, 2020.12.14.). 경상남도 학생들 역시 41.75%들의 학생들이 머리 길이나 모양에 대한 제한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화장품 사용 및 소지에 대한 권리 제한이 38.31%, 교육 위의 겉옷 착용을 제한하는 경험을 한 경우도 33.38%에 달했다.

〈표 52〉 개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

내용	응답	
① 머리 길이나 색깔, 형태 변화(예: 펌 등)에 대한 제한	41.75%	8,601
② 계절에 따라 교복 착용 시기나 착용법을 학교가 정해서 제한	28.72%	5,916
③ 화장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용 관련 기기와 용품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제한	38.31%	7,892
④ 운동화, 양말, 면 티셔츠, 외투 등의 색상을 제한	19.50%	4,018
⑤ 악세서리, 배지(뱃지), 책 등의 소지품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29.96%	6,172
⑥ 교복 위의 겉옷 착용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33.38%	6,877
⑦ 해당없음	42.18%	8,690
	응답 수	20,602
	무응답 수	2,339

개성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은 학교 설립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연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규정 개정 지침에 따라 완화된 두발 제한에도 사립학교에서 머리 모양의 제한 경험 응답이 61.8%에 달했다. 그 외에도 개성 표현의 자유 관련 대부분의 문항에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2배 가까이 권리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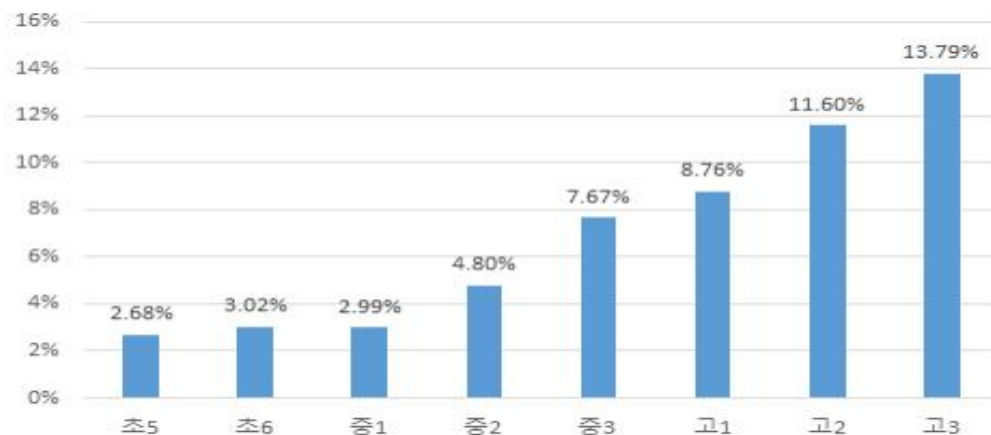
[그림 39] 표현의 자유 제한 경험에 대한 학교 설립유형별 비교

<표 53> 개성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험(설립유형별)

	국·공립	사립	계
머리 길이나 색깔, 형태 변화	37.37%	61.80%	46.84%
	3,330	3,485	6,815
계절에 따라 교복 착용 시기나 착용 방법 제한	25.09%	44.23%	32.51%
	2,236	2,494	4,730
화장품 사용 및 미용기기와 용품을 제한	36.23%	49.87%	41.52%
	3,229	2,812	6,041
운동화, 양말, 면 티셔츠, 외투 등의 색상을 제한	17.34%	31.03%	22.64%
	1,545	1,750	3,295
소지품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26.39%	44.71%	33.49%
	2,352	2,521	4,873
겉옷 착용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28.56%	50.95%	37.23%
	2,545	2,873	5,418
해당없음	46.40%	23.67%	37.59%
	4,135	1,335	5,470

소지품검사와 휴대전화사용은 학교 내 인권문제에서 강하게 대립되는 논쟁점 중 하나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7호에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가 행하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 단속, 소지품 검사 의 근거 조항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2020년 11월 3일 개정되어 삭제되었다. 오랜 기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조항이 삭제된 것은 학교 인권 증진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학생들은 사전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해 5.41%가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수치는 높지 않으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1.6%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13.79%가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등학교에서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권리 침해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급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이 다소 낮은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등교일이 적은 영향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0]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비율(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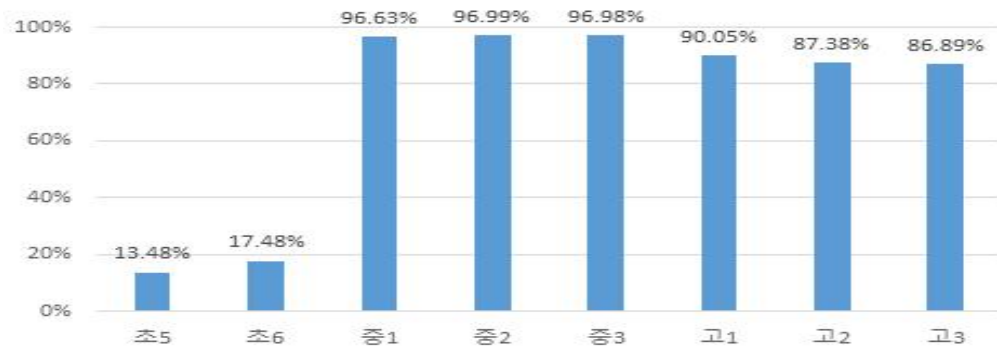
학교의 위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합천의 경우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응답이 0.51%로 매우 낮은 반면, 진주(9.3%), 밀양(9.59%), 양산(9.97%) 등은 높게 나타나 지역별 침해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권리 침해는 전체 참여자 중 70.3%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가장 폭넓게 경험하고 있는 권리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휴대전화 수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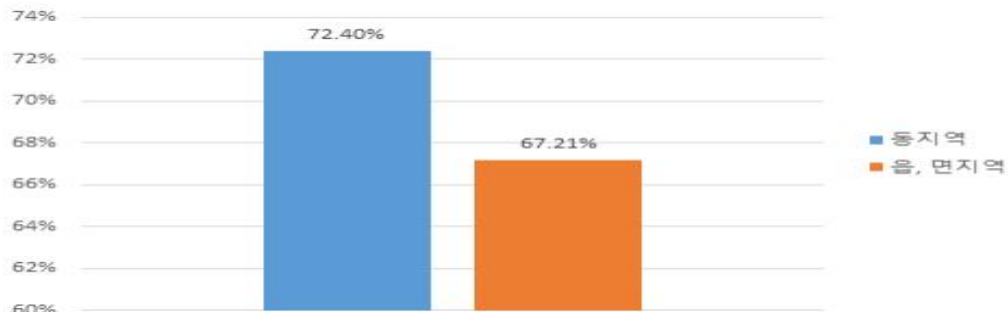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70.30%	29.70%		
	14,484	6,118	20,602	2,339

학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응답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응답 집단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나 이조차도 86.89%에 달해 휴대전화 수거가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림 41〕 휴대전화 수거 경험 비율(학년별)

휴대전화 수거 경험에 있어서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학생들 간의 응답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지역 학생의 72.4%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 지역 학생의 67.21%가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수거한다고 응답해 이 부분에 대해 동지역의 권리 침해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림 42〕 휴대전화 수거 경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보다 휴대전화 수거를 통한 권리 침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경험은 63.96%로 나타났으나 사립학교에서는 89.57%에 달했다. 이는 도교육청 교육경영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권고와 배치되는 실태다. 학교 내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사립학교의 권고 수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표 55〉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학교 설립유형별 비교

	그렇다		아니다	
	비율	인원	비율	인원
국공립	63.96%	5,700	36.04%	3,212
사립	89.57%	5,051	10.43%	588
계		10,751		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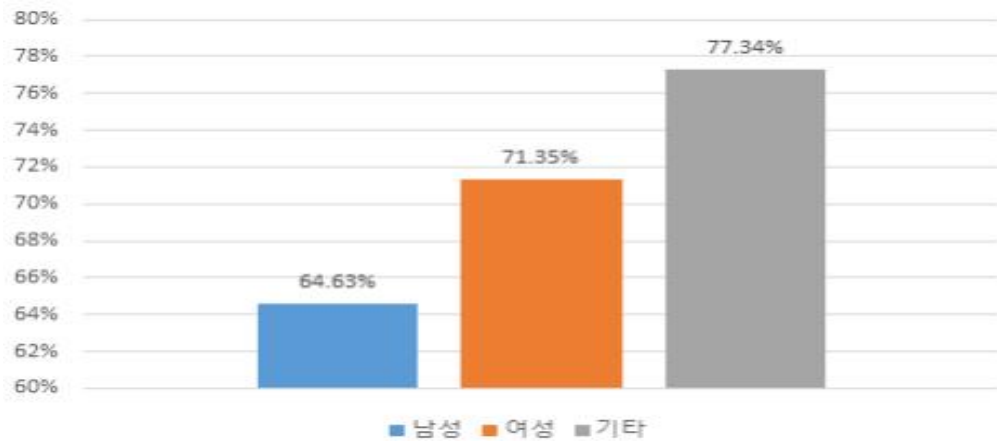
7) 위계적 통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배경내(2003)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인권 실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문장이기도 하다. 교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두발과 복장 단속, 즉 교문지도는 2006년 발의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그 실시 여부가 학교 인권 실태를 드러내는 단적인 지표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2010년부터 교문 지도를 금지했다. 경남지역에서도 2018년 <경남청소년행동>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교문 지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남청소년행동>은 "교문 지도와 소지품 검사는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 안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중에 하나"이며 "소지품 검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학교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윤성효, 2018.4.25.). 이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 등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경상남도 학생의 68.5%가 등교시 교문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표 56〉 등교시 교문 지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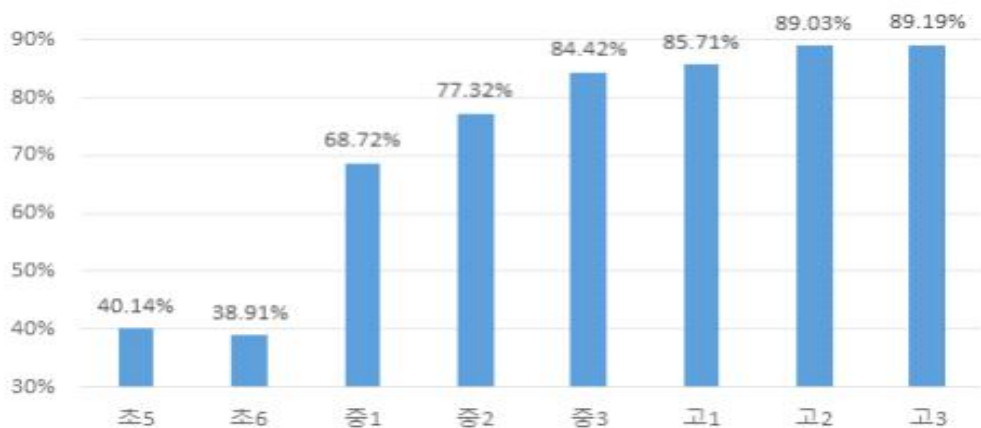
	경험		응답 수	무응답 수
	그렇다	아니다		
응답	68.50%	31.50%	20,602	2,339
	14,112	6,490		

교문지도 경험을 묻는 응답에 성별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 학생의 64.63%가 등교시 교문 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학생의 71.35% 그리고 기타 성 학생의 77.34%가 응답하여 교문지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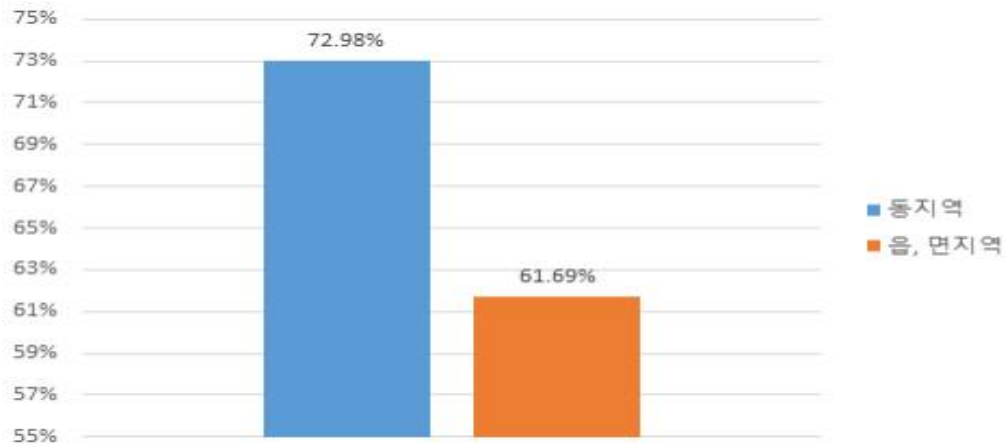
[그림 43]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성별)

학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교문지도는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89%가 넘는 응답률을 보여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문지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림 44]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학년별)

동/읍, 면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동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72.98%가 등교시 교문지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읍, 면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61.69%가 등교시 교문지도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동지역 소재 학교가 읍, 면지역 소재 학교보다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문지도가 위계적 문화를 조성하여 다수의 학생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5]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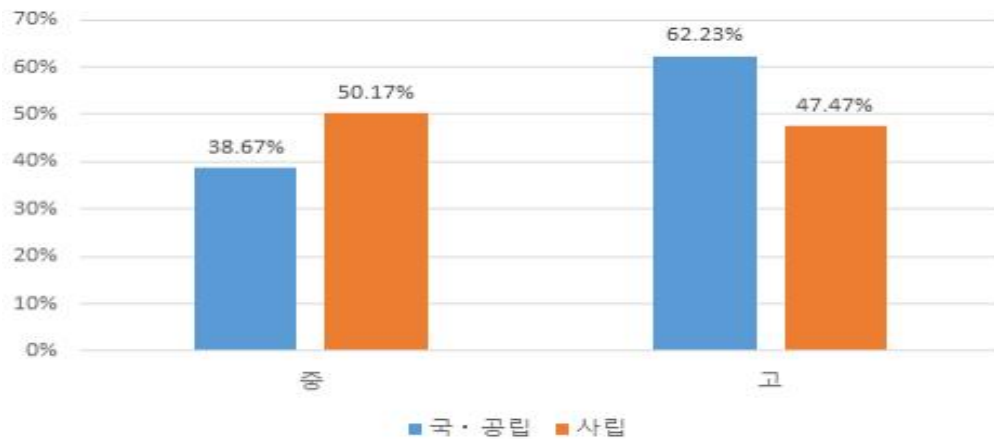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등교시 교문지도 경험과 더불어 교문지도 및 학생지도를 학생이 행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35%가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고학년이 '선도'라는 명찰을 차고 교문 앞을 지키며 복장 단속 및 지각 등을 적발하는 모습을 일부학교에서 최근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회 임원 또는 특정 동아리 회원 등에게 그 역할이 옮겨져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표 57>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 경험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35.35%	64.65%		
	7,283	13,319	20,602	2,339

설립유형별로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중학교의 경우 사립 중학교 학생의 50.17%, 국·공립 중학교 학생의 38.67%가 학생에 의한 학생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고등학교 학생의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 62.23%가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 고등학교 학생의 47.47%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공립 중학교 학생 응답(38.67%)나 사립 고등학교 학생 응답(47.47%)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중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6]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 경험에 대한 설립유형별 비교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문주현, 2017.7.19.). 이 권고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학생에게 권한 밖의 그리고 알맞지 않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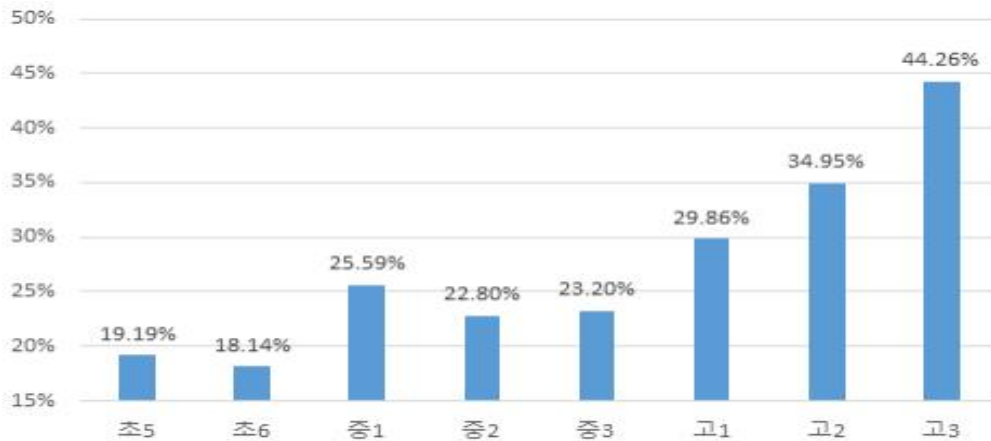
학생간 소통이 스스로의 권리 제한과 통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연대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교문 지도와 같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는 학생간에 위계적 문화를 조성하고 권리의식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학생사회의 연대와 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8) 방과후학교 강요

학기 중 및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06%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표 58> 방과후학교 강요에 대한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응답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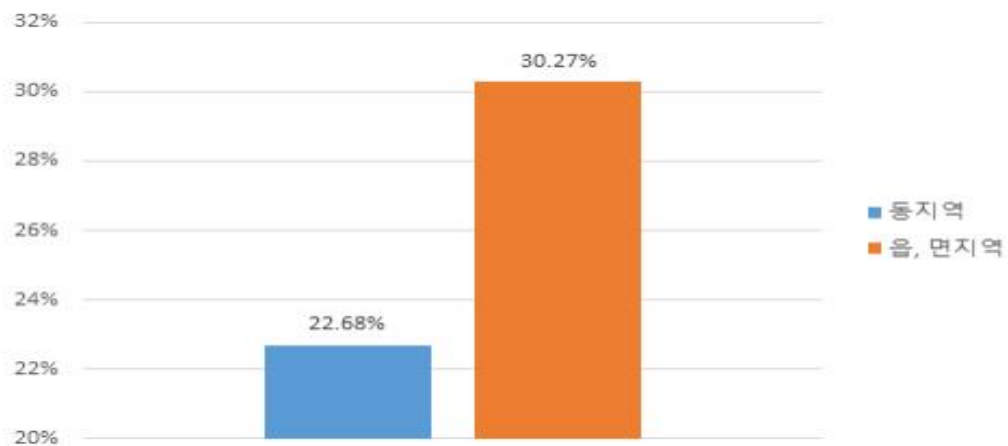


[그림 47]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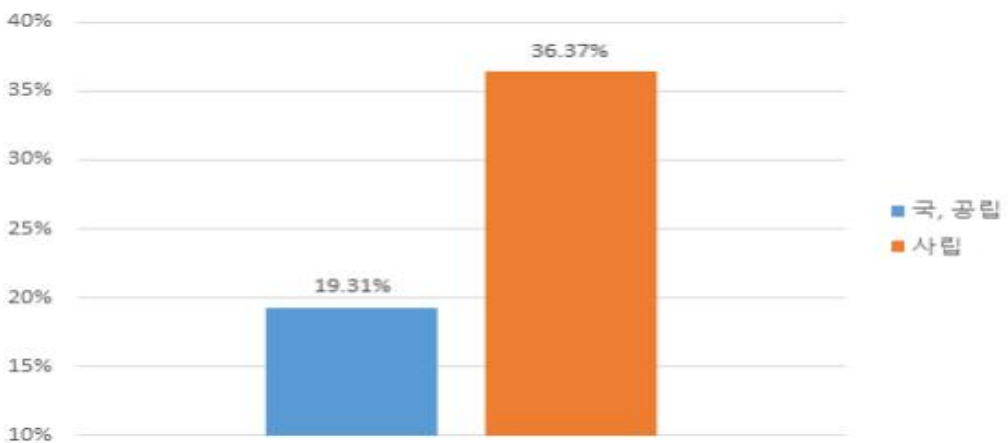
방과후학교 등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경쟁적인 한국 교육 문화에서 중요한 학생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획일적 보충수업(방과후 수업),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방과후 수업 일수가 방학일수(휴일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상당수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실현되지 않고 있다(주찬우, 2017.7.14.). 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44.26%)에게

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성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학년 및 학급별 응답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동지역(22.68%)보다는 읍, 면지역 학교(30.27%)에서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국·공립 학교(19.31%)보다는 사립 학교(36.37%)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강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학교의 동/읍, 면별)



[그림 49]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설립유형별)

학교의 위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방과후학교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김해와 거제는 각각 82.79%와 80.58%로 나타난 반면, 합천의 경우 49.24%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문화.00의 차이가 영향을 주고 있고 주변 학교간의 경쟁 또는 비슷하게 맞추려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9) 정보권 침해

정보권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갈수록 크게 강조되는 인권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는 낮은 인권 감수성과 관행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보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의 정보권 침해와 관련하여 교복 및 활동복에 이름표가 있는지, 그리고 고정형인지를 질문하였다. 고정형 이름표는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 사안 조사를 통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정형 이름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09.11.23.).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고정형 이름표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34.48%에 달한다는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표 59〉 교복 및 활동복의 이름표 방식

내용	응답	
학교에서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34.48%	7,104
떼거나 가릴 수 있는 이름표이다	25.14%	5,180
목걸이형 이름표를 사용한다	3.53%	728
이름표가 옷에 고정되어 있다	36.84%	7,590
	응답 수	20,602
	무응답 수	2,339

〈표 61〉은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성적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교에서 동의없이 공개된 적이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참여자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이러한 민감정보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에 따라 특히 더 보호되어야 정보이며,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권에 속한다. 특히 학교와 같이 많은 인구가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 행위인 동시에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에 취약점을 발생시키는 인권의 저해요인이다.

〈표 60〉 민감 개인정보의 공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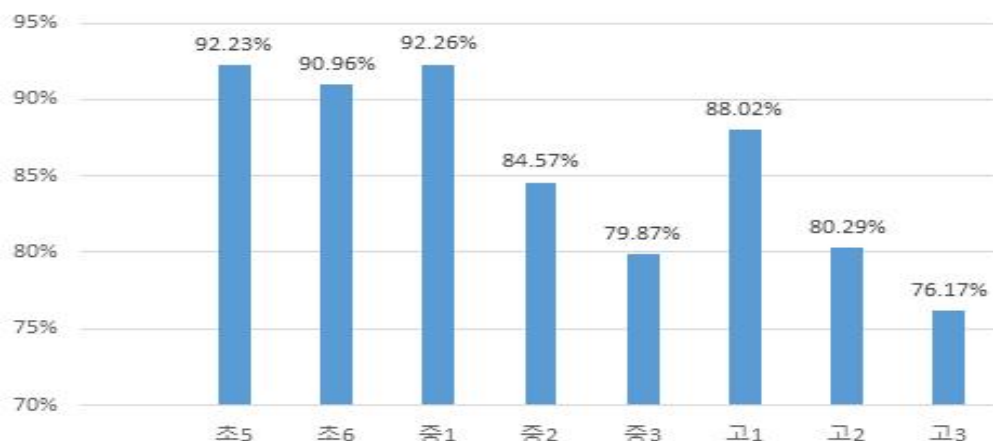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12.61%	87.39%		
	2,450	16,974	19,424	3,517

학교 시설 내·외부 및 홈페이지에 동의 없는 사진 게재의 경우도 정보권의 침해라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13.2%가 동의없이 자신이 사진이 학교 시설 및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표 61〉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동의 없는 사진 게재 경험

	있다	없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13.20%	86.80%		
	2563	16861	19424	3517

사진 게재로 인한 정보권 침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92.23%,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90.96%로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84.57%)과 고등학교 1학년(88.02%) 등 신입생들이 사진 게재로 인한 정보권 침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0〉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동의 없는 사진 게재 경험(학년별)

사진과 영상 등은 정보의 관리 절차가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가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 합성 및 유포 등의 인권침해 리스크가 높다. 또한 신입생에게 정보권 침해

해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이 될 때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이 보다 인권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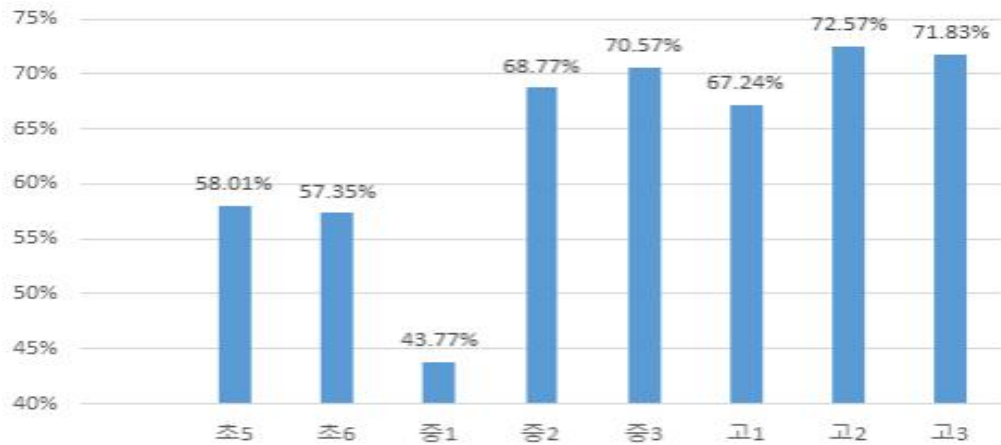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그 결과를 안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질문하였다. 학교에서 평가와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며 학생들에게 피드백으로 제공될 때 그 본연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 특히 과정중심평가와 교수-수업-평가 일체화를 지향하는 2015 교육과정에서 시험과 평가,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안내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더불어 그 내용들은 학생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당사자에게 안내되는 것 자체가 학생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의 52.44%만이 결과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끔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4.95%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시험, 평가 및 검사에 대해 학생들에게 결과 안내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62〉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 안내 여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응답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58.01%, 6학년 학생의 57.3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이 67.24%로 나타났다. 즉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 안내에 대하여서는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또다른 점은 중학교 1학년의 ‘매우 그렇다’ 응답이 43.77%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68.77%, 70.57%로 비슷한 수준인데 1학년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체제가 바뀌면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만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과 원격 수업에서 시험, 평가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안내에 대한 방법과 질 제고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1]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학년별)

시험과 평가 그리고 검사의 결과가 안내될 때 정보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즉 본인만 확인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질문하였다.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2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11.14%는 ‘그렇다 않다’, 18.82%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정보권의 보장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또한 22.42%는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시험과 평가, 검사의 결과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권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민감성이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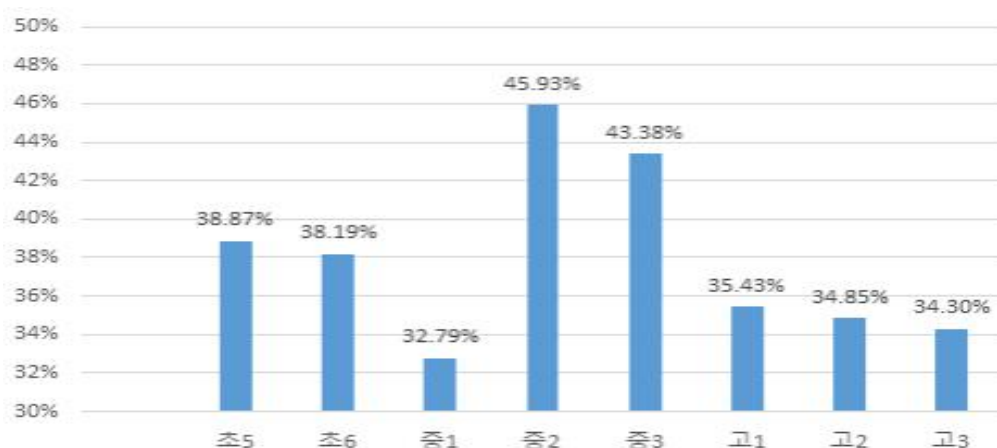
<표 63>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응답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학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학교 2, 3학년은 시험 등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한다는 응답이 각각 45.93%와 43.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1학년은 32.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이 가장 낮은 것은 시험 등의 결과 안내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응답이 가장 낮았던 것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해석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체제가 바뀌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안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정보권이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것이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험 등의 결과 안내가 본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학교급에서 정보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림 52]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하는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매우 그렇다' 비율)

나. 인권침해 대응 역량

1) 인권 옹호 기관 인식

인권 침해 실태와 함께 경상남도 학생들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및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경상남도 학생들은 <표 65>와 같이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이 가족 등 보호자(64.26%)였고 그 다음이 학교의 교사(61.52%)였다. 학교내 인권옹호 및 갈등 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위클래스와 위센터의 경우 각각 45.45%와 14.95%의 응답이 나타났다. 제도적 해결노력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연대와 협력 또는 정서적 지지 등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와 선후배 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응답도 36.0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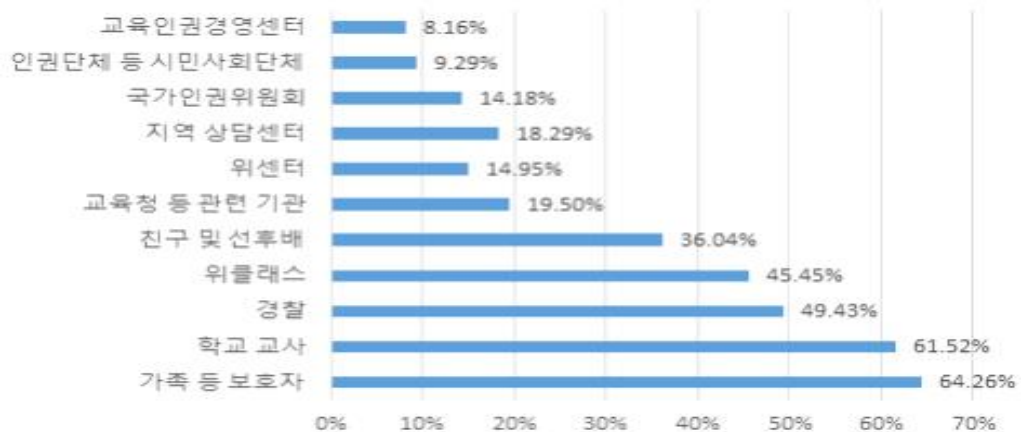
다만 어느 기관도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신뢰를 어느 기관이 학생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은 학생

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낮은 응답을 얻게 되었다고 해석될 부분도 있지만 종합해볼 때, 모든 기관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를 더 높일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한편, 올해 운영을 시작한 교육인권경영센터에 대하여서도 8.16%의 참여자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응답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등의 상황에서도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표 64〉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복수응답)

인권 옹호 기관	응답	
가족 등 보호자	64.26%	14743
학교 교사	61.52%	14113
경찰	49.43%	11340
위클래스	45.45%	10427
친구 및 선후배	36.04%	8269
교육청 등 관련 기관	19.50%	4474
위센터	14.95%	3430
지역 상담센터	18.29%	4197
국가인권위원회	14.18%	3253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9.29%	2132
교육인권경영센터	8.16%	1871



[그림 53] 인권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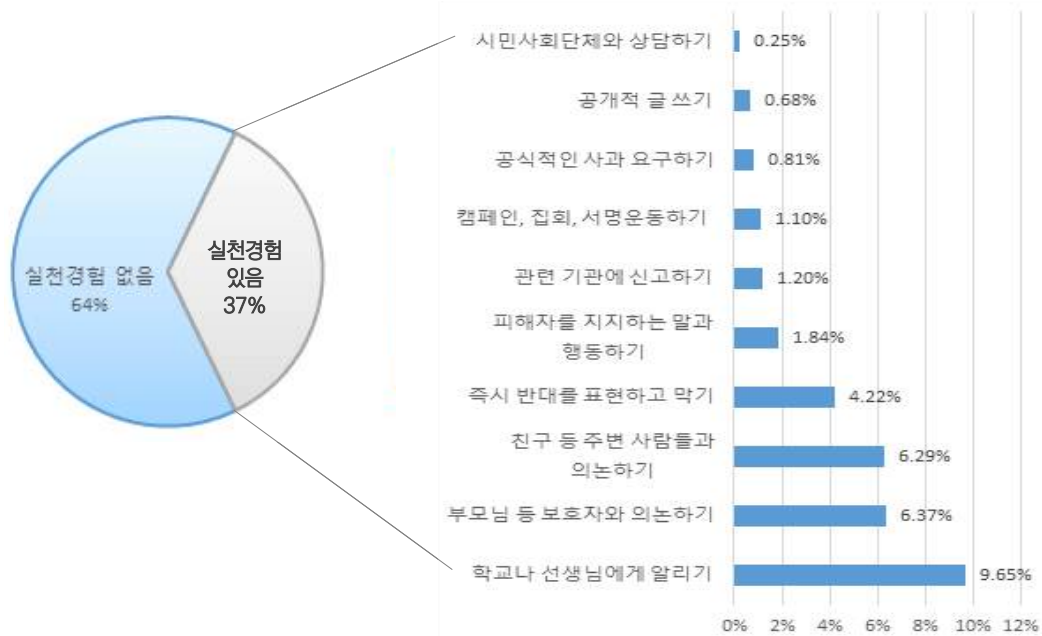
2) 인권 옹호 실천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거나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1%가 직접 인권 옹호 행동을 실천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이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로 9.65%로 나타났고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가 각각 6.37%, 6.29%로 나타나 인권 침해 상황을 마주했을 때 22.31%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인권 옹호 행위를 실천했다는 응답도 나타났는데 해당 상황에서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를 선택한 응답이 4.22%로 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방어자의 역할을 소수의 학생들이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1.84%),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 등 정치적으로 학생 자치적인 실천 행동을 한다는 응답도(1.1%) 나타났다.

〈표 65〉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항하여 실제로 한 실천

인권 옹호 실천 내용	응답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2213	9.65%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1461	6.37%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1444	6.29%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969	4.22%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421	1.84%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276	1.2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252	1.1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185	0.81%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156	0.68%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58	0.25%
계	7,435	32.41%



[그림 54]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실천한 경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0.81%),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알리고(0.68%), 시민 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0.25%)도 적지만 응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 옹호 행동은 학생들이 실제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들이라는 점에서 장려되고 촉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 옹호 행동들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방어자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인권 보장 및 증진

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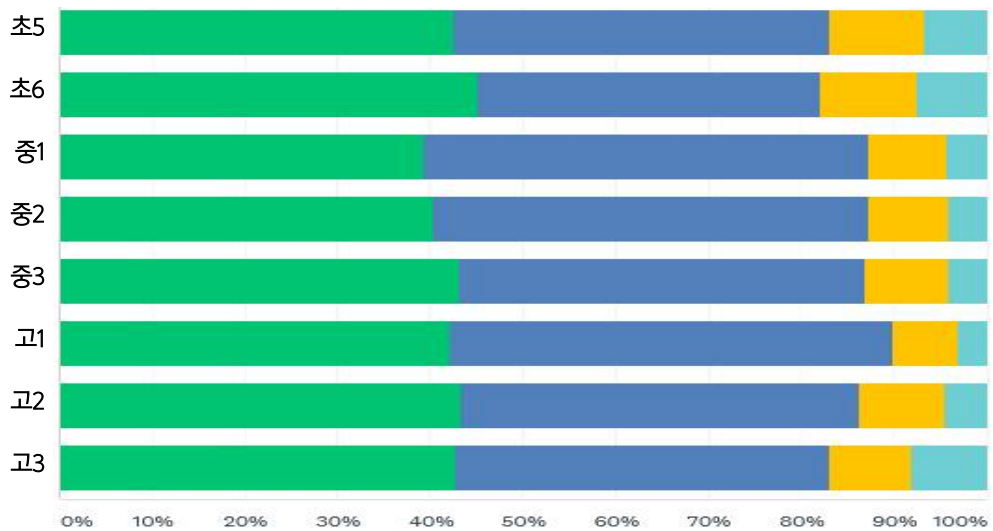
〈표 66〉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중 평균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우리 학교는 학생회 선거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42.36%	8,228	43.46%	8,441	9.02%	1,752	5.16%	1,003	4.09
우리 학교는 축제 등의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30.38%	5,901	45.48%	8,834	15.69%	3,048	8.45%	1,641	3.74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받아들인다	33.64%	6,534	44.00%	8,546	14.47%	2,810	7.90%	1,534	3.81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34.89%	6,778	44.20%	8,585	14.69%	2,854	6.21%	1,207	3.87
학교에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27.51%	5,344	38.24%	7,428	20.26%	3,936	13.98%	2,716	3.45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수업 시간 중에 보장되어 있다	32.20%	6,255	43.13%	8,378	16.65%	3,234	8.02%	1,557	3.75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 있다 (예: 학생용 회의실)	25.27%	4,909	35.44%	6,883	22.25%	4,321	17.05%	3,311	3.3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예: 동아리, 학생자치활동)	45.56%	8,850	42.62%	8,278	8.61%	1,673	3.21%	623	4.19
	응답 수							19,424	
	무응답 수							3,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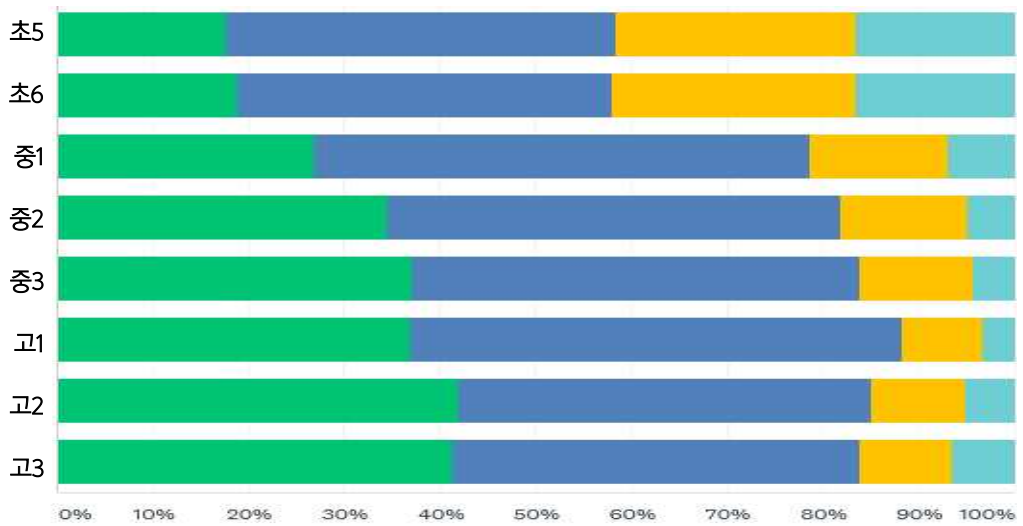


[그림 55]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야별 학생 참여 실태

학생들의 학교 참여 실태는 학생회 선거,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생들만의 영역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서의 의견 개진,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보장, 학교 규정 제·개정 등 학교 내 다른 집단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참여 수준도 학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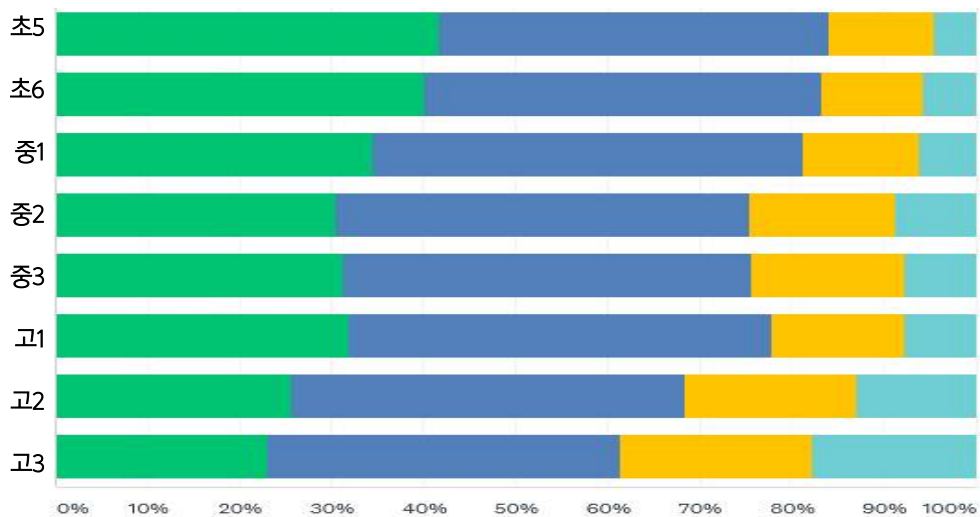


[그림 56]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회 선거에 대한 학년별 응답



[그림 57]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축제 등 학교 행사에 대한 학년별 응답

학생의 참여 수준에 대해 학년별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다.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행사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학교내 학생자치권한이 더 커지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같은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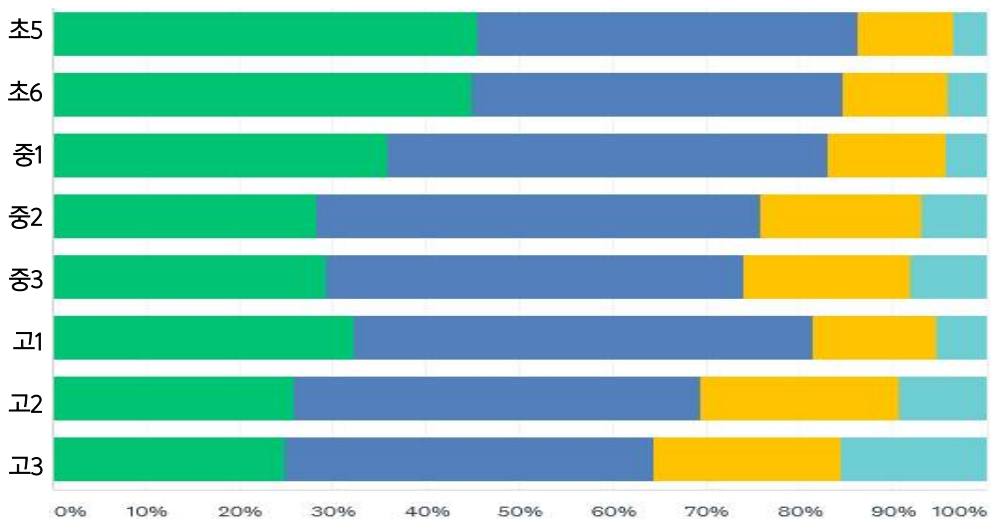
[그림 58]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대한 학년별 응답

그러나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에 있어서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다. 특히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 부분과 학교 홈페이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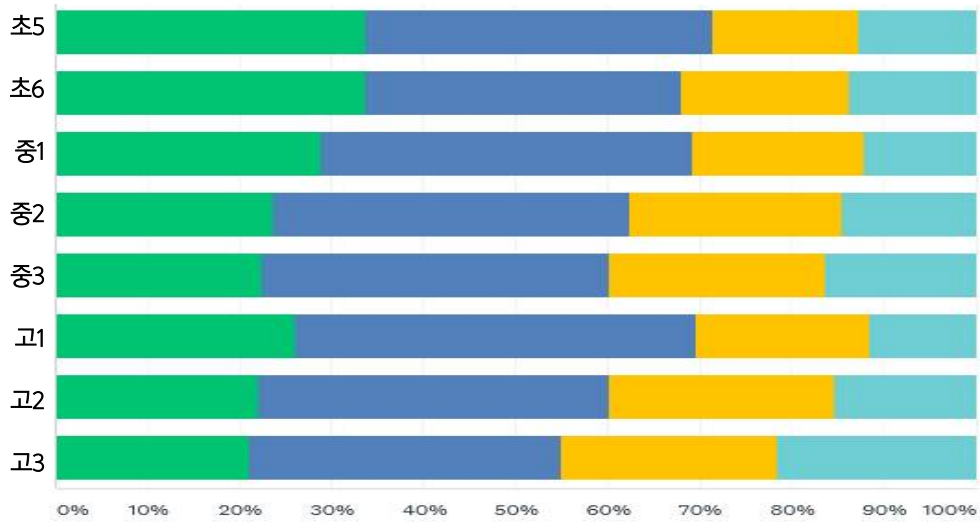
게시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재학기간이 늘어날수록 낮아졌다.

학교생활규정의 영향력은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크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교복 착용 등으로 생활규정 적용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만큼,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학교규정에 반인권·비인권적 요소가 없는지, 잘못된 지침이나 규정으로 인해 인권이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권리 제한인지 등을 이해 당사자 및 관련자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공개되는 것,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 나아가 참여의 보장과 관련된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의사 반영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접근성은 갈수록 더 강조되는 권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9] 학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



[그림 60] 학교의 설문조사 결과가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지에 대한 학년별 응답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 영역 확대, 알 권리 보장 등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자 대등한 당사자로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개념이 학교라는 공동체에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김상원, 2020).

나. 인권 증진

1) 생리공결 인정

<표 67> 생리 공결 인정 여부

내용	응답 (A)		응답 (B)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매우 잘 인정한다	18.79%	3,650	68.03%	3,650
가능하지만 공결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5.33%	1,035	19.29%	1,035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50%	680	12.67%	680
모르겠다	72.38%	14,059		
	응답 수	19,424		
	무응답 수	3,517		

〈표 68〉 생리 공결 인정 여부에 대한 여성 학생의 응답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여성	513	779	2547	7163	0	11002
	4.66%	7.08%	23.15%	65.11%	0.00%	100.00%

〈표 68〉의 응답(A)는 전체 응답에서 백분율을 구한 것이고 응답(B)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의 백분율을 구해 나타낸 것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68.03%의 응답자가 생리 공결이 매우 잘 인정된다고 답해 제도가 긍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결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받기 어렵다는 응답도 31.96%에 달해 제도의 확산과 교육 현장 특히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생리 공결 인정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72.38%에 달하는 것은 생리를 하는 학생들조차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 학생의 응답만을 따로 살펴봐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65.11%에 달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잘 활용하고 있으나 제도를 모르는 학생들은 접근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는 인권 증진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61〉 생리 공결 인정 여부에 대한 학년별 응답

한편, 생리 공결 인정에 대한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37.70%로 '매우 잘 인정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학년 전체에서 13.50%~25.00%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더 낮게 나타났다. 생리로 인한 어려움은 초경연령대인 초등학교에서 더 크게 경험될 수 있다. 전체 학교급에서 생리 공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강화됨과 동시에 초경연령대인 초등학교에서 생리 공결 제도에 대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재생산권은 전 생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에서도, 초등학교 및 전체 학교급에서 보장이 요구된다.

2) 급식 대체 식단 제공

급식의 대체 식단 역시 종교와 신념의 자유와 관련되며, 건강과 생명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채식 식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채식 급식 확산을 현안 과제로 선정했다(윤성호, 2020.9.8.). 정책의 일관성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식단과 채식 식단의 확대가 요구된다.

〈표 69〉 급식에서 대체 식단 제공 여부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25.14%	15.52%	15.76%	43.57%		
	4,884	3,015	3,061	8,464	19,424	3,517



[그림 62] 급식에서 대체 식단 제공에 대한 학년별 응답

대체 식단의 제공은 채식 등의 지향의 보장보다 알러지 등에 대한 건강권·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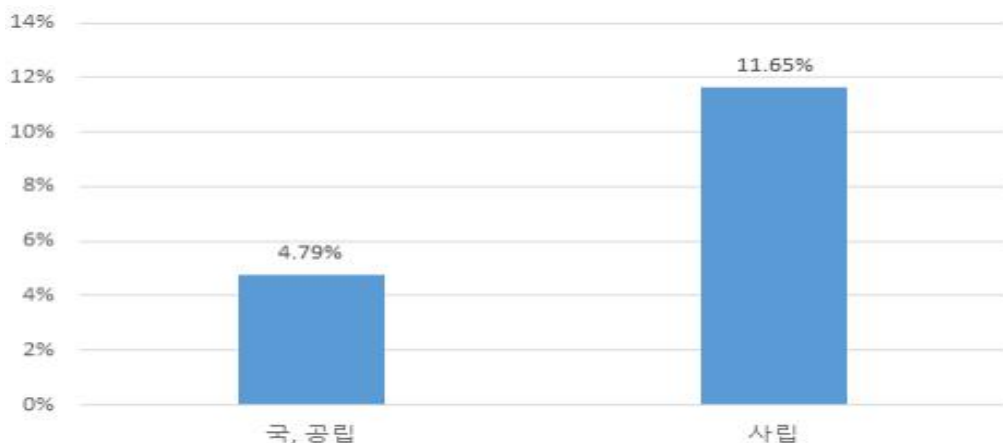
권의 보장을 위해 먼저 도입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30%대, 중·고등학교에서는 20% 초반대의 응답만이 대체 식단이 잘 제공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이다. 특히 학생의 선택권은 원치 않는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다. 그리고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종교 대체 프로그램은 종교 재단 사립학교만의 문제로 학생 전체의 인권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와 신념, 양심의 자유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삶 전반과 관련되는 권리이며 다니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교육 현실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보완조치라 할 수 있다.

〈표 70〉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여부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응답 수	무응답 수
응답	6.12%	8.79%	7.16%	77.93%		
	1,189	1,707	1,390	15,138	19,424	3,517



〔그림 63〕 종교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설립유형별)

종교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학교의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학교 학생은 4.79%가 사립학교 학생은 11.65%가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이 더 많이 실시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해석될 수 있다. 종교 등은 양심과 신념에 대한 자유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공동체 전체의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 학교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종교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초·중등 교육법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지는 학교마다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나, 다른 교육활동과 종교 활동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종교 활동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양심과 신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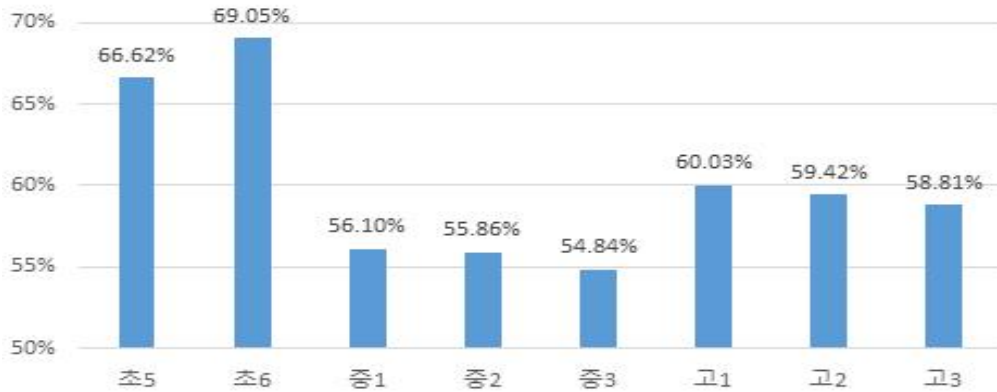
다. 학교 시설 이용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질문하였다. 먼저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1.27%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3.71%로 나타났다.

〈표 71〉 보건실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응답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학년 및 학교급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가장 낮은 학교급이 중학교로 나타났다. 학교의 설립유형별로 비교하면 국·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3.76%, 사립학교에서는 57.81%로 나타나 사립학교에서 보건실의 자유로운 이용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4] 보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학년별)

학교생활에서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학생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설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1.94%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경상남도 학생들이 학교 내 학생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학생 편의시설의 사용 편의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0.1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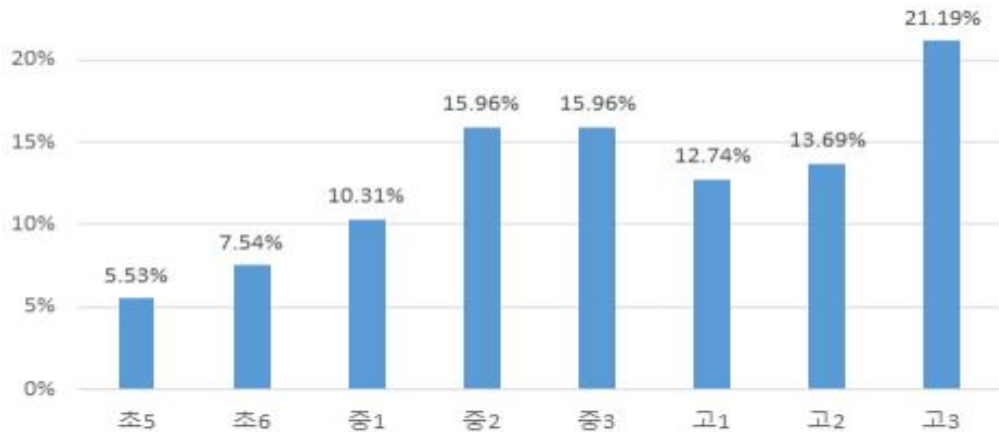
<표 72> 학생 편의시설의 사용 편의성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1.19%).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보다 훨씬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놀이시설 및 휴식시설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응답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학교급 안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경쟁교육이 강화될수록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 편의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거나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즉 시설의 있더라도 다양한 배경 원인들 때문에 학생들이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공간혁신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학교공간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5] 학생 편의시설의 사용 편의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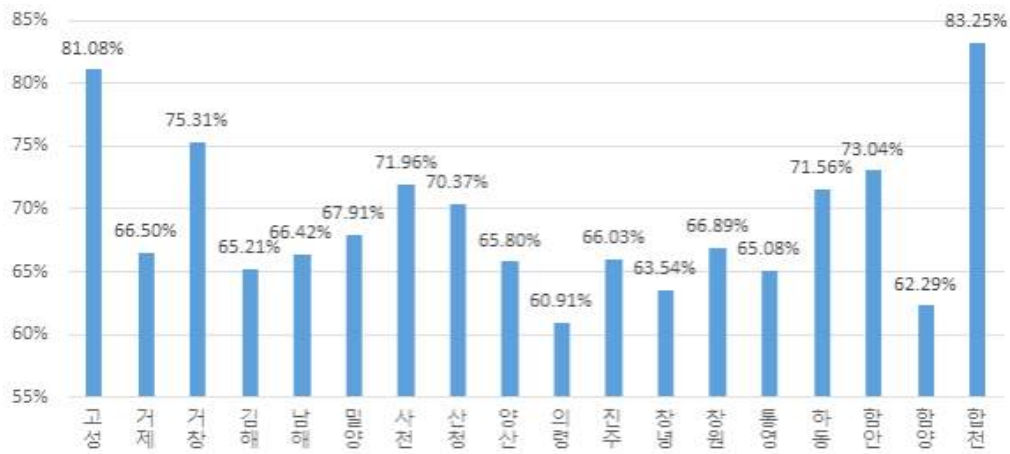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냉·난방 시설이 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8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조금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62%와 1.73%로 나타나 소수의 학교에서는 냉·난방 시설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이 78.32%라면 다른 문항의 경우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이나, 냉·난방 시설 이용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3>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응답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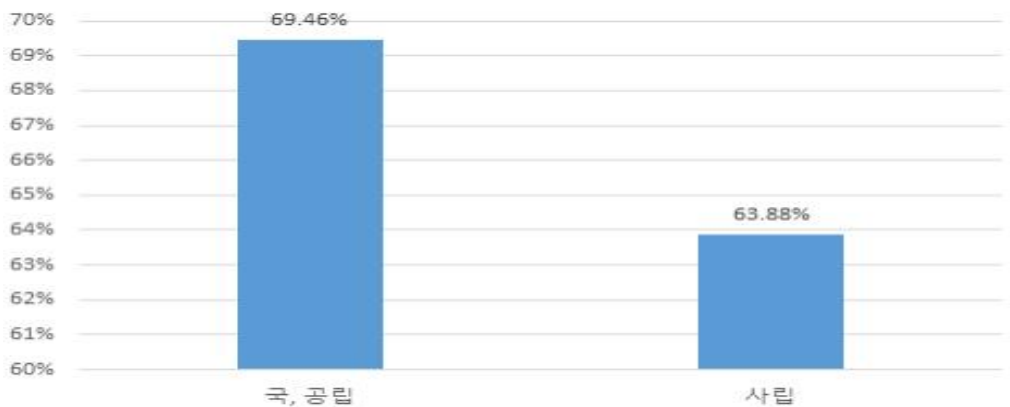
또한 지역별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0.91%에서 83.05%까지 격차를 나타냈다. 거듭 강조하지만, 냉·난방 시설의 이용은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의령, 창녕, 함양 등에서는 특히 낮게 나타나 변화가 요구되었다.

냉·난방 사용은 전기요금 등 예산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인근 권역별로 예산사용에 대한 문화적·제도적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인 바, 특별히 학생들의 응답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침의 변화 및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더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66]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지역별)

설립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9.46%, 사립학교에서는 63.88%로 나타나 사립학교에서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에 대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7] 냉·난방 시설의 충분한 사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설립유형별)

4. 서술식 의견 수집

설문의 마지막 문항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자유 의견 수집을 위해 구성되었다. 전체 응답자 22,941명 중에서 2,292명(약 9.99%)이 응답하였고 수집된 답변을 인권침해사례, 학생인권 관련 요구, 인권 관련 의견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74〉 서술식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유 의견

영역	응답 수	비고
인권침해사례	108	구체적 침해 사실이 드러나는 응답
학생인권 관련 요구	280	학교내 인권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가 포함된 응답
인권 관련 의견	281	학교내 인권 상황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의견
급식 관련 의견	41	
코로나 관련 의견	11	
설문조사에 관한 의견	54	
기타	1,517	‘없다’, ‘감사합니다’ 등의 답변과 학교명만 쓰는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응답
합계	2,292	

수집된 의견 중 인권침해사례, 학생인권 관련 요구, 인권 관련 의견 등 세 가지 분류에 속한 의견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사례에서는 설문문항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차별과 규정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투와 체육복, 복장 등 계절과 코로나 상황에도 복장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높은 빈도의 언어로 나타났다. 모욕적 언어, 화를 내거나 감정이 실린 심한 표현 등에 대한 침해 사례도 나타났다.

서술식 문항에 인권침해사례를 적은 응답들의 많은 수는 교사로부터 겪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학생이 잘못하여 지도를 받는 경우에도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잘못에 상응하지 않고 감정적·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들이

많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폭력적’이고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게 하는 부정적인 실태가 나타났다.



[그림 68] 침해사례 텍스트 마이닝

다음은 실제로 수집된 답변 중에 인권침해사례로 분류된 응답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규정과 체벌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단속이 심해 교문을 통과할 때마다 스트레스받고 학교를 돌아다닐 때마다 한 게 없어도 괜히 눈치보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지시 불이행이라며 학생인권보다 교사지시 불이행이 더 무서운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학교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학생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학생의 의견존중 없이 억지로 강요하며 공휴일의 자율학습까지 억지로 강요합니다. 체벌을 많이 하는 교사가 3명 정도 있으며 학생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고 와도 여전히 학생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구타와 같은 체벌을 합니다.”

“교사의 생각을 학생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그

생각을 주입하는 어조의 말은 학생에게 학교를 마음 편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작은 사정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수 없는 거 알지만 교무실에서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거 다른 학생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나. 학생인권 관련 요구

학생인권에 관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복장 등 개성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좀 더 보장될 것과 참여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이 주로 많이 수집되었고, 성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근절에 대한 요구와 방과후수업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휴대폰과 정보권 보호에 대한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나 학교 비리,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안되었다.



[그림 69] 학생 인권 관련 요구의 텍스트 마이닝

다음은 실제로 수집된 답변 중에 요구사항이 담긴 응답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학생들에게 묻지 않고 결정해서 통보받을 때도 많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며, 선생님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활동, 복장 등은 자유롭게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많은데 그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고 나중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한번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측에서 성실히 생각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엄격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도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식이 아닌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생리로 인한 인정결에 대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서까지 전혀 안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보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규정이 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험 결과를 다른 학생이 보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생기부 몰빵,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간접적이거나 직접적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인권 관련 의견

학교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의견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권과 사회의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발의되어 제정이 시도되길 바라는 바람도 나타났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보

장될 것과 교사들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학생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개성을 표현’할 수 없는 학교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림 70] 인권 관련 의견의 텍스트 마이닝

다음은 실제로 수집된 답변 중에 인권 관련 의견 담긴 응답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만 현재 경상남도의 학생 인권 보장의 수준은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별이 행해지는 모습은 공포를 넘어 잔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중략)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신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 큰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에 익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까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간단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인권보장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학교 내에서 확연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층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이든 기성 세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장 자유, 청소년 성소수자 등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풍속을 무작정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이들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높이신 분들께서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장

논의 및 제언

1. 연구요약

경상남도지역 교육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권인식은 학생인권, 사회참여, 차별 반대, 개성표현의 자유, 정보권 등의 영역에 두루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학생인권과 개성 표현의 자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나타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인권의 주체로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직접체벌과 간접체벌, 교사로 인한 모욕 및 욕설에 대한 경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외모, 학년(나이), 성별 등이 주된 학교 내 차별 이유로 지목되었다. 고등학교의 인권 보장 수준 제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특히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 권리 제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사립학교의 인권 증진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생리공결, 급식의 대체 식단, 종교활동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등 인권을 증진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들의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이미 있는 제도들의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인권 증진 제도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및 제언

가. 코로나19 유행 등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2020년은 등교수업이 적게 이루어졌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응답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응답보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응답과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의 결과가 2019년의 학교 경험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학생인권 실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2020 코로나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온라인 발언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국적으로 조명하였다. 2021년부터는 비대면 상황에 대한 학생인권 실태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나. 체벌 근절을 위한 실천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2019~2020년 교사로 인한 직접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1.78%로 나타나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의 직접 체벌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체벌은 위법 행위이자 인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체벌 근절이라 할 수 있다. 체벌은 ‘벌’이 아니라 폭력 행위, 즉 ‘폭행’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단위의 일관된 조치와 실태 점검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결과 공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당사국의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 상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협약 비준국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 중 하나로, 국가가 자국내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실천하는 기본적 책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거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 자료 수집의 필요성은 정책 수립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시행과정과 실태가 정기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표 74〉는 정기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고 있는 교육청의 실태조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유아교육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사립 비율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 인권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수집된 실태를 분석하여 인권 실태 추이 분석을 병행하는 것은 지역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각 지역의 실태조사마다의 특징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경상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75〉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 인권 실태조사 현황

지역	조사명	방법	학생				교사	학부모	추가영역
			유	초	중	고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표집	○	○	○	○	○	○	면담
광주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표집	×	○	○	○	○	×	추이분석
경기	학생인권 실태조사	표집	×	○	○	○	○	○	면담
전북	인권실태조사	전수	×	○	○	○	○	×	

실태조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특히 학교를 기반으로 실태조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학교가 반복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피로도를 호소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집 방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국가인권위, 교육청 등이 학교 구성원의 인지도에 기반한 유사한 형태의 설문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하기보다 지역별 협의회나 지원청 단위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등 여러 층위의 실태조사가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면담이나 관찰조사, 인권 관련 경험을 묻는 포트폴리오 조사 등의 방법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라.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도구의 개발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는 문항개발과 분석도구의 개발 과정을 정교하게 거치지 못한 채 몇몇 지역의 실태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짧은 기간, 설문조사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보다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적합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분석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15~2019년까지 실시된 제1차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

의 분석도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2020년, 제2차 서울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까지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다가 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부터는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또는 지역 사회의 민주화 등의 지표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으나,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가 학교 내 인권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2021년에는 다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매해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환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도 보다 정밀한 과정을 통해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 및 환류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원(2020).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교육 2020-32. 국제아동인권센터.
- 김이수(2019). 2019년 민주인권친화도 실태조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 연구소.
- 대구학생인권연대(2011). 대구학생인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박용조(2018).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경상 남도를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2018-34.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 원
- 박용주(2019). 2019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 정책연구 2019-03. 충청남도교 육청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배경내(2003).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송태수 · 이원희(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8년 연구용역 최종 보고 서. 서울교육 2018-10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이정연(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정책연구 2019-18. 경기도교육 연구원.
- 이희진(2020). 참정권교육에 대한 고등학생 의견 조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0). 2019 인권 실태조사 결과.
- 조레만드는청소년(2019). 조레만드는청소년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활동기 록집 '우리는 진 게 아니라 아직 못 이긴 거야'. 조레만드는청소년 활동기 록집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2018). '여전히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이제 끝 내야 한다!'. 2018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 다'. 학생의날 90돌 맞이 전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 김향미(2012.2.29.). 경징계 이유로 학생회장 출마 제한... 인권위 "이중처벌 소지" 시정 권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91016541&code=940401 (2020.12.8. 인출)

- 문주현(2017.7.19.). 학생선도부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침해, 폐지해야"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19일 학생선도부 활동 폐지 정책권고. 참소리. <http://cham-sori.net/news/40760> (2020.12.28. 인출)
- 이영주(2019.3.31.). 경기교육청, 교사·학부모 '청렴서약서' 앞으로 안받는다.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0329138000061?input=1195m (2020.12.8. 인출)
- 윤성효(2017.7.10.). 도교육청 '2학기부터 전면 폐지' 발표... 경남교육연대 "학생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오마이뉴스. <http://omn.kr/np9y> (2020.12.8. 인출)
- 윤성효(2018.4.25.). 청소년들 "교문 지도와 소지품 검사는 대표적 인권 침해" 경남청소년행동, 21일 창원 분수광장 토요집회 이어 계속 활동 하기로. 오마이뉴스. <http://omn.kr/r3kt> (2020.12.28. 인출)
- 주찬우(2017.7.14.). 고교 방학 '하나마나'...경남도교육청 공문도 무시.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660> (2020.12.28. 인출)

[부록 1] 설문지

2020. 경상남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을 보다 인권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므로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고 편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비밀유지가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보다 인권적인 경남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매우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부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조사관 김서훈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이희진

■ 설문기간: 2020. 10. 6. ~ 10. 12. (7일간)

■ 참여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인식 영역〉

*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에 따라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학교에서 2020년에 받은 인권교육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인권교육의 영역 및 내용	선택
장애인권교육 또는 장애인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또는 문화다양성교육	
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평등교육 또는 성인권교육 또는 성인지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조금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비슷하다
- ④ 좋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좋지 않다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거의 알지 못 한다
- ④ 전혀 알지 못 한다.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	매우 동의한다	조금 동의한다	조금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집회 등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조금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인권침해 및 대응 역량>

* 다음 질문은 2018~202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에 따라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 선생님에게 직접 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체벌: 도구 또는 몸의 일부를 사용하여 때리는 형태의 벌)

- ① 있다
- ② 없다

8. 선생님에게 간접 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간접 체벌: 손들고 있기, 운동장 뛰기 등 어떤 행동을 하게 하여 고통을 주는 형태의 벌)

- ① 있다
- ② 없다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2. 다니는 학교는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선도부나 학생회 임원들이 아침 교문 지도에 참여하는 등)

- ① 있다
- ② 없다

14. 학교에서 지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서약서,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요구
- ② 박지(작은 글자를 딱딱하게 써서 종이를 가득 채우는 일)나 특정한 글을 따라 쓰기
- ③ 별점이나 마일리지, 횡수를 세는 경고, 스티커 제도, 상벌점제
- ④ 학교행사나 활동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예: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 ⑤ 벌청소 등의 노동
- ⑥ 해당없음
- ⑦ 기타

15. 학교에서 학교/교직원/다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차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와 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② 외모나 생김새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③ 가정환경이나 가족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④ 학년이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⑥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외국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⑦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⑧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⑨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⑩ 해당없음
- ⑪ 기타

16.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제한하는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머리 길이나 색깔, 형태 변화(예: 펌 등)에 대한 제한
- ② 춘하추동 교복 착용 시기나 착용 방법을 학교가 정해서 제한
- ③ 화장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용관련 기기와 용품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제한
- ④ 운동화, 양말, 면 티셔츠, 외투 등의 색상을 제한
- ⑤ 악세서리, 뱃지, 책 등의 소지품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 ⑥ 교복 위의 겹옷 착용을 전체 또는 종류에 따라 제한
- ⑦ 해당없음
- ⑧ 기타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①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 ②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 ③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 ④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기타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야간 및 방학 중 자율학습 포함)

- 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선택할 수 없다
- ④ 기타

19.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및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 교사
- ② WEE 클래스
- ③ 교육청 등 관련 기관
- ④ 국가인권위원회
- ⑤ 지역 상담센터
- ⑥ 교육인권경영센터
- ⑦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 ⑧ 경찰
- ⑨ 가족
- ⑩ 친구 및 선후배
- ⑪ 모르겠음
- ⑫ 기타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거나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 ②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 ③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 ④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 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 ⑥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 ⑦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 ⑧ 피해자를 지지하는 표현하기
- ⑨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 ⑩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 하기
- ⑪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 ⑫ 기타

<학생자치,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 다음 질문은 2018~202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에 따라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 다니는 학교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학교는 학생회 선거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우리 학교는 축제 등의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받아들인다.				
우리 학교는 학교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수업시간 중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 있다. (예: 학생회의실)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예: 동아리, 학생자치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미리 안내되어 원하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2.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을 통해 주로 묻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설문조사
- ② 학급회의
- ③ 회장 등 소수의 학생들이 모이는 회의(예: 전교회회의)

- ④ 다모임 또는 학생 전체 회의
- ⑤ 찬반투표
- ⑥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 ⑦ 기타

〈건강권, 편의시설, 냉난방〉

* 다음 질문은 2018~202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에 따라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인정한다
- ② 가능하지만 공결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 ③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 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교사의 허락 등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 ③ 모르겠다
- ④ 기타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조금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조금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조금 그렇다
- ③ 조금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8. 학교에서 알러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정보권>

* 다음 질문은 2018~202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에 따라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학교에서 종교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

<참여자 정보 영역>

*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5.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36. 학년

-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37. 다니는 학교의 지역

- ① 고성 ② 거제 ③ 거창 ④ 김해 ⑤ 남해
⑥ 밀양 ⑦ 사천 ⑧ 산청 ⑨ 양산 ⑩ 의령
⑪ 진주 ⑫ 창녕 ⑬ 창원 ⑭ 통영 ⑮ 하동
⑯ 함안 ⑰ 함양 ⑱ 합천

38. 다니는 학교의 위치

- ① 동 지역 ② 읍·면 지역

39. 다니는 학교의 설립유형

- ① 국·공립 ② 사립

40.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부록 2]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배경변인(성, 학년, 위치(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성(동지역/읍, 면지역), 설립유형(국, 공립/사립))에 따라 응답 수와 백분율을 비교하였다.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76〉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성별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성	327	484	3473	3607	7891
		4.14%	6.13%	44.01%	45.71%	100.00%
	여성	380	957	5597	4068	11002
		3.45%	8.70%	50.87%	36.98%	100.00%
	기타	14	21	56	37	128
		10.94%	16.41%	43.75%	28.91%	100.00%
	무응답	187	321	1801	1611	3920
		4.77%	8.19%	45.94%	41.10%	100.00%
전체	908	1783	10927	9323	22941	
	3.96%	7.77%	47.63%	40.64%	100.00%	

〈표 77〉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동/읍, 면별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503	1024	5666	4454	11647
		4.32%	8.79%	48.65%	38.24%	100.00%
	읍, 면지역	218	438	3460	3258	7374
		2.96%	5.94%	46.92%	44.18%	100.00%
	무응답	187	321	1801	1611	3920
		4.77%	8.19%	45.94%	41.10%	100.00%
	전체	908	1783	10927	9323	22941
		3.96%	7.77%	47.63%	40.64%	100.00%

<표 78>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년	초5	36	86	951	1204	2277
		1.58%	3.78%	41.77%	52.88%	100.00%
	초6	50	142	1425	1724	3341
		1.50%	4.25%	42.65%	51.60%	100.00%
	중1	63	149	1516	1386	3114
		2.02%	4.78%	48.68%	44.51%	100.00%
	중2	94	209	1305	848	2456
		3.83%	8.51%	53.14%	34.53%	100.00%
	중3	98	201	1068	719	2086
		4.70%	9.64%	51.20%	34.47%	100.00%
	고1	91	221	1321	879	2512
		3.62%	8.80%	52.59%	34.99%	100.00%
	고2	128	293	1019	620	2060
		6.21%	14.22%	49.47%	30.10%	100.00%
	고3	161	161	521	332	1175
		13.70%	13.70%	44.34%	28.26%	100.00%
	무응답	187	321	1801	1611	3920
		4.77%	8.19%	45.94%	41.10%	100.00%
전체	908	1783	10927	9323	22941	
	3.96%	7.77%	47.63%	40.64%	100.00%	

<표 79>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368	701	4211	3632	8912
		4.13%	7.87%	47.25%	40.75%	100.00%
	사립	255	548	2862	1974	5639
		4.52%	9.72%	50.75%	35.01%	100.00%
	모름	98	213	2053	2106	4470
		2.19%	4.77%	45.93%	47.11%	100.00%
	무응답	187	321	1801	1611	3920
		4.77%	8.19%	45.94%	41.10%	100.00%
	전체	908	1783	10927	9323	22941
		3.96%	7.77%	47.63%	40.64%	100.00%

<표 80> 2. 학교에서 받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학교의 지역별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6	13	97	106	222
		2.70%	5.86%	43.69%	47.75%	100.00%
	거제	45	85	684	592	1406
		3.20%	6.05%	48.65%	42.11%	100.00%
	거창	18	37	230	205	490
		3.67%	7.55%	46.94%	41.84%	100.00%
	김해	94	173	1216	940	2423
		3.88%	7.14%	50.19%	38.79%	100.00%
	남해	5	15	125	120	265
		1.89%	5.66%	47.17%	45.28%	100.00%
	밀양	23	34	263	191	511
		4.50%	6.65%	51.47%	37.38%	100.00%
	사천	32	39	274	279	624
		5.13%	6.25%	43.91%	44.71%	100.00%
	산청	3	5	55	72	135
		2.22%	3.70%	40.74%	53.33%	100.00%
	양산	86	176	854	609	1725
		4.99%	10.20%	49.51%	35.30%	100.00%
	의령	4	15	121	80	220
		1.82%	6.82%	55.00%	36.36%	100.00%
	진주	132	262	1355	1112	2861
		4.61%	9.16%	47.36%	38.87%	100.00%
	창녕	10	16	232	233	491
		2.04%	3.26%	47.25%	47.45%	100.00%
	창원	205	498	2871	2400	5974
		3.43%	8.34%	48.06%	40.17%	100.00%
	통영	18	34	288	247	587
		3.07%	5.79%	49.06%	42.08%	100.00%
하동	19	23	171	209	422	
	4.50%	5.45%	40.52%	49.53%	100.00%	
함안	8	13	125	147	293	
	2.73%	4.44%	42.66%	50.17%	100.00%	
함양	8	15	86	66	175	
	4.57%	8.57%	49.14%	37.71%	100.00%	
합천	5	9	79	104	197	
	2.54%	4.57%	40.10%	52.79%	100.00%	
무응답	187	321	1801	1611	3920	
	4.77%	8.19%	45.94%	41.10%	100.00%	
전체	908	1783	10927	9323	22941	
	3.96%	7.77%	47.63%	40.64%	100.00%	

<표 81>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응답)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전체
성별	남성	183	340	2263	2805	2300	7891
		2.32%	4.31%	28.68%	35.55%	29.15%	100.00%
	여성	192	694	4331	3963	1822	11002
		1.75%	6.31%	39.37%	36.02%	16.56%	100.00%
	기타	12	9	55	25	27	128
		9.38%	7.03%	42.97%	19.53%	21.09%	100.00%
	무응답	85	195	1417	1356	867	3920
		2.17%	4.97%	36.15%	34.59%	22.12%	100.00%
	전체	472	1238	8066	8149	5016	22941
		2.06%	5.40%	35.16%	35.52%	21.86%	100.00%

<표 82>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매우 좋지않다	좋지 않은편이 다	비슷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전체
학년	초5	11	43	579	1033	611	2277
		0.48%	1.89%	25.43%	45.37%	26.83%	100.00%
	초6	15	72	881	1436	937	3341
		0.45%	2.16%	26.37%	42.98%	28.05%	100.00%
	중1	27	104	1013	1258	712	3114
		0.87%	3.34%	32.53%	40.40%	22.86%	100.00%
	중2	49	144	999	811	453	2456
		2.00%	5.86%	40.68%	33.02%	18.44%	100.00%
	중3	49	128	828	647	434	2086
		2.35%	6.14%	39.69%	31.02%	20.81%	100.00%
	고1	50	182	1044	800	436	2512
		1.99%	7.25%	41.56%	31.85%	17.36%	100.00%
	고2	83	228	855	528	366	2060
		4.03%	11.07%	41.50%	25.63%	17.77%	100.00%
	고3	103	142	450	280	200	1175
		8.77%	12.09%	38.30%	23.83%	17.02%	100.00%
	무응답	85	195	1417	1356	867	3920
		2.17%	4.97%	36.15%	34.59%	22.12%	100.00%
	전체	472	1238	8066	8149	5016	22941
		2.06%	5.40%	35.16%	35.52%	21.86%	100.00%

〈표 83〉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응답)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3	8	60	88	63	222
		1.35%	3.60%	27.03%	39.64%	28.38%	100.00%
	거제	13	52	484	539	318	1406
		0.92%	3.70%	34.42%	38.34%	22.62%	100.00%
	거창	13	25	163	167	122	490
		2.65%	5.10%	33.27%	34.08%	24.90%	100.00%
	김해	39	123	924	871	466	2423
		1.61%	5.08%	38.13%	35.95%	19.23%	100.00%
	남해	3	14	74	106	68	265
		1.13%	5.28%	27.92%	40.00%	25.66%	100.00%
	밀양	10	34	173	192	102	511
		1.96%	6.65%	33.86%	37.57%	19.96%	100.00%
	사천	20	41	182	236	145	624
		3.21%	6.57%	29.17%	37.82%	23.24%	100.00%
	산청	2	6	36	42	49	135
		1.48%	4.44%	26.67%	31.11%	36.30%	100.00%
	양산	38	125	716	568	278	1725
		2.20%	7.25%	41.51%	32.93%	16.12%	100.00%
	의령	5	9	70	84	52	220
		2.27%	4.09%	31.82%	38.18%	23.64%	100.00%
	진주	78	188	1013	988	594	2861
		2.73%	6.57%	35.41%	34.53%	20.76%	100.00%
	창녕	6	18	148	163	156	491
		1.22%	3.67%	30.14%	33.20%	31.77%	100.00%
	창원	136	345	2113	2122	1258	5974
		2.28%	5.78%	35.37%	35.52%	21.06%	100.00%
	통영	13	20	186	219	149	587
		2.21%	3.41%	31.69%	37.31%	25.38%	100.00%
하동	2	12	113	167	128	422	
	0.47%	2.84%	26.78%	39.57%	30.33%	100.00%	
함안	3	10	76	120	84	293	
	1.02%	3.41%	25.94%	40.96%	28.67%	100.00%	
함양	3	7	69	56	40	175	
	1.71%	4.00%	39.43%	32.00%	22.86%	100.00%	
합천	0	6	49	65	77	197	
	0.00%	3.05%	24.87%	32.99%	39.09%	100.00%	
무응답	85	195	1417	1356	867	3920	
	2.17%	4.97%	36.15%	34.59%	22.12%	100.00%	
전체	472	1238	8066	8149	5016	22941	
	2.06%	5.40%	35.16%	35.52%	21.86%	100.00%	

〈표 84〉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읍, 면별 응답)

		매우 좋지않다	좋지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편이 다	매우좋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279	716	4291	4085	2276	11647
		2.40%	6.15%	36.84%	35.07%	19.54%	100.00%
	읍, 면지역	108	327	2358	2708	1873	7374
		1.46%	4.43%	31.98%	36.72%	25.40%	100.00%
	무응답	85	195	1417	1356	867	3920
		2.17%	4.97%	36.15%	34.59%	22.12%	100.00%
전체	472	1238	8066	8149	5016	22941	
	2.06%	5.40%	35.16%	35.52%	21.86%	100.00%	

〈표 85〉 3.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남의 학생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65	465	3054	3238	1990	8912
		1.85%	5.22%	34.27%	36.33%	22.33%	100.00%
	사립	176	463	2220	1738	1042	5639
		3.12%	8.21%	39.37%	30.82%	18.48%	100.00%
	모름	46	115	1375	1817	1117	4470
		1.03%	2.57%	30.76%	40.65%	24.99%	100.00%
	무응답	85	195	1417	1356	867	3920
		2.17%	4.97%	36.15%	34.59%	22.12%	100.00%
	전체	472	1238	8066	8149	5016	22941
		2.06%	5.40%	35.16%	35.52%	21.86%	100.00%

〈표 86〉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전혀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체
성별	남성	1016	2648	2937	1290	7891
		12.88%	33.56%	37.22%	16.35%	100.00%
	여성	1476	4166	4397	963	11002
		13.42%	37.87%	39.97%	8.75%	100.00%
	기타	27	36	43	22	128
		21.09%	28.12%	33.59%	17.19%	100.00%
	무응답	527	1440	1459	494	3920
		13.44%	36.73%	37.22%	12.60%	100.00%
전체	3046	8290	8836	2769	22941	
	13.28%	36.14%	38.52%	12.07%	100.00%	

〈표 87〉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전혀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있다	전체
학년	초5	296	789	982	210	2277
		13.00%	34.65%	43.13%	9.22%	100.00%
	초6	411	1227	1356	347	3341
		12.30%	36.73%	40.59%	10.39%	100.00%
	중1	352	1143	1280	339	3114
		11.30%	36.71%	41.10%	10.89%	100.00%
	중2	380	945	894	237	2456
		15.47%	38.48%	36.40%	9.65%	100.00%
	중3	272	764	740	310	2086
		13.04%	36.63%	35.47%	14.86%	100.00%
	고1	364	945	887	316	2512
		14.49%	37.62%	35.31%	12.58%	100.00%
	고2	271	672	806	311	2060
		13.16%	32.62%	39.13%	15.10%	100.00%
	고3	173	365	432	205	1175
		14.72%	31.06%	36.77%	17.45%	100.00%
	무응답	527	1440	1459	494	3920
		13.44%	36.73%	37.22%	12.60%	100.00%
전체	3046	8290	8836	2769	22941	
	13.28%	36.14%	38.52%	12.07%	100.00%	

〈표 88〉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전혀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학 교 의 위 치	고성	23	63	94	42	222
		10.36%	28.38%	42.34%	18.92%	100.00%
	거제	201	521	545	139	1406
		14.30%	37.06%	38.76%	9.89%	100.00%
	거창	78	189	157	66	490
		15.92%	38.57%	32.04%	13.47%	100.00%
	김해	313	916	947	247	2423
		12.92%	37.80%	39.08%	10.19%	100.00%
	남해	32	96	94	43	265
		12.08%	36.23%	35.47%	16.23%	100.00%
	밀양	67	184	195	65	511
		13.11%	36.01%	38.16%	12.72%	100.00%
	사천	80	211	260	73	624
		12.82%	33.81%	41.67%	11.70%	100.00%
	산청	13	43	51	28	135
		9.63%	31.85%	37.78%	20.74%	100.00%
	양산	286	648	613	178	1725
		16.58%	37.57%	35.54%	10.32%	100.00%
	의령	18	68	105	29	220
		8.18%	30.91%	47.73%	13.18%	100.00%
진주	389	1091	1049	332	2861	
	13.60%	38.13%	36.67%	11.60%	100.00%	
창녕	57	168	174	92	491	
	11.61%	34.22%	35.44%	18.74%	100.00%	
창원	771	2071	2436	696	5974	
	12.91%	34.67%	40.78%	11.65%	100.00%	
통영	69	209	233	76	587	
	11.75%	35.60%	39.69%	12.95%	100.00%	
하동	41	149	171	61	422	
	9.72%	35.31%	40.52%	14.45%	100.00%	
함안	30	94	119	50	293	
	10.24%	32.08%	40.61%	17.06%	100.00%	
함양	31	67	63	14	175	
	17.71%	38.29%	36.00%	8.00%	100.00%	
합천	20	62	71	44	197	
	10.15%	31.47%	36.04%	22.34%	100.00%	
무응답	527	1440	1459	494	3920	
	13.44%	36.73%	37.22%	12.60%	100.00%	
전체	3046	8290	8836	2769	22941	
	13.28%	36.14%	38.52%	12.07%	100.00%	

<표 89>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전혀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587	4237	4500	1323	11647
		13.63%	36.38%	38.64%	11.36%	100.00%
	읍, 면지역	932	2613	2877	952	7374
		12.64%	35.44%	39.02%	12.91%	100.00%
	무응답	527	1440	1459	494	3920
		13.44%	36.73%	37.22%	12.60%	100.00%
전체	3046	8290	8836	2769	22941	
	13.28%	36.14%	38.52%	12.07%	100.00%	

<표 90> 4. 학생인권조례의 이름, 목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전혀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226	3158	3444	1084	8912
		13.76%	35.44%	38.64%	12.16%	100.00%
	사립	734	1989	2182	734	5639
		13.02%	35.27%	38.69%	13.02%	100.00%
	모름	559	1703	1751	457	4470
		12.51%	38.10%	39.17%	10.22%	100.00%
	무응답	527	1440	1459	494	3920
		13.44%	36.73%	37.22%	12.60%	100.00%
	전체	3046	8290	8836	2769	22941
		13.28%	36.14%	38.52%	12.07%	100.00%

<표 9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성별	남성	204	740	2486	4461	7891
		2.59%	9.38%	31.50%	56.53%	100.00%
	여성	143	992	3525	6342	11002
		1.30%	9.02%	32.04%	57.64%	100.00%
	기타	5	12	31	80	128
		3.91%	9.38%	24.22%	62.50%	100.00%
	무응답	100	416	1259	2145	3920
		2.55%	10.61%	32.12%	54.72%	100.00%
	전체	452	2160	7301	13028	22941
		1.97%	9.42%	31.83%	56.79%	100.00%

<표 9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년	초5	42	205	695	1335	2277
		1.84%	9.00%	30.52%	58.63%	100.00%
	초6	66	300	978	1997	3341
		1.98%	8.98%	29.27%	59.77%	100.00%
	중1	56	290	994	1774	3114
		1.80%	9.31%	31.92%	56.97%	100.00%
	중2	52	277	831	1296	2456
		2.12%	11.28%	33.84%	52.77%	100.00%
	중3	34	196	692	1164	2086
		1.63%	9.40%	33.17%	55.80%	100.00%
	고1	31	183	811	1487	2512
		1.23%	7.29%	32.29%	59.20%	100.00%
	고2	35	185	669	1171	2060
		1.70%	8.98%	32.48%	56.84%	100.00%
	고3	36	108	372	659	1175
		3.06%	9.19%	31.66%	56.09%	100.00%
	무응답	100	416	1259	2145	3920
		2.55%	10.61%	32.12%	54.72%	100.00%
	전체	452	2160	7301	13028	22941
		1.97%	9.42%	31.83%	56.79%	100.00%

<표 9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	16	67	138	222
		0.45%	7.21%	30.18%	62.16%	100.00%
	거제	34	152	459	761	1406
		2.42%	10.81%	32.65%	54.13%	100.00%
	거창	5	41	167	277	490
		1.02%	8.37%	34.08%	56.53%	100.00%
	김해	51	233	786	1353	2423
		2.10%	9.62%	32.44%	55.84%	100.00%
	남해	2	16	86	161	265
		0.75%	6.04%	32.45%	60.75%	100.00%
	밀양	9	52	161	289	511
		1.76%	10.18%	31.51%	56.56%	100.00%
	사천	8	59	183	374	624
		1.28%	9.46%	29.33%	59.94%	100.00%
	산청	2	5	44	84	135
		1.48%	3.70%	32.59%	62.22%	100.00%
	양산	31	171	571	952	1725
		1.80%	9.91%	33.10%	55.19%	100.00%
	의령	5	15	67	133	220
		2.27%	6.82%	30.45%	60.45%	100.00%
진주	53	236	906	1666	2861	
	1.85%	8.25%	31.67%	58.23%	100.00%	
창녕	5	32	122	332	491	
	1.02%	6.52%	24.85%	67.62%	100.00%	
창원	116	550	1913	3395	5974	
	1.94%	9.21%	32.02%	56.83%	100.00%	
통영	16	75	185	311	587	
	2.73%	12.78%	31.52%	52.98%	100.00%	
하동	5	27	134	256	422	
	1.18%	6.40%	31.75%	60.66%	100.00%	
함안	5	32	92	164	293	
	1.71%	10.92%	31.40%	55.97%	100.00%	
함양	2	13	53	107	175	
	1.14%	7.43%	30.29%	61.14%	100.00%	
합천	2	19	46	130	197	
	1.02%	9.64%	23.35%	65.99%	100.00%	
무응답	100	416	1259	2145	3920	
	2.55%	10.61%	32.12%	54.72%	100.00%	
전체	452	2160	7301	13028	22941	
	1.97%	9.42%	31.83%	56.79%	100.00%	

〈표 9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229	1095	3786	6537	11647
		1.97%	9.40%	32.51%	56.13%	100.00%
	읍, 면지역	123	649	2256	4346	7374
		1.67%	8.80%	30.59%	58.94%	100.00%
	무응답	100	416	1259	2145	3920
		2.55%	10.61%	32.12%	54.72%	100.00%
전체	452	2160	7301	13028	22941	
	1.97%	9.42%	31.83%	56.79%	100.00%	

〈표 9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91	861	2750	5110	8912
		2.14%	9.66%	30.86%	57.34%	100.00%
	사립	95	475	1837	3232	5639
		1.68%	8.42%	32.58%	57.32%	100.00%
	모름	66	408	1455	2541	4470
		1.48%	9.13%	32.55%	56.85%	100.00%
무응답	100	416	1259	2145	3920	
	2.55%	10.61%	32.12%	54.72%	100.00%	
전체	452	2160	7301	13028	22941	
	1.97%	9.42%	31.83%	56.79%	100.00%	

<표 96>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성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성별	남성	69	72	881	6869	7891
		0.87%	0.91%	11.16%	87.05%	100.00%
	여성	42	61	575	10324	11002
		0.38%	0.55%	5.23%	93.84%	100.00%
	기타	5	2	12	109	128
		3.91%	1.56%	9.38%	85.16%	100.00%
	무응답	44	31	337	3508	3920
		1.12%	0.79%	8.60%	89.49%	100.00%
	전체	160	166	1805	20810	22941
		0.70%	0.72%	7.87%	90.71%	100.00%

<표 97>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년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년	초5	12	17	147	2101	2277
		0.53%	0.75%	6.46%	92.27%	100.00%
	초6	29	17	217	3078	3341
		0.87%	0.51%	6.50%	92.13%	100.00%
	중1	18	26	226	2844	3114
		0.58%	0.83%	7.26%	91.33%	100.00%
	중2	11	22	202	2221	2456
		0.45%	0.90%	8.22%	90.43%	100.00%
	중3	9	11	198	1868	2086
		0.43%	0.53%	9.49%	89.55%	100.00%
	고1	12	15	221	2264	2512
		0.48%	0.60%	8.80%	90.13%	100.00%
	고2	7	15	153	1885	2060
		0.34%	0.73%	7.43%	91.50%	100.00%
	고3	18	12	104	1041	1175
		1.53%	1.02%	8.85%	88.60%	100.00%
	무응답	44	31	337	3508	3920
		1.12%	0.79%	8.60%	89.49%	100.00%
전체	160	166	1805	20810	22941	
	0.70%	0.72%	7.87%	90.71%	100.00%	

〈표 98〉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지역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2	0	17	203	222
		0.90%	0.00%	7.66%	91.44%	100.00%
	거제	7	10	122	1267	1406
		0.50%	0.71%	8.68%	90.11%	100.00%
	거창	1	4	46	439	490
		0.20%	0.82%	9.39%	89.59%	100.00%
	김해	9	23	189	2202	2423
		0.37%	0.95%	7.80%	90.88%	100.00%
	남해	1	4	25	235	265
		0.38%	1.51%	9.43%	88.68%	100.00%
	밀양	1	3	55	452	511
		0.20%	0.59%	10.76%	88.45%	100.00%
	사천	4	2	47	571	624
		0.64%	0.32%	7.53%	91.51%	100.00%
	산청	1	1	7	126	135
		0.74%	0.74%	5.19%	93.33%	100.00%
	양산	15	11	130	1569	1725
		0.87%	0.64%	7.54%	90.96%	100.00%
	의령	0	4	13	203	220
		0.00%	1.82%	5.91%	92.27%	100.00%
진주	24	23	231	2583	2861	
	0.84%	0.80%	8.07%	90.28%	100.00%	
창녕	3	4	36	448	491	
	0.61%	0.81%	7.33%	91.24%	100.00%	
창원	39	40	427	5468	5974	
	0.65%	0.67%	7.15%	91.53%	100.00%	
통영	3	1	44	539	587	
	0.51%	0.17%	7.50%	91.82%	100.00%	
하동	1	1	35	385	422	
	0.24%	0.24%	8.29%	91.23%	100.00%	
함안	2	2	20	269	293	
	0.68%	0.68%	6.83%	91.81%	100.00%	
함양	1	1	12	161	175	
	0.57%	0.57%	6.86%	92.00%	100.00%	
합천	2	1	12	182	197	
	1.02%	0.51%	6.09%	92.39%	100.00%	
무응답	44	31	337	3508	3920	
	1.12%	0.79%	8.60%	89.49%	100.00%	
전체	160	166	1805	20810	22941	
	0.70%	0.72%	7.87%	90.71%	100.00%	

〈표 99〉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69	84	881	10613	11647
		0.59%	0.72%	7.56%	91.12%	100.00%
	읍, 면지역	47	51	587	6689	7374
		0.64%	0.69%	7.96%	90.71%	100.00%
	무응답	44	31	337	3508	3920
		1.12%	0.79%	8.60%	89.49%	100.00%
전체	160	166	1805	20810	22941	
	0.70%	0.72%	7.87%	90.71%	100.00%	

〈표 100〉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성적, 장애, 외모, 피부색, 인종, 성, 출신 지역, 문화, 가족 환경, 능력, 나이 및 학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51	61	624	8176	8912
		0.57%	0.68%	7.00%	91.74%	100.00%
	사립	31	40	460	5108	5639
		0.55%	0.71%	8.16%	90.58%	100.00%
	모름	34	34	384	4018	4470
		0.76%	0.76%	8.59%	89.89%	100.00%
	무응답	44	31	337	3508	3920
		1.12%	0.79%	8.60%	89.49%	100.00%
	전체	160	166	1805	20810	22941
		0.70%	0.72%	7.87%	90.71%	100.00%

〈표 10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성별	남성	98	358	2277	5158	7891
		1.24%	4.54%	28.86%	65.37%	100.00%
	여성	82	392	2680	7848	11002
		0.75%	3.56%	24.36%	71.33%	100.00%
	기타	4	7	23	94	128
		3.12%	5.47%	17.97%	73.44%	100.00%
	무응답	58	209	1151	2502	3920
		1.48%	5.33%	29.36%	63.83%	100.00%
	전체	242	966	6131	15602	22941
		1.05%	4.21%	26.73%	68.01%	100.00%

〈표 10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년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년	초5	38	175	803	1261	2277
		1.67%	7.69%	35.27%	55.38%	100.00%
	초6	44	198	1018	2081	3341
		1.32%	5.93%	30.47%	62.29%	100.00%
	중1	26	89	795	2204	3114
		0.83%	2.86%	25.53%	70.78%	100.00%
	중2	15	87	626	1728	2456
		0.61%	3.54%	25.49%	70.36%	100.00%
	중3	18	62	511	1495	2086
		0.86%	2.97%	24.50%	71.67%	100.00%
	고1	19	70	570	1853	2512
		0.76%	2.79%	22.69%	73.77%	100.00%
	고2	7	46	421	1586	2060
		0.34%	2.23%	20.44%	76.99%	100.00%
	고3	17	30	236	892	1175
		1.45%	2.55%	20.09%	75.91%	100.00%
	무응답	58	209	1151	2502	3920
		1.48%	5.33%	29.36%	63.83%	100.00%
	전체	242	966	6131	15602	22941
		1.05%	4.21%	26.73%	68.01%	100.00%

〈표 10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역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 의 위치	고성	4	7	47	164	222
		1.80%	3.15%	21.17%	73.87%	100.00%
	거제	21	79	440	866	1406
		1.49%	5.62%	31.29%	61.59%	100.00%
	거창	3	15	124	348	490
		0.61%	3.06%	25.31%	71.02%	100.00%
	김해	27	98	647	1651	2423
		1.11%	4.04%	26.70%	68.14%	100.00%
	남해	1	9	70	185	265
		0.38%	3.40%	26.42%	69.81%	100.00%
	밀양	3	22	152	334	511
		0.59%	4.31%	29.75%	65.36%	100.00%
	사천	11	23	163	427	624
		1.76%	3.69%	26.12%	68.43%	100.00%
	산청	2	4	33	96	135
		1.48%	2.96%	24.44%	71.11%	100.00%
	양산	16	68	437	1204	1725
		0.93%	3.94%	25.33%	69.80%	100.00%
	의령	1	13	54	152	220
		0.45%	5.91%	24.55%	69.09%	100.00%
	진주	26	103	708	2024	2861
		0.91%	3.60%	24.75%	70.74%	100.00%
	창녕	0	24	103	364	491
		0.00%	4.89%	20.98%	74.13%	100.00%
창원	62	236	1558	4118	5974	
	1.04%	3.95%	26.08%	68.93%	100.00%	
통영	2	21	161	403	587	
	0.34%	3.58%	27.43%	68.65%	100.00%	
하동	1	15	109	297	422	
	0.24%	3.55%	25.83%	70.38%	100.00%	
함안	0	15	88	190	293	
	0.00%	5.12%	30.03%	64.85%	100.00%	
함양	2	5	52	116	175	
	1.14%	2.86%	29.71%	66.29%	100.00%	
합천	2	0	34	161	197	
	1.02%	0.00%	17.26%	81.73%	100.00%	
무응답	58	209	1151	2502	3920	
	1.48%	5.33%	29.36%	63.83%	100.00%	
전체	242	966	6131	15602	22941	
	1.05%	4.21%	26.73%	68.01%	100.00%	

<표 10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읍, 면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23	473	3047	8004	11647
		1.06%	4.06%	26.16%	68.72%	100.00%
	읍, 면지역	61	284	1933	5096	7374
		0.83%	3.85%	26.21%	69.11%	100.00%
	무응답	58	209	1151	2502	3920
		1.48%	5.33%	29.36%	63.83%	100.00%
전체	242	966	6131	15602	22941	
	1.05%	4.21%	26.73%	68.01%	100.00%	

<표 10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일기나 소지품 등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07	403	2346	6056	8912
		1.20%	4.52%	26.32%	67.95%	100.00%
	사립	34	160	1341	4104	5639
		0.60%	2.84%	23.78%	72.78%	100.00%
	모름	43	194	1293	2940	4470
		0.96%	4.34%	28.93%	65.77%	100.00%
무응답	58	209	1151	2502	3920	
	1.48%	5.33%	29.36%	63.83%	100.00%	
전체	242	966	6131	15602	22941	
	1.05%	4.21%	26.73%	68.01%	100.00%	

〈표 106〉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성별	남성	156	670	2720	4345	7891
		1.98%	8.49%	34.47%	55.06%	100.00%
	여성	110	775	3617	6500	11002
		1.00%	7.04%	32.88%	59.08%	100.00%
	기타	5	9	29	85	128
		3.91%	7.03%	22.66%	66.41%	100.00%
	무응답	65	393	1325	2137	3920
		1.66%	10.03%	33.80%	54.52%	100.00%
	전체	336	1847	7691	13067	22941
		1.46%	8.05%	33.53%	56.96%	100.00%

〈표 107〉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년	초5	29	228	839	1181	2277
		1.27%	10.01%	36.85%	51.87%	100.00%
	초6	33	247	1092	1969	3341
		0.99%	7.39%	32.68%	58.93%	100.00%
	중1	44	256	1055	1759	3114
		1.41%	8.22%	33.88%	56.49%	100.00%
	중2	42	210	801	1403	2456
		1.71%	8.55%	32.61%	57.13%	100.00%
	중3	34	128	708	1216	2086
		1.63%	6.14%	33.94%	58.29%	100.00%
	고1	28	163	818	1503	2512
		1.11%	6.49%	32.56%	59.83%	100.00%
	고2	27	144	655	1234	2060
		1.31%	6.99%	31.80%	59.90%	100.00%
	고3	34	78	398	665	1175
		2.89%	6.64%	33.87%	56.60%	100.00%
	무응답	65	393	1325	2137	3920
		1.66%	10.03%	33.80%	54.52%	100.00%
	전체	336	1847	7691	13067	22941
		1.46%	8.05%	33.53%	56.96%	100.00%

〈표 108〉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3	19	73	127	222
		1.35%	8.56%	32.88%	57.21%	100.00%
	거제	18	108	516	764	1406
		1.28%	7.68%	36.70%	54.34%	100.00%
	거창	6	32	150	302	490
		1.22%	6.53%	30.61%	61.63%	100.00%
	김해	39	232	812	1340	2423
		1.61%	9.57%	33.51%	55.30%	100.00%
	남해	1	8	89	167	265
		0.38%	3.02%	33.58%	63.02%	100.00%
	밀양	11	46	191	263	511
		2.15%	9.00%	37.38%	51.47%	100.00%
	사천	8	38	230	348	624
		1.28%	6.09%	36.86%	55.77%	100.00%
	산청	3	6	28	98	135
		2.22%	4.44%	20.74%	72.59%	100.00%
	양산	19	154	564	988	1725
		1.10%	8.93%	32.70%	57.28%	100.00%
	의령	3	11	65	141	220
		1.36%	5.00%	29.55%	64.09%	100.00%
	진주	43	203	933	1682	2861
		1.50%	7.10%	32.61%	58.79%	100.00%
	창녕	4	22	138	327	491
		0.81%	4.48%	28.11%	66.60%	100.00%
	창원	91	478	2032	3373	5974
		1.52%	8.00%	34.01%	56.46%	100.00%
	통영	10	41	217	319	587
		1.70%	6.98%	36.97%	54.34%	100.00%
하동	5	21	129	267	422	
	1.18%	4.98%	30.57%	63.27%	100.00%	
함안	4	22	97	170	293	
	1.37%	7.51%	33.11%	58.02%	100.00%	
함양	1	8	57	109	175	
	0.57%	4.57%	32.57%	62.29%	100.00%	
합천	2	5	45	145	197	
	1.02%	2.54%	22.84%	73.60%	100.00%	
무응답	65	393	1325	2137	3920	
	1.66%	10.03%	33.80%	54.52%	100.00%	
전체	336	1847	7691	13067	22941	
	1.46%	8.05%	33.53%	56.96%	100.00%	

〈표 109〉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68	997	3962	6520	11647
		1.44%	8.56%	34.02%	55.98%	100.00%
	읍, 면지역	103	457	2404	4410	7374
		1.40%	6.20%	32.60%	59.80%	100.00%
	무응답	65	393	1325	2137	3920
		1.66%	10.03%	33.80%	54.52%	100.00%
전체	336	1847	7691	13067	22941	
	1.46%	8.05%	33.53%	56.96%	100.00%	

〈표 110〉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은 헤어 스타일, 옷, 장식품이나 소지품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38	751	3007	5016	8912
		1.55%	8.43%	33.74%	56.28%	100.00%
	사립	76	385	1868	3310	5639
		1.35%	6.83%	33.13%	58.70%	100.00%
	모름	57	318	1491	2604	4470
		1.28%	7.11%	33.36%	58.26%	100.00%
무응답	65	393	1325	2137	3920	
	1.66%	10.03%	33.80%	54.52%	100.00%	
전체	336	1847	7691	13067	22941	
	1.46%	8.05%	33.53%	56.96%	100.00%	

〈표 111〉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성별	남성	50	176	1987	5678	7891
		0.63%	2.23%	25.18%	71.96%	100.00%
	여성	29	146	2162	8665	11002
		0.26%	1.33%	19.65%	78.76%	100.00%
	기타	3	1	18	106	128
		2.34%	0.78%	14.06%	82.81%	100.00%
	무응답	43	104	1001	2772	3920
		1.10%	2.65%	25.54%	70.71%	100.00%
	전체	125	427	5168	17221	22941
		0.54%	1.86%	22.53%	75.07%	100.00%

〈표 112〉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년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년	초5	10	67	646	1554	2277
		0.44%	2.94%	28.37%	68.25%	100.00%
	초6	14	82	769	2476	3341
		0.42%	2.45%	23.02%	74.11%	100.00%
	중1	9	57	696	2352	3114
		0.29%	1.83%	22.35%	75.53%	100.00%
	중2	8	41	558	1849	2456
		0.33%	1.67%	22.72%	75.29%	100.00%
	중3	8	26	430	1622	2086
		0.38%	1.25%	20.61%	77.76%	100.00%
	고1	9	20	469	2014	2512
		0.36%	0.80%	18.67%	80.18%	100.00%
	고2	6	18	401	1635	2060
		0.29%	0.87%	19.47%	79.37%	100.00%
	고3	18	12	198	947	1175
		1.53%	1.02%	16.85%	80.60%	100.00%
	무응답	43	104	1001	2772	3920
		1.10%	2.65%	25.54%	70.71%	100.00%
	전체	125	427	5168	17221	22941
		0.54%	1.86%	22.53%	75.07%	100.00%

〈표 113〉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별 응답)

		매우반대한다	조금반대한다	조금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	고성	1	1	40	180	222
		0.45%	0.45%	18.02%	81.08%	100.00%
	거제	7	41	354	1004	1406
		0.50%	2.92%	25.18%	71.41%	100.00%
	거창	1	7	108	374	490
		0.20%	1.43%	22.04%	76.33%	100.00%
	김해	8	46	534	1835	2423
		0.33%	1.90%	22.04%	75.73%	100.00%
	남해	0	3	56	206	265
		0.00%	1.13%	21.13%	77.74%	100.00%
	밀양	2	8	130	371	511
		0.39%	1.57%	25.44%	72.60%	100.00%
	사천	3	5	129	487	624
		0.48%	0.80%	20.67%	78.04%	100.00%
	산청	0	3	29	103	135
		0.00%	2.22%	21.48%	76.30%	100.00%
	양산	6	29	361	1329	1725
		0.35%	1.68%	20.93%	77.04%	100.00%
	의령	1	5	49	165	220
		0.45%	2.27%	22.27%	75.00%	100.00%
	진주	20	48	578	2215	2861
		0.70%	1.68%	20.20%	77.42%	100.00%
	창녕	1	4	90	396	491
		0.20%	0.81%	18.33%	80.65%	100.00%
	창원	26	102	1326	4520	5974
		0.44%	1.71%	22.20%	75.66%	100.00%
	통영	2	8	147	430	587
		0.34%	1.36%	25.04%	73.25%	100.00%
하동	2	3	92	325	422	
	0.47%	0.71%	21.80%	77.01%	100.00%	
함안	0	5	69	219	293	
	0.00%	1.71%	23.55%	74.74%	100.00%	
함양	1	3	49	122	175	
	0.57%	1.71%	28.00%	69.71%	100.00%	
합천	1	2	26	168	197	
	0.51%	1.02%	13.20%	85.28%	100.00%	
무응답	43	104	1001	2772	3920	
	1.10%	2.65%	25.54%	70.71%	100.00%	
전체	125	427	5168	17221	22941	
	0.54%	1.86%	22.53%	75.07%	100.00%	

<표 114>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읍, 면별 응답)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54	211	2548	8834	11647
		0.46%	1.81%	21.88%	75.85%	100.00%
	읍, 면지역	28	112	1619	5615	7374
		0.38%	1.52%	21.96%	76.15%	100.00%
	무응답	43	104	1001	2772	3920
		1.10%	2.65%	25.54%	70.71%	100.00%
	전체	125	427	5168	17221	22941
		0.54%	1.86%	22.53%	75.07%	100.00%

<표 115> 5.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및 회의나 집회 등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설립유형별 응답)

		매우 반대한다	조금 반대한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45	162	1895	6810	8912
		0.50%	1.82%	21.26%	76.41%	100.00%
	사립	20	57	1126	4436	5639
		0.35%	1.01%	19.97%	78.67%	100.00%
	모름	17	104	1146	3203	4470
		0.38%	2.33%	25.64%	71.66%	100.00%
	무응답	43	104	1001	2772	3920
		1.10%	2.65%	25.54%	70.71%	100.00%
	전체	125	427	5168	17221	22941
		0.54%	1.86%	22.53%	75.07%	100.00%

<표 116>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성	319	706	3457	3409	7891
		4.04%	8.95%	43.81%	43.20%	100.00%
	여성	522	1299	5437	3744	11002
		4.74%	11.81%	49.42%	34.03%	100.00%
	기타	18	21	51	38	128
		14.06%	16.41%	39.84%	29.69%	100.00%
무응답	173	383	1833	1531	3920	
	4.41%	9.77%	46.76%	39.06%	100.00%	
전체	1032	2409	10778	8722	22941	
	4.50%	10.50%	46.98%	38.02%	100.00%	

<표 117>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년별 응답)

		전혀 그렇지않다	조금 그렇지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년	초5	19	89	996	1173	2277
		0.83%	3.91%	43.74%	51.52%	100.00%
	초6	49	183	1444	1665	3341
		1.47%	5.48%	43.22%	49.84%	100.00%
	중1	80	270	1469	1295	3114
		2.57%	8.67%	47.17%	41.59%	100.00%
	중2	121	313	1258	764	2456
		4.93%	12.74%	51.22%	31.11%	100.00%
	중3	111	240	1093	642	2086
		5.32%	11.51%	52.40%	30.78%	100.00%
	고1	108	341	1276	787	2512
		4.30%	13.57%	50.80%	31.33%	100.00%
	고2	201	353	934	572	2060
		9.76%	17.14%	45.34%	27.77%	100.00%
	고3	170	237	475	293	1175
		14.47%	20.17%	40.43%	24.94%	100.00%
	무응답	173	383	1833	1531	3920
		4.41%	9.77%	46.76%	39.06%	100.00%
전체	1032	2409	10778	8722	22941	
	4.50%	10.50%	46.98%	38.02%	100.00%	

<표 118>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8	18	99	97	222
		3.60%	8.11%	44.59%	43.69%	100.00%
	거제	44	106	695	561	1406
		3.13%	7.54%	49.43%	39.90%	100.00%
	거창	21	60	239	170	490
		4.29%	12.24%	48.78%	34.69%	100.00%
	김해	100	272	1165	886	2423
		4.13%	11.23%	48.08%	36.57%	100.00%
	남해	5	26	107	127	265
		1.89%	9.81%	40.38%	47.92%	100.00%
	밀양	32	64	226	189	511
		6.26%	12.52%	44.23%	36.99%	100.00%
	사천	25	53	296	250	624
		4.01%	8.49%	47.44%	40.06%	100.00%
	산청	4	6	52	73	135
		2.96%	4.44%	38.52%	54.07%	100.00%
	양산	124	220	828	553	1725
		7.19%	12.75%	48.00%	32.06%	100.00%
	의령	9	23	110	78	220
		4.09%	10.45%	50.00%	35.45%	100.00%
	진주	149	334	1335	1043	2861
		5.21%	11.67%	46.66%	36.46%	100.00%
	창녕	11	42	204	234	491
		2.24%	8.55%	41.55%	47.66%	100.00%
	창원	276	643	2877	2178	5974
		4.62%	10.76%	48.16%	36.46%	100.00%
	통영	19	61	266	241	587
		3.24%	10.39%	45.32%	41.06%	100.00%
하동	13	42	157	210	422	
	3.08%	9.95%	37.20%	49.76%	100.00%	
함안	8	20	128	137	293	
	2.73%	6.83%	43.69%	46.76%	100.00%	
함양	10	19	81	65	175	
	5.71%	10.86%	46.29%	37.14%	100.00%	
합천	1	17	80	99	197	
	0.51%	8.63%	40.61%	50.25%	100.00%	
무응답	173	383	1833	1531	3920	
	4.41%	9.77%	46.76%	39.06%	100.00%	
전체	1032	2409	10778	8722	22941	
	4.50%	10.50%	46.98%	38.02%	100.00%	

〈표 119〉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읍, 면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589	1325	5592	4141	11647
		5.06%	11.38%	48.01%	35.55%	100.00%
	읍, 면지역	270	701	3353	3050	7374
		3.66%	9.51%	45.47%	41.36%	100.00%
	무응답	173	383	1833	1531	3920
		4.41%	9.77%	46.76%	39.06%	100.00%
전체	1032	2409	10778	8722	22941	
	4.50%	10.50%	46.98%	38.02%	100.00%	

〈표 120〉 6.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375	871	4128	3538	8912
		4.21%	9.77%	46.32%	39.70%	100.00%
	사립	369	791	2718	1761	5639
		6.54%	14.03%	48.20%	31.23%	100.00%
	모르겠다	115	364	2099	1892	4470
		2.57%	8.14%	46.96%	42.33%	100.00%
	무응답	173	383	1833	1531	3920
		4.41%	9.77%	46.76%	39.06%	100.00%
	전체	1032	2409	10778	8722	22941
		4.50%	10.50%	46.98%	38.02%	100.00%

〈표 121〉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6678	1213	0	7891
		84.63%	15.37%	0.00%	100.00%
	여성	9985	1017	0	11002
		90.76%	9.24%	0.00%	100.00%
	기타	100	28	0	128
		78.12%	21.88%	0.00%	100.00%
무응답	1413	168	2339	3920	
	36.05%	4.29%	59.67%	100.00%	
전체	무응답 포함	18176	2426	2339	22941
		79.23%	10.57%	10.20%	100.00%
	무응답 제외	18176	2426		20,602
		88.22%	11.78%		100.00%

〈표 122〉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147	130	0	2277
		94.29%	5.71%	0.00%	100.00%
	초6	3117	224	0	3341
		93.30%	6.70%	0.00%	100.00%
	중1	2797	317	0	3114
		89.82%	10.18%	0.00%	100.00%
	중2	2148	308	0	2456
		87.46%	12.54%	0.00%	100.00%
	중3	1770	316	0	2086
		84.85%	15.15%	0.00%	100.00%
	고1	2111	401	0	2512
		84.04%	15.96%	0.00%	100.00%
	고2	1747	313	0	2060
		84.81%	15.19%	0.00%	100.00%
	고3	926	249	0	1175
		78.81%	21.19%	0.00%	100.00%
	무응답	1413	168	2339	3920
		36.05%	4.29%	59.67%	100.00%
전체	무응답 포함	18176	2426	2339	22941
		79.23%	10.57%	10.20%	100.00%
	무응답 제외	18176	2426		20,602
		88.22%	11.78%		100.00%

〈표 123〉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204	18	0	222
		91.89%	8.11%	0.00%	100.00%
	거제	1282	124	0	1406
		91.18%	8.82%	0.00%	100.00%
	거창	413	77	0	490
		84.29%	15.71%	0.00%	100.00%
	김해	2141	282	0	2423
		88.36%	11.64%	0.00%	100.00%
	남해	237	28	0	265
		89.43%	10.57%	0.00%	100.00%
	밀양	424	87	0	511
		82.97%	17.03%	0.00%	100.00%
	사천	555	69	0	624
		88.94%	11.06%	0.00%	100.00%
	산청	113	22	0	135
		83.70%	16.30%	0.00%	100.00%
	양산	1533	192	0	1725
		88.87%	11.13%	0.00%	100.00%
	의령	201	19	0	220
		91.36%	8.64%	0.00%	100.00%
진주	2471	390	0	2861	
	86.37%	13.63%	0.00%	100.00%	
창녕	432	59	0	491	
	87.98%	12.02%	0.00%	100.00%	
창원	5271	703	0	5974	
	88.23%	11.77%	0.00%	100.00%	
통영	509	78	0	587	
	86.71%	13.29%	0.00%	100.00%	
하동	386	36	0	422	
	91.47%	8.53%	0.00%	100.00%	
함안	266	27	0	293	
	90.78%	9.22%	0.00%	100.00%	
함양	151	24	0	175	
	86.29%	13.71%	0.00%	100.00%	
합천	174	23	0	197	
	88.32%	11.68%	0.00%	100.00%	
무응답	1413	168	2339	3920	
	36.05%	4.29%	59.67%	100.00%	
전 체	무응답 포함	18176	2426	2339	22941
		79.23%	10.57%	10.20%	100.00%
	무응답 제외	18176	2426		20,602
		88.22%	11.78%		100.00%

〈표 124〉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0187	1460	0	11647
		87.46%	12.54%	0.00%	100.00%
	읍, 면지역	6576	798	0	7374
		89.18%	10.82%	0.00%	100.00%
	무응답	1413	168	2339	3920
		36.05%	4.29%	59.67%	100.00%
전 체	무응답 포함	18176	2426	2339	22941
		79.23%	10.57%	10.20%	100.00%
	무응답 제외	18176	2426		20,602
		88.22%	11.78%		100.00%

〈표 125〉 7. 선생님에게 직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8014	898	0	8912	
		89.92%	10.08%	0.00%	100.00%	
	사립	4669	970	0	5639	
		82.80%	17.20%	0.00%	100.00%	
	모르겠다	4080	390	0	4470	
		91.28%	8.72%	0.00%	100.00%	
	무응답	1413	168	2339	3920	
		36.05%	4.29%	59.67%	100.00%	
	전 체	무응답 포함	18176	2426	2339	22941
			79.23%	10.57%	10.20%	100.00%
무응답 제외		18176	2426		20,602	
		88.22%	11.78%		100.00%	

〈표 126〉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5834	2057	0	7891
		73.93%	26.07%	0.00%	100.00%
	여성	8629	2373	0	11002
		78.43%	21.57%	0.00%	100.00%
	기타	88	40	0	128
		68.75%	31.25%	0.00%	100.00%
	무응답	1232	349	2339	3920
		31.43%	8.90%	59.67%	100.00%
	전체	15783	4819	2339	22941
		68.80%	21.01%	10.20%	100.00%

〈표 127〉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1945	332	0	2277
		85.42%	14.58%	0.00%	100.00%
	초6	2801	540	0	3341
		83.84%	16.16%	0.00%	100.00%
	중1	2376	738	0	3114
		76.30%	23.70%	0.00%	100.00%
	중2	1812	644	0	2456
		73.78%	26.22%	0.00%	100.00%
	중3	1486	600	0	2086
		71.24%	28.76%	0.00%	100.00%
	고1	1819	693	0	2512
		72.41%	27.59%	0.00%	100.00%
	고2	1549	511	0	2060
		75.19%	24.81%	0.00%	100.00%
	고3	763	412	0	1175
		64.94%	35.06%	0.00%	100.00%
	무응답	1232	349	2339	3920
		31.43%	8.90%	59.67%	100.00%
	전체	15783	4819	2339	22941
		68.80%	21.01%	10.20%	100.00%

〈표 128〉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90	32	0	222
		85.59%	14.41%	0.00%	100.00%
	거제	1116	290	0	1406
		79.37%	20.63%	0.00%	100.00%
	거창	323	167	0	490
		65.92%	34.08%	0.00%	100.00%
	김해	1857	566	0	2423
		76.64%	23.36%	0.00%	100.00%
	남해	227	38	0	265
		85.66%	14.34%	0.00%	100.00%
	밀양	363	148	0	511
		71.04%	28.96%	0.00%	100.00%
	사천	482	142	0	624
		77.24%	22.76%	0.00%	100.00%
	산청	99	36	0	135
		73.33%	26.67%	0.00%	100.00%
	양산	1351	374	0	1725
		78.32%	21.68%	0.00%	100.00%
	의령	177	43	0	220
		80.45%	19.55%	0.00%	100.00%
	진주	2152	709	0	2861
		75.22%	24.78%	0.00%	100.00%
	창녕	372	119	0	491
		75.76%	24.24%	0.00%	100.00%
	창원	4565	1409	0	5974
		76.41%	23.59%	0.00%	100.00%
	통영	421	166	0	587
		71.72%	28.28%	0.00%	100.00%
하동	338	84	0	422	
	80.09%	19.91%	0.00%	100.00%	
함안	235	58	0	293	
	80.20%	19.80%	0.00%	100.00%	
함양	132	43	0	175	
	75.43%	24.57%	0.00%	100.00%	
합천	151	46	0	197	
	76.65%	23.35%	0.00%	100.00%	
무응답	1232	349	2339	3920	
	31.43%	8.90%	59.67%	100.00%	
전체	15783	4819	2339	22941	
	68.80%	21.01%	10.20%	100.00%	

〈표 129〉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8804	2843	0	11647
		75.59%	24.41%	0.00%	100.00%
	읍, 면지역	5747	1627	0	7374
		77.94%	22.06%	0.00%	100.00%
	무응답	1232	349	2339	3920
		31.43%	8.90%	59.67%	100.00%
전체	15783	4819	2339	22941	
	68.80%	21.01%	10.20%	100.00%	

〈표 130〉 8. 선생님에게 간접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6962	1950	0	8912
		78.12%	21.88%	0.00%	100.00%
	사립	3950	1689	0	5639
		70.05%	29.95%	0.00%	100.00%
	모르겠다	3639	831	0	4470
		81.41%	18.59%	0.00%	100.00%
무응답	1232	349	2339	3920	
	31.43%	8.90%	59.67%	100.00%	
전체	15783	4819	2339	22941	
	68.80%	21.01%	10.20%	100.00%	

<표 131>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6488	1403	0	7891
		82.22%	17.78%	0.00%	100.00%
	여성	9121	1881	0	11002
		82.90%	17.10%	0.00%	100.00%
	기타	86	42	0	128
		67.19%	32.81%	0.00%	100.00%
	무응답	1298	283	2339	3920
		33.11%	7.22%	59.67%	100.00%
	전체	16993	3609	2339	22941
		74.07%	15.73%	10.20%	100.00%

<표 132>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114	163	0	2277
		92.84%	7.16%	0.00%	100.00%
	초6	3050	291	0	3341
		91.29%	8.71%	0.00%	100.00%
	중1	2682	432	0	3114
		86.13%	13.87%	0.00%	100.00%
	중2	1991	465	0	2456
		81.07%	18.93%	0.00%	100.00%
	중3	1659	427	0	2086
		79.53%	20.47%	0.00%	100.00%
	고1	1944	568	0	2512
		77.39%	22.61%	0.00%	100.00%
	고2	1538	522	0	2060
		74.66%	25.34%	0.00%	100.00%
	고3	717	458	0	1175
		61.02%	38.98%	0.00%	100.00%
	무응답	1298	283	2339	3920
		33.11%	7.22%	59.67%	100.00%
	전체	16993	3609	2339	22941
		74.07%	15.73%	10.20%	100.00%

<표 133>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89	33	0	222
		85.14%	14.86%	0.00%	100.00%
	거제	1220	186	0	1406
		86.77%	13.23%	0.00%	100.00%
	거창	394	96	0	490
		80.41%	19.59%	0.00%	100.00%
	김해	2003	420	0	2423
		82.67%	17.33%	0.00%	100.00%
	남해	221	44	0	265
		83.40%	16.60%	0.00%	100.00%
	밀양	406	105	0	511
		79.45%	20.55%	0.00%	100.00%
	사천	525	99	0	624
		84.13%	15.87%	0.00%	100.00%
	산청	116	19	0	135
		85.93%	14.07%	0.00%	100.00%
	양산	1407	318	0	1725
		81.57%	18.43%	0.00%	100.00%
	의령	187	33	0	220
		85.00%	15.00%	0.00%	100.00%
진주	2258	603	0	2861	
	78.92%	21.08%	0.00%	100.00%	
창녕	412	79	0	491	
	83.91%	16.09%	0.00%	100.00%	
창원	4953	1021	0	5974	
	82.91%	17.09%	0.00%	100.00%	
통영	484	103	0	587	
	82.45%	17.55%	0.00%	100.00%	
하동	351	71	0	422	
	83.18%	16.82%	0.00%	100.00%	
함안	257	36	0	293	
	87.71%	12.29%	0.00%	100.00%	
함양	140	35	0	175	
	80.00%	20.00%	0.00%	100.00%	
합천	172	25	0	197	
	87.31%	12.69%	0.00%	100.00%	
무응답	1298	283	2339	3920	
	33.11%	7.22%	59.67%	100.00%	
전체	16993	3609	2339	22941	
	74.07%	15.73%	10.20%	100.00%	

<표 134>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9463	2184	0	11647
		81.25%	18.75%	0.00%	100.00%
	읍, 면지역	6232	1142	0	7374
		84.51%	15.49%	0.00%	100.00%
	무응답	1298	283	2339	3920
		33.11%	7.22%	59.67%	100.00%
전체	16993	3609	2339	22941	
	74.07%	15.73%	10.20%	100.00%	

<표 135> 9.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7428	1484	0	8912
		83.35%	16.65%	0.00%	100.00%
	사립	4303	1336	0	5639
		76.31%	23.69%	0.00%	100.00%
	모르겠 다	3964	506	0	4470
		88.68%	11.32%	0.00%	100.00%
	무응답	1298	283	2339	3920
		33.11%	7.22%	59.67%	100.00%
전체	16993	3609	2339	22941	
	74.07%	15.73%	10.20%	100.00%	

<표 136>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7424	467	0	7891
		94.08%	5.92%	0.00%	100.00%
	여성	10328	674	0	11002
		93.87%	6.13%	0.00%	100.00%
	기타	115	13	0	128
		89.84%	10.16%	0.00%	100.00%
	무응답	1493	88	2339	3920
		38.09%	2.24%	59.67%	100.00%
	전체	19360	1242	2339	22941
		84.39%	5.41%	10.20%	100.00%

<표 137>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216	61	0	2277
		97.32%	2.68%	0.00%	100.00%
	초6	3240	101	0	3341
		96.98%	3.02%	0.00%	100.00%
	중1	3021	93	0	3114
		97.01%	2.99%	0.00%	100.00%
	중2	2338	118	0	2456
		95.20%	4.80%	0.00%	100.00%
	중3	1926	160	0	2086
		92.33%	7.67%	0.00%	100.00%
	고1	2292	220	0	2512
		91.24%	8.76%	0.00%	100.00%
	고2	1821	239	0	2060
		88.40%	11.60%	0.00%	100.00%
	고3	1013	162	0	1175
		86.21%	13.79%	0.00%	100.00%
	무응답	1493	88	2339	3920
		38.09%	2.24%	59.67%	100.00%
	전체	19360	1242	2339	22941
		84.39%	5.41%	10.20%	100.00%

〈표 138〉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215	7	0	222
		96.85%	3.15%	0.00%	100.00%
	거제	1350	56	0	1406
		96.02%	3.98%	0.00%	100.00%
	거창	470	20	0	490
		95.92%	4.08%	0.00%	100.00%
	김해	2297	126	0	2423
		94.80%	5.20%	0.00%	100.00%
	남해	249	16	0	265
		93.96%	6.04%	0.00%	100.00%
	밀양	462	49	0	511
		90.41%	9.59%	0.00%	100.00%
	사천	592	32	0	624
		94.87%	5.13%	0.00%	100.00%
	산청	131	4	0	135
		97.04%	2.96%	0.00%	100.00%
	양산	1553	172	0	1725
		90.03%	9.97%	0.00%	100.00%
	의령	209	11	0	220
		95.00%	5.00%	0.00%	100.00%
진주	2595	266	0	2861	
	90.70%	9.30%	0.00%	100.00%	
창녕	477	14	0	491	
	97.15%	2.85%	0.00%	100.00%	
창원	5652	322	0	5974	
	94.61%	5.39%	0.00%	100.00%	
통영	560	27	0	587	
	95.40%	4.60%	0.00%	100.00%	
하동	413	9	0	422	
	97.87%	2.13%	0.00%	100.00%	
함안	277	16	0	293	
	94.54%	5.46%	0.00%	100.00%	
함양	169	6	0	175	
	96.57%	3.43%	0.00%	100.00%	
합천	196	1	0	197	
	99.49%	0.51%	0.00%	100.00%	
무응답	1493	88	2339	3920	
	38.09%	2.24%	59.67%	100.00%	
전체	19360	1242	2339	22941	
	84.39%	5.41%	10.20%	100.00%	

<표 139>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0870	777	0	11647
		93.33%	6.67%	0.00%	100.00%
	읍, 면지역	6997	377	0	7374
		94.89%	5.11%	0.00%	100.00%
	무응답	1493	88	2339	3920
		38.09%	2.24%	59.67%	100.00%
전체	19360	1242	2339	22941	
	84.39%	5.41%	10.20%	100.00%	

<표 140> 10. 학교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8424	488	0	8912
		94.52%	5.48%	0.00%	100.00%
	사립	5173	466	0	5639
		91.74%	8.26%	0.00%	100.00%
	모름	4270	200	0	4470
		95.53%	4.47%	0.00%	100.00%
	무응답	1493	88	2339	3920
		38.09%	2.24%	59.67%	100.00%
전체	19360	1242	2339	22941	
	84.39%	5.41%	10.20%	100.00%	

〈표 141〉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색니까? (성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2417	5474	0	7891
		30.63%	69.37%	0.00%	100.00%
	여성	3191	7811	0	11002
		29.00%	71.00%	0.00%	100.00%
	기타	25	103	0	128
		19.53%	80.47%	0.00%	100.00%
	무응답	485	1096	2339	3920
		12.37%	27.96%	59.67%	100.00%
	전체	6118	14484	2339	22941
		26.67%	63.14%	10.20%	100.00%

〈표 142〉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색니까? (학년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1970	307	0	2277
		86.52%	13.48%	0.00%	100.00%
	초6	2757	584	0	3341
		82.52%	17.48%	0.00%	100.00%
	중1	105	3009	0	3114
		3.37%	96.63%	0.00%	100.00%
	중2	74	2382	0	2456
		3.01%	96.99%	0.00%	100.00%
	중3	63	2023	0	2086
		3.02%	96.98%	0.00%	100.00%
	고1	250	2262	0	2512
		9.95%	90.05%	0.00%	100.00%
	고2	260	1800	0	2060
		12.62%	87.38%	0.00%	100.00%
	고3	154	1021	0	1175
		13.11%	86.89%	0.00%	100.00%
	무응답	485	1096	2339	3920
		12.37%	27.96%	59.67%	100.00%
	전체	6118	14484	2339	22941
		26.67%	63.14%	10.20%	100.00%

〈표 143〉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지역별 응답)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48	174	0	222
		21.62%	78.38%	0.00%	100.00%
	거제	649	757	0	1406
		46.16%	53.84%	0.00%	100.00%
	거창	84	406	0	490
		17.14%	82.86%	0.00%	100.00%
	김해	643	1780	0	2423
		26.54%	73.46%	0.00%	100.00%
	남해	98	167	0	265
		36.98%	63.02%	0.00%	100.00%
	밀양	173	338	0	511
		33.86%	66.14%	0.00%	100.00%
	사천	273	351	0	624
		43.75%	56.25%	0.00%	100.00%
	산청	81	54	0	135
		60.00%	40.00%	0.00%	100.00%
	양산	269	1456	0	1725
		15.59%	84.41%	0.00%	100.00%
	의령	77	143	0	220
		35.00%	65.00%	0.00%	100.00%
	진주	840	2021	0	2861
		29.36%	70.64%	0.00%	100.00%
	창녕	201	290	0	491
		40.94%	59.06%	0.00%	100.00%
	창원	1622	4352	0	5974
		27.15%	72.85%	0.00%	100.00%
	통영	98	489	0	587
		16.70%	83.30%	0.00%	100.00%
하동	218	204	0	422	
	51.66%	48.34%	0.00%	100.00%	
함안	142	151	0	293	
	48.46%	51.54%	0.00%	100.00%	
함양	73	102	0	175	
	41.71%	58.29%	0.00%	100.00%	
합천	44	153	0	197	
	22.34%	77.66%	0.00%	100.00%	
무응답	485	1096	2339	3920	
	12.37%	27.96%	59.67%	100.00%	
전체	6118	14484	2339	22941	
	26.67%	63.14%	10.20%	100.00%	

<표 144>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3215	8432	0	11647
		27.60%	72.40%	0.00%	100.00%
	읍, 면지역	2418	4956	0	7374
		32.79%	67.21%	0.00%	100.00%
	무응답	485	1096	2339	3920
		12.37%	27.96%	59.67%	100.00%
전체	6118	14484	2339	22941	
	26.67%	63.14%	10.20%	100.00%	

<표 145> 11.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건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3212	5700	0	8912
		36.04%	63.96%	0.00%	100.00%
	사립	588	5051	0	5639
		10.43%	89.57%	0.00%	100.00%
	모름	1833	2637	0	4470
		41.01%	58.99%	0.00%	100.00%
	무응답	485	1096	2339	3920
		12.37%	27.96%	59.67%	100.00%
전체	6118	14484	2339	22941	
	26.67%	63.14%	10.20%	100.00%	

<표 146>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성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2791	5100	0	7891
		35.37%	64.63%	0.00%	100.00%
	여성	3152	7850	0	11002
		28.65%	71.35%	0.00%	100.00%
	기타	29	99	0	128
		22.66%	77.34%	0.00%	100.00%
	무응답	518	1063	2339	3920
		13.21%	27.12%	59.67%	100.00%
	전체	6490	14112	2339	22941
		28.29%	61.51%	10.20%	100.00%

<표 147>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학년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1363	914	0	2277
		59.86%	40.14%	0.00%	100.00%
	초6	2041	1300	0	3341
		61.09%	38.91%	0.00%	100.00%
	중1	974	2140	0	3114
		31.28%	68.72%	0.00%	100.00%
	중2	557	1899	0	2456
		22.68%	77.32%	0.00%	100.00%
	중3	325	1761	0	2086
		15.58%	84.42%	0.00%	100.00%
	고1	359	2153	0	2512
		14.29%	85.71%	0.00%	100.00%
	고2	226	1834	0	2060
		10.97%	89.03%	0.00%	100.00%
	고3	127	1048	0	1175
		10.81%	89.19%	0.00%	100.00%
	무응답	518	1063	2339	3920
		13.21%	27.12%	59.67%	100.00%
	전체	6490	14112	2339	22941
		28.29%	61.51%	10.20%	100.00%

〈표 148〉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지역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 의 위치	고성	100	122	0	222
		45.05%	54.95%	0.00%	100.00%
	거제	515	891	0	1406
		36.63%	63.37%	0.00%	100.00%
	거창	125	365	0	490
		25.51%	74.49%	0.00%	100.00%
	김해	657	1766	0	2423
		27.12%	72.88%	0.00%	100.00%
	남해	111	154	0	265
		41.89%	58.11%	0.00%	100.00%
	밀양	205	306	0	511
		40.12%	59.88%	0.00%	100.00%
	사천	221	403	0	624
		35.42%	64.58%	0.00%	100.00%
	산청	95	40	0	135
		70.37%	29.63%	0.00%	100.00%
	양산	358	1367	0	1725
		20.75%	79.25%	0.00%	100.00%
	의령	85	135	0	220
		38.64%	61.36%	0.00%	100.00%
	진주	873	1988	0	2861
		30.51%	69.49%	0.00%	100.00%
	창녕	213	278	0	491
		43.38%	56.62%	0.00%	100.00%
	창원	1738	4236	0	5974
		29.09%	70.91%	0.00%	100.00%
	통영	187	400	0	587
		31.86%	68.14%	0.00%	100.00%
하동	184	238	0	422	
	43.60%	56.40%	0.00%	100.00%	
함안	118	175	0	293	
	40.27%	59.73%	0.00%	100.00%	
함양	73	102	0	175	
	41.71%	58.29%	0.00%	100.00%	
합천	114	83	0	197	
	57.87%	42.13%	0.00%	100.00%	
무응답	518	1063	2339	3920	
	13.21%	27.12%	59.67%	100.00%	
전체	6490	14112	2339	22941	
	28.29%	61.51%	10.20%	100.00%	

<표 149>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3147	8500	0	11647
		27.02%	72.98%	0.00%	100.00%
	읍, 면지역	2825	4549	0	7374
		38.31%	61.69%	0.00%	100.00%
	무응답	518	1063	2339	3920
		13.21%	27.12%	59.67%	100.00%
전체	6490	14112	2339	22941	
	28.29%	61.51%	10.20%	100.00%	

<표 150> 12.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 교문 지도를 합니까? (설립유별 응답)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2961	5951	0	8912
		33.22%	66.78%	0.00%	100.00%
	사립	1096	4543	0	5639
		19.44%	80.56%	0.00%	100.00%
	모름	1915	2555	0	4470
		42.84%	57.16%	0.00%	100.00%
무응답	518	1063	2339	3920	
	13.21%	27.12%	59.67%	100.00%	
전체	6490	14112	2339	22941	
	28.29%	61.51%	10.20%	100.00%	

〈표 151〉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5564	2327	0	7891
		70.51%	29.49%	0.00%	100.00%
	여성	6637	4365	0	11002
		60.33%	39.67%	0.00%	100.00%
	기타	67	61	0	128
		52.34%	47.66%	0.00%	100.00%
	무응답	1051	530	2339	3920
		26.81%	13.52%	59.67%	100.00%
	전체	13319	7283	2339	22941
		58.06%	31.75%	10.20%	100.00%

〈표 152〉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035	242	0	2277
		89.37%	10.63%	0.00%	100.00%
	초6	2992	349	0	3341
		89.55%	10.45%	0.00%	100.00%
	중1	2269	845	0	3114
		72.86%	27.14%	0.00%	100.00%
	중2	1264	1192	0	2456
		51.47%	48.53%	0.00%	100.00%
	중3	994	1092	0	2086
		47.65%	52.35%	0.00%	100.00%
	고1	1458	1054	0	2512
		58.04%	41.96%	0.00%	100.00%
	고2	821	1239	0	2060
		39.85%	60.15%	0.00%	100.00%
	고3	435	740	0	1175
		37.02%	62.98%	0.00%	100.00%
	무응답	1051	530	2339	3920
		26.81%	13.52%	59.67%	100.00%
	전체	13319	7283	2339	22941
		58.06%	31.75%	10.20%	100.00%

<표 153>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 의 위치	고성	185	37	0	222
		83.33%	16.67%	0.00%	100.00%
	거제	1084	322	0	1406
		77.10%	22.90%	0.00%	100.00%
	거창	273	217	0	490
		55.71%	44.29%	0.00%	100.00%
	김해	1452	971	0	2423
		59.93%	40.07%	0.00%	100.00%
	남해	219	46	0	265
		82.64%	17.36%	0.00%	100.00%
	밀양	345	166	0	511
		67.51%	32.49%	0.00%	100.00%
	사천	376	248	0	624
		60.26%	39.74%	0.00%	100.00%
	산청	97	38	0	135
		71.85%	28.15%	0.00%	100.00%
	양산	846	879	0	1725
		49.04%	50.96%	0.00%	100.00%
	의령	104	116	0	220
		47.27%	52.73%	0.00%	100.00%
	진주	1896	965	0	2861
		66.27%	33.73%	0.00%	100.00%
	창녕	351	140	0	491
		71.49%	28.51%	0.00%	100.00%
	창원	3907	2067	0	5974
		65.40%	34.60%	0.00%	100.00%
	통영	359	228	0	587
		61.16%	38.84%	0.00%	100.00%
하동	266	156	0	422	
	63.03%	36.97%	0.00%	100.00%	
함안	225	68	0	293	
	76.79%	23.21%	0.00%	100.00%	
함양	121	54	0	175	
	69.14%	30.86%	0.00%	100.00%	
합천	162	35	0	197	
	82.23%	17.77%	0.00%	100.00%	
무응답	1051	530	2339	3920	
	26.81%	13.52%	59.67%	100.00%	
전체	13319	7283	2339	22941	
	58.06%	31.75%	10.20%	100.00%	

<표 154>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7389	4258	0	11647
		63.44%	36.56%	0.00%	100.00%
	읍, 면지역	4879	2495	0	7374
		66.16%	33.84%	0.00%	100.00%
	무응답	1051	530	2339	3920
		26.81%	13.52%	59.67%	100.00%
전체	13319	7283	2339	22941	
	58.06%	31.75%	10.20%	100.00%	

<표 155> 13. 다니는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5914	2998	0	8912
		66.36%	33.64%	0.00%	100.00%
	사립	2996	2643	0	5639
		53.13%	46.87%	0.00%	100.00%
	모름	3358	1112	0	4470
		75.12%	24.88%	0.00%	100.00%
무응답	1051	530	2339	3920	
	26.81%	13.52%	59.67%	100.00%	
전체	13319	7283	2339	22941	
	58.06%	31.75%	10.20%	100.00%	

<표 156>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별 응답)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성별	남성	3215	1898	252	2526	0	7891
		40.74%	24.05%	3.19%	32.01%	0.00%	100.00%
	여성	3718	2906	408	3970	0	11002
		33.79%	26.41%	3.71%	36.08%	0.00%	100.00%
	기타	52	30	4	42	0	128
		40.62%	23.44%	3.12%	32.81%	0.00%	100.00%
	무응답	605	346	64	566	2339	3920
		15.43%	8.83%	1.63%	14.44%	59.67%	100.00%
	전체	7590	5180	728	7104	2339	22941
		33.08%	22.58%	3.17%	30.97%	10.20%	100.00%

<표 157>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159	81	172	1865	0	2277
		6.98%	3.56%	7.55%	81.91%	0.00%	100.00%
	초6	193	82	186	2880	0	3341
		5.78%	2.45%	5.57%	86.20%	0.00%	100.00%
	중1	1823	882	57	352	0	3114
		58.54%	28.32%	1.83%	11.30%	0.00%	100.00%
	중2	1349	738	73	296	0	2456
		54.93%	30.05%	2.97%	12.05%	0.00%	100.00%
	중3	1281	528	42	235	0	2086
		61.41%	25.31%	2.01%	11.27%	0.00%	100.00%
	고1	794	1324	78	316	0	2512
		31.61%	52.71%	3.11%	12.58%	0.00%	100.00%
	고2	859	767	34	400	0	2060
		41.70%	37.23%	1.65%	19.42%	0.00%	100.00%
	고3	527	432	22	194	0	1175
		44.85%	36.77%	1.87%	16.51%	0.00%	100.00%
	무응답	605	346	64	566	2339	3920
		15.43%	8.83%	1.63%	14.44%	59.67%	100.00%
전체	7590	5180	728	7104	2339	22941	
	33.08%	22.58%	3.17%	30.97%	10.20%	100.00%	

<표 158>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1	56	15	140	0	222
		4.95%	25.23%	6.76%	63.06%	0.00%	100.00%
	거제	449	298	12	647	0	1406
		31.93%	21.19%	0.85%	46.02%	0.00%	100.00%
	거창	174	26	3	287	0	490
		35.51%	5.31%	0.61%	58.57%	0.00%	100.00%
	김해	1407	335	119	562	0	2423
		58.07%	13.83%	4.91%	23.19%	0.00%	100.00%
	남해	39	73	3	150	0	265
		14.72%	27.55%	1.13%	56.60%	0.00%	100.00%
	밀양	156	111	22	222	0	511
		30.53%	21.72%	4.31%	43.44%	0.00%	100.00%
	사천	179	170	18	257	0	624
		28.69%	27.24%	2.88%	41.19%	0.00%	100.00%
	산청	23	25	2	85	0	135
		17.04%	18.52%	1.48%	62.96%	0.00%	100.00%
	양산	1024	435	17	249	0	1725
		59.36%	25.22%	0.99%	14.43%	0.00%	100.00%
	의령	15	118	3	84	0	220
		6.82%	53.64%	1.36%	38.18%	0.00%	100.00%
진주	728	992	56	1085	0	2861	
	25.45%	34.67%	1.96%	37.92%	0.00%	100.00%	
창녕	149	178	12	152	0	491	
	30.35%	36.25%	2.44%	30.96%	0.00%	100.00%	
창원	2323	1540	298	1813	0	5974	
	38.89%	25.78%	4.99%	30.35%	0.00%	100.00%	
통영	161	277	11	138	0	587	
	27.43%	47.19%	1.87%	23.51%	0.00%	100.00%	
하동	40	71	33	278	0	422	
	9.48%	16.82%	7.82%	65.88%	0.00%	100.00%	
함안	77	35	12	169	0	293	
	26.28%	11.95%	4.10%	57.68%	0.00%	100.00%	
함양	13	39	26	97	0	175	
	7.43%	22.29%	14.86%	55.43%	0.00%	100.00%	
합천	17	55	2	123	0	197	
	8.63%	27.92%	1.02%	62.44%	0.00%	100.00%	
무응답	605	346	64	566	2339	3920	
	15.43%	8.83%	1.63%	14.44%	59.67%	100.00%	
전체	7590	5180	728	7104	2339	22941	
	33.08%	22.58%	3.17%	30.97%	10.20%	100.00%	

〈표 159〉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4624	3101	457	3465	0	11647
		39.70%	26.62%	3.92%	29.75%	0.00%	100.00%
	읍, 면지역	2361	1733	207	3073	0	7374
		32.02%	23.50%	2.81%	41.67%	0.00%	100.00%
	무응답	605	346	64	566	2339	3920
		15.43%	8.83%	1.63%	14.44%	59.67%	100.00%
전체	7590	5180	728	7104	2339	22941	
	33.08%	22.58%	3.17%	30.97%	10.20%	100.00%	

〈표 160〉 17. 학교의 교복이나 활동복에 명찰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명찰이 옷에 고정되어 있다	명찰을 떼거나 가릴 수 있는 방식이다	목걸이형 명찰을 사용한다	학교에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3259	1846	277	3530	0	8912
		36.57%	20.71%	3.11%	39.61%	0.00%	100.00%
	사립	2190	2166	200	1083	0	5639
		38.84%	38.41%	3.55%	19.21%	0.00%	100.00%
	모름	1536	822	187	1925	0	4470
		34.36%	18.39%	4.18%	43.06%	0.00%	100.00%
	무응답	605	346	64	566	2339	3920
		15.43%	8.83%	1.63%	14.44%	59.67%	100.00%
	전체	7590	5180	728	7104	2339	22941
		33.08%	22.58%	3.17%	30.97%	10.20%	100.00%

〈표 161〉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성별	남성	5633	1346	912	0	7891
		71.39%	17.06%	11.56%	0.00%	100.00%
	여성	8421	1789	792	0	11002
		76.54%	16.26%	7.20%	0.00%	100.00%
	기타	93	19	16	0	128
		72.66%	14.84%	12.50%	0.00%	100.00%
	무응답	1238	219	124	2339	3920
		31.58%	5.59%	3.16%	59.67%	100.00%
	전체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표 162〉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1840	318	119	0	2277
		80.81%	13.97%	5.23%	0.00%	100.00%
	초6	2735	408	198	0	3341
		81.86%	12.21%	5.93%	0.00%	100.00%
	중1	2317	474	323	0	3114
		74.41%	15.22%	10.37%	0.00%	100.00%
	중2	1896	341	219	0	2456
		77.20%	13.88%	8.92%	0.00%	100.00%
	중3	1602	270	214	0	2086
		76.80%	12.94%	10.26%	0.00%	100.00%
	고1	1762	494	256	0	2512
		70.14%	19.67%	10.19%	0.00%	100.00%
	고2	1340	503	217	0	2060
		65.05%	24.42%	10.53%	0.00%	100.00%
	고3	655	346	174	0	1175
		55.74%	29.45%	14.81%	0.00%	100.00%
	무응답	1238	219	124	2339	3920
		31.58%	5.59%	3.16%	59.67%	100.00%
	전체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표 163〉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46	51	25	0	222
		65.77%	22.97%	11.26%	0.00%	100.00%
	거제	1133	184	89	0	1406
		80.58%	13.09%	6.33%	0.00%	100.00%
	거창	333	97	60	0	490
		67.96%	19.80%	12.24%	0.00%	100.00%
	김해	2006	270	147	0	2423
		82.79%	11.14%	6.07%	0.00%	100.00%
	남해	180	47	38	0	265
		67.92%	17.74%	14.34%	0.00%	100.00%
	밀양	306	130	75	0	511
		59.88%	25.44%	14.68%	0.00%	100.00%
	사천	485	84	55	0	624
		77.72%	13.46%	8.81%	0.00%	100.00%
	산청	99	23	13	0	135
		73.33%	17.04%	9.63%	0.00%	100.00%
	양산	1339	241	145	0	1725
		77.62%	13.97%	8.41%	0.00%	100.00%
	의령	140	54	26	0	220
		63.64%	24.55%	11.82%	0.00%	100.00%
	진주	1986	549	326	0	2861
		69.42%	19.19%	11.39%	0.00%	100.00%
	창녕	315	110	66	0	491
		64.15%	22.40%	13.44%	0.00%	100.00%
	창원	4507	973	494	0	5974
		75.44%	16.29%	8.27%	0.00%	100.00%
	통영	465	77	45	0	587
		79.22%	13.12%	7.67%	0.00%	100.00%
하동	264	115	43	0	422	
	62.56%	27.25%	10.19%	0.00%	100.00%	
함안	221	44	28	0	293	
	75.43%	15.02%	9.56%	0.00%	100.00%	
함양	125	29	21	0	175	
	71.43%	16.57%	12.00%	0.00%	100.00%	
합천	97	76	24	0	197	
	49.24%	38.58%	12.18%	0.00%	100.00%	
무응답	1238	219	124	2339	3920	
	31.58%	5.59%	3.16%	59.67%	100.00%	
전체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표 164〉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9005	1722	920	0	11647
		77.32%	14.78%	7.90%	0.00%	100.00%
	읍, 면지역	5142	1432	800	0	7374
		69.73%	19.42%	10.85%	0.00%	100.00%
	무응답	1238	219	124	2339	3920
		31.58%	5.59%	3.16%	59.67%	100.00%
	전체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표 165〉 18. 방과후학교 학습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7191	1118	603	0	8912
		80.69%	12.54%	6.77%	0.00%	100.00%
	사립	3588	1334	717	0	5639
		63.63%	23.66%	12.72%	0.00%	100.00%
	모름	3368	702	400	0	4470
		75.35%	15.70%	8.95%	0.00%	100.00%
	무응답	1238	219	124	2339	3920
		31.58%	5.59%	3.16%	59.67%	100.00%
	전체	15385	3373	1844	2339	22941
		67.06%	14.70%	8.04%	10.20%	100.00%

〈표 166〉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경우 가장 중요했던 일로 답해주십시오) (성별 응답)

	남성	여성	기타	무응답	전체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427	462	8	72	969
	44.07%	47.68%	0.83%	7.43%	100.00%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385	939	14	106	1444
	26.66%	65.03%	0.97%	7.34%	100.0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907	1128	12	166	2213
	40.99%	50.97%	0.54%	7.50%	100.00%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403	910	11	137	1461
	27.58%	62.29%	0.75%	9.38%	100.0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33	21	0	4	58
	56.90%	36.21%	0.00%	6.90%	100.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133	125	2	16	276
	48.19%	45.29%	0.72%	5.80%	100.00%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55	89	1	11	156
	35.26%	57.05%	0.64%	7.05%	100.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119	268	2	32	421
	28.27%	63.66%	0.48%	7.60%	100.0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54	113	2	16	185
	29.19%	61.08%	1.08%	8.65%	100.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90	143	1	18	252
	35.71%	56.75%	0.40%	7.14%	100.0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5285	6804	75	1003	13167
	40.14%	51.67%	0.57%	7.62%	100.00%
기타	0	0	0	2339	2339
	0.00%	0.00%	0.00%	100.00%	100.00%
전체	7891	11002	128	3920	22941
	34.40%	47.96%	0.56%	17.09%	100.00%

〈표 167〉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경우 가장 중요했던 일로 답해주십시오) (학년별 응답)

	초5	고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응답	전체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97	148	109	103	109	140	123	68	72	969
	10.01%	15.27%	11.25%	10.63%	11.25%	14.45%	12.69%	7.02%	7.43%	100%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55	104	172	166	177	236	249	179	106	1444
	3.81%	7.20%	11.91%	11.50%	12.26%	16.34%	17.24%	12.40%	7.34%	10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267	366	354	283	247	254	177	99	166	2213
	12.07%	16.54%	16.00%	12.79%	11.16%	11.48%	8.00%	4.47%	7.50%	100%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174	200	160	212	153	196	149	80	137	1461
	11.91%	13.69%	10.95%	14.51%	10.47%	13.42%	10.20%	5.48%	9.38%	10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2	4	6	8	8	15	6	5	4	58
	3.45%	6.90%	10.34%	13.79%	13.79%	25.86%	10.34%	8.62%	6.90%	1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18	26	32	30	31	50	43	30	16	276
	6.52%	9.42%	11.59%	10.87%	11.23%	18.12%	15.58%	10.87%	5.80%	100%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8	13	16	17	18	28	22	23	11	156
	5.13%	8.33%	10.26%	10.90%	11.54%	17.95%	14.10%	14.74%	7.05%	1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17	48	57	37	58	76	55	41	32	421
	4.04%	11.40%	13.54%	8.79%	13.78%	18.05%	13.06%	9.74%	7.60%	10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29	25	31	17	20	21	12	14	16	185
	15.68%	13.51%	16.76%	9.19%	10.81%	11.35%	6.49%	7.57%	8.65%	1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23	35	38	34	20	32	33	19	18	252
	9.13%	13.89%	15.08%	13.49%	7.94%	12.70%	13.10%	7.54%	7.14%	10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1587	2372	2139	1549	1245	1464	1191	617	1003	13167
	12.05%	18.01%	16.25%	11.76%	9.46%	11.12%	9.05%	4.69%	7.62%	100%
기타	0	0	0	0	0	0	0	0	2339	233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00%
전체	2277	3341	3114	2456	2086	2512	2060	1175	3920	22941
	9.93%	14.56%	13.57%	10.71%	9.09%	10.95%	8.98%	5.12%	17.09%	100%

〈표 168〉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경우 가장 중요했던 일로 답해주십시오) (지역별 응답)

	고성	거제	거창	김해	남해	밀양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14	64	19	103	10	26
	1.44%	6.60%	1.96%	10.63%	1.03%	2.68%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13	84	33	154	12	44
	0.90%	5.82%	2.29%	10.66%	0.83%	3.05%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29	158	63	280	25	58
	1.31%	7.14%	2.85%	12.65%	1.13%	2.62%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13	83	30	209	15	36
	0.89%	5.68%	2.05%	14.31%	1.03%	2.46%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1	5	3	2	0	1
	1.72%	8.62%	5.17%	3.45%	0.00%	1.72%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3	13	4	25	2	11
	1.09%	4.71%	1.45%	9.06%	0.72%	3.99%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1	5	2	16	0	1
	0.64%	3.21%	1.28%	10.26%	0.00%	0.64%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6	24	10	51	4	11
	1.43%	5.70%	2.38%	12.11%	0.95%	2.61%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1	11	4	34	0	6
	0.54%	5.95%	2.16%	18.38%	0.00%	3.24%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4	20	4	33	9	7
	1.59%	7.94%	1.59%	13.10%	3.57%	2.78%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137	939	318	1516	188	310
	1.04%	7.13%	2.42%	11.51%	1.43%	2.35%
기타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222	1406	490	2423	265	511
	0.97%	6.13%	2.14%	10.56%	1.16%	2.23%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43	5	78	8	159	22
	4.44%	0.52%	8.05%	0.83%	16.41%	2.27%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38	6	147	18	224	26
	2.63%	0.42%	10.18%	1.25%	15.51%	1.8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68	13	159	26	281	86
	3.07%	0.59%	7.18%	1.17%	12.70%	3.89%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41	15	154	7	215	25
	2.81%	1.03%	10.54%	0.48%	14.72%	1.71%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1	0	5	0	9	5
	1.72%	0.00%	8.62%	0.00%	15.52%	8.62%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9	3	33	3	32	11
	3.26%	1.09%	11.96%	1.09%	11.59%	3.99%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6	2	16	3	35	5
	3.85%	1.28%	10.26%	1.92%	22.44%	3.21%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16	6	36	4	60	12
	3.80%	1.43%	8.55%	0.95%	14.25%	2.85%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7	2	15	6	22	4
	3.78%	1.08%	8.11%	3.24%	11.89%	2.16%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4	1	21	2	39	8
	1.59%	0.40%	8.33%	0.79%	15.48%	3.17%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391	82	1061	143	1785	287
	2.97%	0.62%	8.06%	1.09%	13.56%	2.18%
기타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624	135	1725	220	2861	491
	2.72%	0.59%	7.52%	0.96%	12.47%	2.14%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함양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257	25	25	15	6
	26.52%	2.58%	2.58%	1.55%	0.62%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440	33	32	16	11
	30.47%	2.29%	2.22%	1.11%	0.76%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598	69	44	45	19
	27.02%	3.12%	1.99%	2.03%	0.86%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398	33	25	13	7
	27.24%	2.26%	1.71%	0.89%	0.48%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20	1	1	0	0
	34.48%	1.72%	1.72%	0.00%	0.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84	12	5	5	3
	30.43%	4.35%	1.81%	1.81%	1.09%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41	6	1	3	0
	26.28%	3.85%	0.64%	1.92%	0.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119	13	7	5	1
	28.27%	3.09%	1.66%	1.19%	0.24%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45	7	3	2	0
	24.32%	3.78%	1.62%	1.08%	0.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63	9	2	3	1
	25.00%	3.57%	0.79%	1.19%	0.4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3909	379	277	186	127
	29.69%	2.88%	2.10%	1.41%	0.96%
기타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전체	5974	587	422	293	175
	26.04%	2.56%	1.84%	1.28%	0.76%

	합천	무응답	합계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18	72	969
	1.86%	7.43%	100.00%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7	106	1444
	0.48%	7.34%	100.0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26	166	2213
	1.17%	7.50%	100.00%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5	137	1461
	0.34%	9.38%	100.0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0	4	58
	0.00%	6.90%	100.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2	16	276
	0.72%	5.80%	100.00%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2	11	156
	1.28%	7.05%	100.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4	32	421
	0.95%	7.60%	100.0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0	16	185
	0.00%	8.65%	100.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4	18	252
	1.59%	7.14%	100.0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129	1003	13167
	0.98%	7.62%	100.00%
기타	0	2339	2339
	0.00%	100.00%	100.00%
전체	197	3920	22941
	0.86%	17.09%	100.00%

〈표 169〉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경우 가장 중요했던 일로 답해주십시오) (동/읍, 면별 응답)

	동지역	읍, 면지역	무응답	전체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536	361	72	969
	55.31%	37.25%	7.43%	100.00%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866	472	106	1444
	59.97%	32.69%	7.34%	100.0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1173	874	166	2213
	53.00%	39.49%	7.50%	100.00%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868	456	137	1461
	59.41%	31.21%	9.38%	100.0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27	27	4	58
	46.55%	46.55%	6.90%	100.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156	104	16	276
	56.52%	37.68%	5.80%	100.00%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104	41	11	156
	66.67%	26.28%	7.05%	100.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240	149	32	421
	57.01%	35.39%	7.60%	100.0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100	69	16	185
	54.05%	37.30%	8.65%	100.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145	89	18	252
	57.54%	35.32%	7.14%	100.0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7432	4732	1003	13167
	56.44%	35.94%	7.62%	100.00%
기타	0	0	2339	2339
	0.00%	0.00%	100.00%	100.00%
전체	11647	7374	3920	22941
	50.77%	32.14%	17.09%	100.00%

〈표 170〉 20. 학교에서 폭력이나 차별, 그 밖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경우 가장 중요했던 일로 답해주십시오) (설립유형별 응답)

	국, 공립	사립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인권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에 즉시 반대를 표현하고 막기	447	283	167	72	969
	46.13%	29.21%	17.23%	7.43%	100.00%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613	525	200	106	1444
	42.45%	36.36%	13.85%	7.34%	100.00%
학교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1007	566	474	166	2213
	45.50%	25.58%	21.42%	7.50%	100.00%
부모님 등 보호자와 의논하기	630	453	241	137	1461
	43.12%	31.01%	16.50%	9.38%	100.0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담하기	18	26	10	4	58
	31.03%	44.83%	17.24%	6.90%	100.00%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	113	94	53	16	276
	40.94%	34.06%	19.20%	5.80%	100.00%
SNS나 인터넷 게시판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글 쓰기	61	62	22	11	156
	39.10%	39.74%	14.10%	7.05%	100.00%
피해자를 지지하는 말과 행동하기	168	151	70	32	421
	39.90%	35.87%	16.63%	7.60%	100.00%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기	78	47	44	16	185
	42.16%	25.41%	23.78%	8.65%	100.00%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하기	126	75	33	18	252
	50.00%	29.76%	13.10%	7.14%	100.00%
해당되는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음	5651	3357	3156	1003	13167
	42.92%	25.50%	23.97%	7.62%	100.00%
기타	0	0	0	2339	2339
	0.00%	0.00%	0.00%	100.00%	100.00%
전체	8912	5639	4470	3920	22941
	38.85%	24.58%	19.48%	17.09%	100.00%

〈표 171〉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147	223	990	6531	0	7891
		1.86%	2.83%	12.55%	82.77%	0.00%	100.00%
	여성	513	779	2547	7163	0	11002
		4.66%	7.08%	23.15%	65.11%	0.00%	100.00%
	기타	6	11	26	85	0	128
		4.69%	8.59%	20.31%	66.41%	0.00%	100.00%
	무응답	14	22	87	280	3517	3920
		0.36%	0.56%	2.22%	7.14%	89.72%	100.00%
	전체	680	1035	3650	14059	3517	22941
		2.96%	4.51%	15.91%	61.28%	15.33%	100.00%

〈표 172〉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60	54	322	1841	0	2277
		2.64%	2.37%	14.14%	80.85%	0.00%	100.00%
	초6	81	96	451	2713	0	3341
		2.42%	2.87%	13.50%	81.20%	0.00%	100.00%
	중1	82	114	467	2451	0	3114
		2.63%	3.66%	15.00%	78.71%	0.00%	100.00%
	중2	135	150	428	1743	0	2456
		5.50%	6.11%	17.43%	70.97%	0.00%	100.00%
	중3	79	138	471	1398	0	2086
		3.79%	6.62%	22.58%	67.02%	0.00%	100.00%
	고1	87	169	466	1790	0	2512
		3.46%	6.73%	18.55%	71.26%	0.00%	100.00%
	고2	96	160	515	1289	0	2060
		4.66%	7.77%	25.00%	62.57%	0.00%	100.00%
	고3	46	132	443	554	0	1175
		3.91%	11.23%	37.70%	47.15%	0.00%	100.00%
	무응답	14	22	87	280	3517	3920
		0.36%	0.56%	2.22%	7.14%	89.72%	100.00%
	전체	680	1035	3650	14059	3517	22941
		2.96%	4.51%	15.91%	61.28%	15.33%	100.00%

<표 173>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9	9	55	149	0	222
		4.05%	4.05%	24.77%	67.12%	0.00%	100.00%
	거제	39	81	214	1072	0	1406
		2.77%	5.76%	15.22%	76.24%	0.00%	100.00%
	거창	19	15	85	371	0	490
		3.88%	3.06%	17.35%	75.71%	0.00%	100.00%
	김해	93	136	429	1765	0	2423
		3.84%	5.61%	17.71%	72.84%	0.00%	100.00%
	남해	1	9	71	184	0	265
		0.38%	3.40%	26.79%	69.43%	0.00%	100.00%
	밀양	16	22	112	361	0	511
		3.13%	4.31%	21.92%	70.65%	0.00%	100.00%
	사천	23	36	117	448	0	624
		3.69%	5.77%	18.75%	71.79%	0.00%	100.00%
	산청	6	7	27	95	0	135
		4.44%	5.19%	20.00%	70.37%	0.00%	100.00%
	양산	75	116	326	1208	0	1725
		4.35%	6.72%	18.90%	70.03%	0.00%	100.00%
	의령	7	21	48	144	0	220
		3.18%	9.55%	21.82%	65.45%	0.00%	100.00%
진주	71	164	710	1916	0	2861	
	2.48%	5.73%	24.82%	66.97%	0.00%	100.00%	
창녕	15	25	113	338	0	491	
	3.05%	5.09%	23.01%	68.84%	0.00%	100.00%	
창원	236	318	841	4579	0	5974	
	3.95%	5.32%	14.08%	76.65%	0.00%	100.00%	
통영	27	23	93	444	0	587	
	4.60%	3.92%	15.84%	75.64%	0.00%	100.00%	
하동	12	14	158	238	0	422	
	2.84%	3.32%	37.44%	56.40%	0.00%	100.00%	
함안	8	9	50	226	0	293	
	2.73%	3.07%	17.06%	77.13%	0.00%	100.00%	
함양	5	3	36	131	0	175	
	2.86%	1.71%	20.57%	74.86%	0.00%	100.00%	
합천	4	5	78	110	0	197	
	2.03%	2.54%	39.59%	55.84%	0.00%	100.00%	
무응답	14	22	87	280	3517	3920	
	0.36%	0.56%	2.22%	7.14%	89.72%	100.00%	
전체	680	1035	3650	14059	3517	22941	
	2.96%	4.51%	15.91%	61.28%	15.33%	100.00%	

<표 174>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430	669	2144	8404	0	11647
		3.69%	5.74%	18.41%	72.16%	0.00%	100.00%
	읍, 면지역	236	344	1419	5375	0	7374
		3.20%	4.67%	19.24%	72.89%	0.00%	100.00%
	무응답	14	22	87	280	3517	3920
		0.36%	0.56%	2.22%	7.14%	89.72%	100.00%
전체	680	1035	3650	14059	3517	22941	
	2.96%	4.51%	15.91%	61.28%	15.33%	100.00%	

<표 175> 23. 다니는 학교에서는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렵다	매우 잘 인정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289	428	1697	6498	0	8912
		3.24%	4.80%	19.04%	72.91%	0.00%	100.00%
	사립	258	399	1292	3690	0	5639
		4.58%	7.08%	22.91%	65.44%	0.00%	100.00%
	모르 겠다	119	186	574	3591	0	4470
		2.66%	4.16%	12.84%	80.34%	0.00%	100.00%
	무응답	14	22	87	280	3517	3920
		0.36%	0.56%	2.22%	7.14%	89.72%	100.00%
	전체	680	1035	3650	14059	3517	22941
		2.96%	4.51%	15.91%	61.28%	15.33%	100.00%

<표 176>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성별	남성	4934	1948	1009	0	7891
		62.53%	24.69%	12.79%	0.00%	100.00%
	여성	6504	3351	1147	0	11002
		59.12%	30.46%	10.43%	0.00%	100.00%
	기타	72	36	20	0	128
		56.25%	28.12%	15.62%	0.00%	100.00%
	무응답	252	104	47	3517	3920
		6.43%	2.65%	1.20%	89.72%	100.00%
	전체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표 177>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1517	609	151	0	2277
		66.62%	26.75%	6.63%	0.00%	100.00%
	초6	2307	768	266	0	3341
		69.05%	22.99%	7.96%	0.00%	100.00%
	중1	1747	815	552	0	3114
		56.10%	26.17%	17.73%	0.00%	100.00%
	중2	1372	779	305	0	2456
		55.86%	31.72%	12.42%	0.00%	100.00%
	중3	1144	744	198	0	2086
		54.84%	35.67%	9.49%	0.00%	100.00%
	고1	1508	600	404	0	2512
		60.03%	23.89%	16.08%	0.00%	100.00%
	고2	1224	622	214	0	2060
		59.42%	30.19%	10.39%	0.00%	100.00%
	고3	691	398	86	0	1175
		58.81%	33.87%	7.32%	0.00%	100.00%
	무응답	252	104	47	3517	3920
		6.43%	2.65%	1.20%	89.72%	100.00%
	전체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표 178>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38	66	18	0	222
		62.16%	29.73%	8.11%	0.00%	100.00%
	거제	825	429	152	0	1406
		58.68%	30.51%	10.81%	0.00%	100.00%
	거창	269	174	47	0	490
		54.90%	35.51%	9.59%	0.00%	100.00%
	김해	1374	721	328	0	2423
		56.71%	29.76%	13.54%	0.00%	100.00%
	남해	167	67	31	0	265
		63.02%	25.28%	11.70%	0.00%	100.00%
	밀양	312	149	50	0	511
		61.06%	29.16%	9.78%	0.00%	100.00%
	사천	351	219	54	0	624
		56.25%	35.10%	8.65%	0.00%	100.00%
	산청	100	27	8	0	135
		74.07%	20.00%	5.93%	0.00%	100.00%
	양산	1128	434	163	0	1725
		65.39%	25.16%	9.45%	0.00%	100.00%
	의령	122	80	18	0	220
		55.45%	36.36%	8.18%	0.00%	100.00%
진주	1888	648	325	0	2861	
	65.99%	22.65%	11.36%	0.00%	100.00%	
창녕	243	143	105	0	491	
	49.49%	29.12%	21.38%	0.00%	100.00%	
창원	3721	1573	680	0	5974	
	62.29%	26.33%	11.38%	0.00%	100.00%	
통영	308	226	53	0	587	
	52.47%	38.50%	9.03%	0.00%	100.00%	
하동	177	167	78	0	422	
	41.94%	39.57%	18.48%	0.00%	100.00%	
함안	168	95	30	0	293	
	57.34%	32.42%	10.24%	0.00%	100.00%	
함양	100	52	23	0	175	
	57.14%	29.71%	13.14%	0.00%	100.00%	
합천	119	65	13	0	197	
	60.41%	32.99%	6.60%	0.00%	100.00%	
무응답	252	104	47	3517	3920	
	6.43%	2.65%	1.20%	89.72%	100.00%	
전체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표 179〉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7328	3024	1295	0	11647
		62.92%	25.96%	11.12%	0.00%	100.00%
	읍, 면지역	4182	2311	881	0	7374
		56.71%	31.34%	11.95%	0.00%	100.00%
	무응답	252	104	47	3517	3920
		6.43%	2.65%	1.20%	89.72%	100.00%
	전체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표 180〉 24.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5682	2386	844	0	8912
		63.76%	26.77%	9.47%	0.00%	100.00%
	사립	3260	1712	667	0	5639
		57.81%	30.36%	11.83%	0.00%	100.00%
	모르 겠다	2568	1237	665	0	4470
		57.45%	27.67%	14.88%	0.00%	100.00%
	무응답	252	104	47	3517	3920
		6.43%	2.65%	1.20%	89.72%	100.00%
	전체	11762	5439	2223	3517	22941
		51.27%	23.71%	9.69%	15.33%	100.00%

<표 181>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성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성별	남성	894	1397	3263	2337	0	7891
		11.33%	17.70%	41.35%	29.62%	0.00%	100.00%
	여성	1352	2412	4710	2528	0	11002
		12.29%	21.92%	42.81%	22.98%	0.00%	100.00%
	기타	29	31	42	26	0	128
		22.66%	24.22%	32.81%	20.31%	0.00%	100.00%
	무응답	45	60	155	143	3517	3920
		1.15%	1.53%	3.95%	3.65%	89.72%	100.00%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표 182>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학년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126	371	1017	763	0	2277
		5.53%	16.29%	44.66%	33.51%	0.00%	100.00%
	초6	252	592	1449	1048	0	3341
		7.54%	17.72%	43.37%	31.37%	0.00%	100.00%
	중1	321	559	1411	823	0	3114
		10.31%	17.95%	45.31%	26.43%	0.00%	100.00%
	중2	392	598	985	481	0	2456
		15.96%	24.35%	40.11%	19.58%	0.00%	100.00%
	중3	333	493	812	448	0	2086
		15.96%	23.63%	38.93%	21.48%	0.00%	100.00%
	고1	320	497	1054	641	0	2512
		12.74%	19.79%	41.96%	25.52%	0.00%	100.00%
	고2	282	471	857	450	0	2060
		13.69%	22.86%	41.60%	21.84%	0.00%	100.00%
	고3	249	259	430	237	0	1175
		21.19%	22.04%	36.60%	20.17%	0.00%	100.00%
	무응답	45	60	155	143	3517	3920
		1.15%	1.53%	3.95%	3.65%	89.72%	100.00%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표 183〉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지역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	고성	11	40	79	92	0	222
		4.95%	18.02%	35.59%	41.44%	0.00%	100.00%
	거제	146	290	602	368	0	1406
		10.38%	20.63%	42.82%	26.17%	0.00%	100.00%
	거창	75	81	197	137	0	490
		15.31%	16.53%	40.20%	27.96%	0.00%	100.00%
	김해	297	534	1009	583	0	2423
		12.26%	22.04%	41.64%	24.06%	0.00%	100.00%
	남해	50	55	93	67	0	265
		18.87%	20.75%	35.09%	25.28%	0.00%	100.00%
	밀양	60	77	216	158	0	511
		11.74%	15.07%	42.27%	30.92%	0.00%	100.00%
	사천	54	114	269	187	0	624
		8.65%	18.27%	43.11%	29.97%	0.00%	100.00%
	산청	15	26	51	43	0	135
		11.11%	19.26%	37.78%	31.85%	0.00%	100.00%
	양산	273	373	710	369	0	1725
		15.83%	21.62%	41.16%	21.39%	0.00%	100.00%
	의령	19	45	106	50	0	220
		8.64%	20.45%	48.18%	22.73%	0.00%	100.00%
	진주	296	500	1258	807	0	2861
		10.35%	17.48%	43.97%	28.21%	0.00%	100.00%
	창녕	45	73	197	176	0	491
		9.16%	14.87%	40.12%	35.85%	0.00%	100.00%
	창원	736	1290	2551	1397	0	5974
		12.32%	21.59%	42.70%	23.38%	0.00%	100.00%
	통영	78	143	251	115	0	587
		13.29%	24.36%	42.76%	19.59%	0.00%	100.00%
하동	61	91	149	121	0	422	
	14.45%	21.56%	35.31%	28.67%	0.00%	100.00%	
함안	29	43	125	96	0	293	
	9.90%	14.68%	42.66%	32.76%	0.00%	100.00%	
함양	21	41	69	44	0	175	
	12.00%	23.43%	39.43%	25.14%	0.00%	100.00%	
합천	9	24	83	81	0	197	
	4.57%	12.18%	42.13%	41.12%	0.00%	100.00%	
무응답	45	60	155	143	3517	3920	
	1.15%	1.53%	3.95%	3.65%	89.72%	100.00%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표 184〉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동지역	1422	2402	4998	2825	0	11647
		12.21%	20.62%	42.91%	24.26%	0.00%	100.00%
	읍, 면지역	853	1438	3017	2066	0	7374
		11.57%	19.50%	40.91%	28.02%	0.00%	100.00%
	무응답	45	60	155	143	3517	3920
		1.15%	1.53%	3.95%	3.65%	89.72%	100.00%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표 185〉 25. 학교에 학생 편의시설(예: 휴게실, 탈의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충분히 있고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079	1831	3686	2316	0	8912
		12.11%	20.55%	41.36%	25.99%	0.00%	100.00%
	사립	793	1176	2323	1347	0	5639
		14.06%	20.85%	41.20%	23.89%	0.00%	100.00%
	모르 겠다	403	833	2006	1228	0	4470
		9.02%	18.64%	44.88%	27.47%	0.00%	100.00%
	무응답	45	60	155	143	3517	3920
		1.15%	1.53%	3.95%	3.65%	89.72%	100.00%
전체	2320	3900	8170	5034	3517	22941	
	10.11%	17.00%	35.61%	21.94%	15.33%	100.00%	

<표 186>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성별	1	200	425	1985	5281	0	7891
		2.53%	5.39%	25.16%	66.92%	0.00%	100.00%
	2	181	609	2803	7409	0	11002
		1.65%	5.54%	25.48%	67.34%	0.00%	100.00%
	3	9	9	32	78	0	128
		7.03%	7.03%	25.00%	60.94%	0.00%	100.00%
	99	7	17	106	273	3517	3920
		0.18%	0.43%	2.70%	6.96%	89.72%	100.00%
	전체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표 187>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22	90	653	1512	0	2277
		0.97%	3.95%	28.68%	66.40%	0.00%	100.00%
	초6	31	140	785	2385	0	3341
		0.93%	4.19%	23.50%	71.39%	0.00%	100.00%
	중1	42	140	753	2179	0	3114
		1.35%	4.50%	24.18%	69.97%	0.00%	100.00%
	중2	72	179	688	1517	0	2456
		2.93%	7.29%	28.01%	61.77%	0.00%	100.00%
	중3	80	170	608	1228	0	2086
		3.84%	8.15%	29.15%	58.87%	0.00%	100.00%
	고1	50	123	557	1782	0	2512
		1.99%	4.90%	22.17%	70.94%	0.00%	100.00%
	고2	41	125	477	1417	0	2060
		1.99%	6.07%	23.16%	68.79%	0.00%	100.00%
	고3	52	76	299	748	0	1175
		4.43%	6.47%	25.45%	63.66%	0.00%	100.00%
	무응답	7	17	106	273	3517	3920
		0.18%	0.43%	2.70%	6.96%	89.72%	100.00%
	전체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표 188>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4	2	36	180	0	222
		1.80%	0.90%	16.22%	81.08%	0.00%	100.00%
	거제	29	64	378	935	0	1406
		2.06%	4.55%	26.88%	66.50%	0.00%	100.00%
	거창	8	16	97	369	0	490
		1.63%	3.27%	19.80%	75.31%	0.00%	100.00%
	김해	63	163	617	1580	0	2423
		2.60%	6.73%	25.46%	65.21%	0.00%	100.00%
	남해	6	27	56	176	0	265
		2.26%	10.19%	21.13%	66.42%	0.00%	100.00%
	밀양	11	20	133	347	0	511
		2.15%	3.91%	26.03%	67.91%	0.00%	100.00%
	사천	11	33	131	449	0	624
		1.76%	5.29%	20.99%	71.96%	0.00%	100.00%
	산청	2	10	28	95	0	135
		1.48%	7.41%	20.74%	70.37%	0.00%	100.00%
	양산	37	105	448	1135	0	1725
		2.14%	6.09%	25.97%	65.80%	0.00%	100.00%
	의령	5	12	69	134	0	220
		2.27%	5.45%	31.36%	60.91%	0.00%	100.00%
진주	82	181	709	1889	0	2861	
	2.87%	6.33%	24.78%	66.03%	0.00%	100.00%	
창녕	8	20	151	312	0	491	
	1.63%	4.07%	30.75%	63.54%	0.00%	100.00%	
창원	100	301	1577	3996	0	5974	
	1.67%	5.04%	26.40%	66.89%	0.00%	100.00%	
통영	8	41	156	382	0	587	
	1.36%	6.98%	26.58%	65.08%	0.00%	100.00%	
하동	4	14	102	302	0	422	
	0.95%	3.32%	24.17%	71.56%	0.00%	100.00%	
함안	6	20	53	214	0	293	
	2.05%	6.83%	18.09%	73.04%	0.00%	100.00%	
함양	5	12	49	109	0	175	
	2.86%	6.86%	28.00%	62.29%	0.00%	100.00%	
합천	1	2	30	164	0	197	
	0.51%	1.02%	15.23%	83.25%	0.00%	100.00%	
무응답	7	17	106	273	3517	3920	
	0.18%	0.43%	2.70%	6.96%	89.72%	100.00%	
전체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표 189〉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1	244	682	2975	7746	0	11647
		2.09%	5.86%	25.54%	66.51%	0.00%	100.00%
	2	146	361	1845	5022	0	7374
		1.98%	4.90%	25.02%	68.10%	0.00%	100.00%
	99	7	17	106	273	3517	3920
		0.18%	0.43%	2.70%	6.96%	89.72%	100.00%
전체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표 190〉 26. 학교에서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난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59	468	2095	6190	0	8912
		1.78%	5.25%	23.51%	69.46%	0.00%	100.00%
	사립	163	361	1513	3602	0	5639
		2.89%	6.40%	26.83%	63.88%	0.00%	100.00%
	모름	68	214	1212	2976	0	4470
		1.52%	4.79%	27.11%	66.58%	0.00%	100.00%
	무응답	7	17	106	273	3517	3920
		0.18%	0.43%	2.70%	6.96%	89.72%	100.00%
	전체	397	1060	4926	13041	3517	22941
		1.73%	4.62%	21.47%	56.85%	15.33%	100.00%

〈표 191〉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성별	1	283	513	2078	5017	0	7891
		3.59%	6.50%	26.33%	63.58%	0.00%	100.00%
	2	267	713	2913	7109	0	11002
		2.43%	6.48%	26.48%	64.62%	0.00%	100.00%
	3	6	6	48	68	0	128
		4.69%	4.69%	37.50%	53.12%	0.00%	100.00%
	99	12	27	95	269	3517	3920
		0.31%	0.69%	2.42%	6.86%	89.72%	100.00%
	전체	568	1259	5134	12463	3517	22941
		2.48%	5.49%	22.38%	54.33%	15.33%	100.00%

〈표 192〉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53	155	703	1366	0	2277
		2.33%	6.81%	30.87%	59.99%	0.00%	100.00%
	초6	121	258	896	2066	0	3341
		3.62%	7.72%	26.82%	61.84%	0.00%	100.00%
	중1	107	288	854	1865	0	3114
		3.44%	9.25%	27.42%	59.89%	0.00%	100.00%
	중2	75	144	655	1582	0	2456
		3.05%	5.86%	26.67%	64.41%	0.00%	100.00%
	중3	45	92	572	1377	0	2086
		2.16%	4.41%	27.42%	66.01%	0.00%	100.00%
	고1	82	134	575	1721	0	2512
		3.26%	5.33%	22.89%	68.51%	0.00%	100.00%
	고2	35	80	501	1444	0	2060
		1.70%	3.88%	24.32%	70.10%	0.00%	100.00%
	고3	38	81	283	773	0	1175
		3.23%	6.89%	24.09%	65.79%	0.00%	100.00%
	무응답	12	27	95	269	3517	3920
		0.31%	0.69%	2.42%	6.86%	89.72%	100.00%
	전체	568	1259	5134	12463	3517	22941
		2.48%	5.49%	22.38%	54.33%	15.33%	100.00%

〈표 193〉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7	12	50	153	0	222
		3.15%	5.41%	22.52%	68.92%	0.00%	100.00%
	거제	57	97	399	853	0	1406
		4.05%	6.90%	28.38%	60.67%	0.00%	100.00%
	거창	7	31	101	351	0	490
		1.43%	6.33%	20.61%	71.63%	0.00%	100.00%
	김해	78	195	674	1476	0	2423
		3.22%	8.05%	27.82%	60.92%	0.00%	100.00%
	남해	3	22	42	198	0	265
		1.13%	8.30%	15.85%	74.72%	0.00%	100.00%
	밀양	20	29	125	337	0	511
		3.91%	5.68%	24.46%	65.95%	0.00%	100.00%
	사천	5	28	156	435	0	624
		0.80%	4.49%	25.00%	69.71%	0.00%	100.00%
	산청	2	12	24	97	0	135
		1.48%	8.89%	17.78%	71.85%	0.00%	100.00%
	양산	42	91	439	1153	0	1725
		2.43%	5.28%	25.45%	66.84%	0.00%	100.00%
	의령	4	3	50	163	0	220
		1.82%	1.36%	22.73%	74.09%	0.00%	100.00%
	진주	85	179	741	1856	0	2861
		2.97%	6.26%	25.90%	64.87%	0.00%	100.00%
	창녕	9	27	121	334	0	491
		1.83%	5.50%	24.64%	68.02%	0.00%	100.00%
	창원	204	431	1726	3613	0	5974
		3.41%	7.21%	28.89%	60.48%	0.00%	100.00%
	통영	14	31	172	370	0	587
		2.39%	5.28%	29.30%	63.03%	0.00%	100.00%
하동	3	8	78	333	0	422	
	0.71%	1.90%	18.48%	78.91%	0.00%	100.00%	
함안	13	26	70	184	0	293	
	4.44%	8.87%	23.89%	62.80%	0.00%	100.00%	
함양	2	8	39	126	0	175	
	1.14%	4.57%	22.29%	72.00%	0.00%	100.00%	
합천	1	2	32	162	0	197	
	0.51%	1.02%	16.24%	82.23%	0.00%	100.00%	
무응답	12	27	95	269	3517	3920	
	0.31%	0.69%	2.42%	6.86%	89.72%	100.00%	
전체	568	1259	5134	12463	3517	22941	
	2.48%	5.49%	22.38%	54.33%	15.33%	100.00%	

<표 194>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368	745	3146	7388	0	11647
		3.16%	6.40%	27.01%	63.43%	0.00%	100.00%
	읍, 면지역	188	487	1893	4806	0	7374
		2.55%	6.60%	25.67%	65.17%	0.00%	100.00%
	무응답	12	27	95	269	3517	3920
		0.31%	0.69%	2.42%	6.86%	89.72%	100.00%
전체	568	1259	5134	12463	3517	22941	
	2.48%	5.49%	22.38%	54.33%	15.33%	100.00%	

<표 195> 2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243	575	2279	5815	0	8912
		2.73%	6.45%	25.57%	65.25%	0.00%	100.00%
	사립	177	342	1482	3638	0	5639
		3.14%	6.06%	26.28%	64.51%	0.00%	100.00%
	모름	136	315	1278	2741	0	4470
		3.04%	7.05%	28.59%	61.32%	0.00%	100.00%
무응답	12	27	95	269	3517	3920	
	0.31%	0.69%	2.42%	6.86%	89.72%	100.00%	
전체	568	1259	5134	12463	3517	22941	
	2.48%	5.49%	22.38%	54.33%	15.33%	100.00%	

〈표 196〉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성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999	1237	2199	3456	0	7891
		12.66%	15.68%	27.87%	43.80%	0.00%	100.00%
	여성	1970	1694	2551	4787	0	11002
		17.91%	15.40%	23.19%	43.51%	0.00%	100.00%
	기타	24	20	25	59	0	128
		18.75%	15.62%	19.53%	46.09%	0.00%	100.00%
	무응답	68	64	109	162	3517	3920
		1.73%	1.63%	2.78%	4.13%	89.72%	100.00%
	전체	3061	3015	4884	8464	3517	22941
		13.34%	13.14%	21.29%	36.89%	15.33%	100.00%

〈표 197〉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69	387	782	839	0	2277
		11.81%	17.00%	34.34%	36.85%	0.00%	100.00%
	초6	437	589	1081	1234	0	3341
		13.08%	17.63%	32.36%	36.94%	0.00%	100.00%
	중1	309	383	729	1693	0	3114
		9.92%	12.30%	23.41%	54.37%	0.00%	100.00%
	중2	457	347	514	1138	0	2456
		18.61%	14.13%	20.93%	46.34%	0.00%	100.00%
	중3	403	345	451	887	0	2086
		19.32%	16.54%	21.62%	42.52%	0.00%	100.00%
	고1	380	345	525	1262	0	2512
		15.13%	13.73%	20.90%	50.24%	0.00%	100.00%
	고2	420	345	429	866	0	2060
		20.39%	16.75%	20.83%	42.04%	0.00%	100.00%
	고3	318	210	264	383	0	1175
		27.06%	17.87%	22.47%	32.60%	0.00%	100.00%
	무응답	68	64	109	162	3517	3920
		1.73%	1.63%	2.78%	4.13%	89.72%	100.00%
전체	3061	3015	4884	8464	3517	22941	
	13.34%	13.14%	21.29%	36.89%	15.33%	100.00%	

〈표 198〉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23	31	84	84	0	222
		10.36%	13.96%	37.84%	37.84%	0.00%	100.00%
	거제	205	199	388	614	0	1406
		14.58%	14.15%	27.60%	43.67%	0.00%	100.00%
	거창	90	75	133	192	0	490
		18.37%	15.31%	27.14%	39.18%	0.00%	100.00%
	김해	390	345	525	1163	0	2423
		16.10%	14.24%	21.67%	48.00%	0.00%	100.00%
	남해	34	45	84	102	0	265
		12.83%	16.98%	31.70%	38.49%	0.00%	100.00%
	밀양	73	98	128	212	0	511
		14.29%	19.18%	25.05%	41.49%	0.00%	100.00%
	사천	72	103	201	248	0	624
		11.54%	16.51%	32.21%	39.74%	0.00%	100.00%
	산청	23	15	57	40	0	135
		17.04%	11.11%	42.22%	29.63%	0.00%	100.00%
	양산	328	229	375	793	0	1725
		19.01%	13.28%	21.74%	45.97%	0.00%	100.00%
	의령	52	35	54	79	0	220
		23.64%	15.91%	24.55%	35.91%	0.00%	100.00%
	진주	417	480	717	1247	0	2861
		14.58%	16.78%	25.06%	43.59%	0.00%	100.00%
	창녕	61	86	151	193	0	491
		12.42%	17.52%	30.75%	39.31%	0.00%	100.00%
	창원	974	942	1424	2634	0	5974
		16.30%	15.77%	23.84%	44.09%	0.00%	100.00%
	통영	92	95	138	262	0	587
		15.67%	16.18%	23.51%	44.63%	0.00%	100.00%
하동	63	81	114	164	0	422	
	14.93%	19.19%	27.01%	38.86%	0.00%	100.00%	
함안	39	46	91	117	0	293	
	13.31%	15.70%	31.06%	39.93%	0.00%	100.00%	
함양	23	27	32	93	0	175	
	13.14%	15.43%	18.29%	53.14%	0.00%	100.00%	
합천	34	19	79	65	0	197	
	17.26%	9.64%	40.10%	32.99%	0.00%	100.00%	
무응답	68	64	109	162	3517	3920	
	1.73%	1.63%	2.78%	4.13%	89.72%	100.00%	
전체	3061	3015	4884	8464	3517	22941	
	13.34%	13.14%	21.29%	36.89%	15.33%	100.00%	

〈표 199〉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1	1867	1747	2808	5225	0	11647
		16.03%	15.00%	24.11%	44.86%	0.00%	100.00%
	2	1126	1204	1967	3077	0	7374
		15.27%	16.33%	26.67%	41.73%	0.00%	100.00%
	99	68	64	109	162	3517	3920
		1.73%	1.63%	2.78%	4.13%	89.72%	100.00%
전체	3061	3015	4884	8464	3517	22941	
	13.34%	13.14%	21.29%	36.89%	15.33%	100.00%	

〈표 200〉 28. 학교에서 알려지, 채식 지향,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497	1351	2308	3756	0	8912
		16.80%	15.16%	25.90%	42.15%	0.00%	100.00%
	사립	991	916	1278	2454	0	5639
		17.57%	16.24%	22.66%	43.52%	0.00%	100.00%
	모름	505	684	1189	2092	0	4470
		11.30%	15.30%	26.60%	46.80%	0.00%	100.00%
	무응답	68	64	109	162	3517	3920
		1.73%	1.63%	2.78%	4.13%	89.72%	100.00%
	전체	3061	3015	4884	8464	3517	22941
		13.34%	13.14%	21.29%	36.89%	15.33%	100.00%

〈표 201〉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성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223	1402	4793	1473	0	7891
		2.83%	17.77%	60.74%	18.67%	0.00%	100.00%
	여성	274	1935	6930	1863	0	11002
		2.49%	17.59%	62.99%	16.93%	0.00%	100.00%
	기타	6	26	66	30	0	128
		4.69%	20.31%	51.56%	23.44%	0.00%	100.00%
	무응답	8	67	241	87	3517	3920
		0.20%	1.71%	6.15%	2.22%	89.72%	100.00%
	전체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표 202〉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학년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78	407	1321	471	0	2277
		3.43%	17.87%	58.01%	20.69%	0.00%	100.00%
	초6	103	689	1916	633	0	3341
		3.08%	20.62%	57.35%	18.95%	0.00%	100.00%
	중1	122	677	1363	952	0	3114
		3.92%	21.74%	43.77%	30.57%	0.00%	100.00%
	중2	47	356	1689	364	0	2456
		1.91%	14.50%	68.77%	14.82%	0.00%	100.00%
	중3	39	305	1472	270	0	2086
		1.87%	14.62%	70.57%	12.94%	0.00%	100.00%
	고1	49	419	1689	355	0	2512
		1.95%	16.68%	67.24%	14.13%	0.00%	100.00%
	고2	44	317	1495	204	0	2060
		2.14%	15.39%	72.57%	9.90%	0.00%	100.00%
	고3	21	193	844	117	0	1175
		1.79%	16.43%	71.83%	9.96%	0.00%	100.00%
	무응답	8	67	241	87	3517	3920
		0.20%	1.71%	6.15%	2.22%	89.72%	100.00%
	전체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표 203〉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지역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4	30	149	39	0	222
		1.80%	13.51%	67.12%	17.57%	0.00%	100.00%
	거제	39	242	824	301	0	1406
		2.77%	17.21%	58.61%	21.41%	0.00%	100.00%
	거창	16	89	291	94	0	490
		3.27%	18.16%	59.39%	19.18%	0.00%	100.00%
	김해	62	413	1502	446	0	2423
		2.56%	17.04%	61.99%	18.41%	0.00%	100.00%
	남해	11	51	146	57	0	265
		4.15%	19.25%	55.09%	21.51%	0.00%	100.00%
	밀양	10	97	316	88	0	511
		1.96%	18.98%	61.84%	17.22%	0.00%	100.00%
	사천	8	125	377	114	0	624
		1.28%	20.03%	60.42%	18.27%	0.00%	100.00%
	산청	1	21	89	24	0	135
		0.74%	15.56%	65.93%	17.78%	0.00%	100.00%
	양산	44	300	1107	274	0	1725
		2.55%	17.39%	64.17%	15.88%	0.00%	100.00%
	의령	3	39	140	38	0	220
		1.36%	17.73%	63.64%	17.27%	0.00%	100.00%
진주	83	541	1756	481	0	2861	
	2.90%	18.91%	61.38%	16.81%	0.00%	100.00%	
창녕	10	90	294	97	0	491	
	2.04%	18.33%	59.88%	19.76%	0.00%	100.00%	
창원	150	1048	3770	1006	0	5974	
	2.51%	17.54%	63.11%	16.84%	0.00%	100.00%	
통영	20	108	341	118	0	587	
	3.41%	18.40%	58.09%	20.10%	0.00%	100.00%	
하동	18	66	266	72	0	422	
	4.27%	15.64%	63.03%	17.06%	0.00%	100.00%	
함안	11	55	180	47	0	293	
	3.75%	18.77%	61.43%	16.04%	0.00%	100.00%	
함양	7	30	100	38	0	175	
	4.00%	17.14%	57.14%	21.71%	0.00%	100.00%	
합천	6	18	141	32	0	197	
	3.05%	9.14%	71.57%	16.24%	0.00%	100.00%	
무응답	8	67	241	87	3517	3920	
	0.20%	1.71%	6.15%	2.22%	89.72%	100.00%	
전체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표 204〉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283	2021	7420	1923	0	11647
		2.43%	17.35%	63.71%	16.51%	0.00%	100.00%
	읍, 면지역	220	1342	4369	1443	0	7374
		2.98%	18.20%	59.25%	19.57%	0.00%	100.00%
	무응답	8	67	241	87	3517	3920
		0.20%	1.71%	6.15%	2.22%	89.72%	100.00%
전체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표 205〉 29. 시험, 평가 또는 검사에 참여한 후 결과를 안내받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251	1548	5792	1321	0	8912
		2.82%	17.37%	64.99%	14.82%	0.00%	100.00%
	사립	143	978	3670	848	0	5639
		2.54%	17.34%	65.08%	15.04%	0.00%	100.00%
	모름	109	837	2327	1197	0	4470
		2.44%	18.72%	52.06%	26.78%	0.00%	100.00%
	무응답	8	67	241	87	3517	3920
		0.20%	1.71%	6.15%	2.22%	89.72%	100.00%
	전체	511	3430	12030	3453	3517	22941
		2.23%	14.95%	52.44%	15.05%	15.33%	100.00%

〈표 206〉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성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1003	1664	2918	2306	0	7891
		12.71%	21.09%	36.98%	29.22%	0.00%	100.00%
	여성	1485	2561	4271	2685	0	11002
		13.50%	23.28%	38.82%	24.40%	0.00%	100.00%
	기타	24	28	37	39	0	128
		18.75%	21.88%	28.91%	30.47%	0.00%	100.00%
	무응답	44	65	180	114	3517	3920
		1.12%	1.66%	4.59%	2.91%	89.72%	100.00%
	전체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표 207〉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학년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262	367	885	763	0	2277
		11.51%	16.12%	38.87%	33.51%	0.00%	100.00%
	초6	390	595	1276	1080	0	3341
		11.67%	17.81%	38.19%	32.33%	0.00%	100.00%
	중1	311	522	1021	1260	0	3114
		9.99%	16.76%	32.79%	40.46%	0.00%	100.00%
	중2	303	504	1128	521	0	2456
		12.34%	20.52%	45.93%	21.21%	0.00%	100.00%
	중3	269	565	905	347	0	2086
		12.90%	27.09%	43.38%	16.63%	0.00%	100.00%
	고1	401	699	890	522	0	2512
		15.96%	27.83%	35.43%	20.78%	0.00%	100.00%
	고2	336	648	718	358	0	2060
		16.31%	31.46%	34.85%	17.38%	0.00%	100.00%
	고3	240	353	403	179	0	1175
		20.43%	30.04%	34.30%	15.23%	0.00%	100.00%
	무응답	44	65	180	114	3517	3920
		1.12%	1.66%	4.59%	2.91%	89.72%	100.00%
	전체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표 208〉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지역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17	62	102	41	0	222
		7.66%	27.93%	45.95%	18.47%	0.00%	100.00%
	거제	177	265	519	445	0	1406
		12.59%	18.85%	36.91%	31.65%	0.00%	100.00%
	거창	84	124	158	124	0	490
		17.14%	25.31%	32.24%	25.31%	0.00%	100.00%
	김해	295	528	920	680	0	2423
		12.17%	21.79%	37.97%	28.06%	0.00%	100.00%
	남해	24	49	117	75	0	265
		9.06%	18.49%	44.15%	28.30%	0.00%	100.00%
	밀양	51	133	186	141	0	511
		9.98%	26.03%	36.40%	27.59%	0.00%	100.00%
	사천	98	126	253	147	0	624
		15.71%	20.19%	40.54%	23.56%	0.00%	100.00%
	산청	24	21	62	28	0	135
		17.78%	15.56%	45.93%	20.74%	0.00%	100.00%
	양산	226	430	645	424	0	1725
		13.10%	24.93%	37.39%	24.58%	0.00%	100.00%
	의령	30	53	92	45	0	220
		13.64%	24.09%	41.82%	20.45%	0.00%	100.00%
진주	419	669	1035	738	0	2861	
	14.65%	23.38%	36.18%	25.80%	0.00%	100.00%	
창녕	56	91	173	171	0	491	
	11.41%	18.53%	35.23%	34.83%	0.00%	100.00%	
창원	818	1354	2264	1538	0	5974	
	13.69%	22.66%	37.90%	25.74%	0.00%	100.00%	
통영	65	121	243	158	0	587	
	11.07%	20.61%	41.40%	26.92%	0.00%	100.00%	
하동	54	117	161	90	0	422	
	12.80%	27.73%	38.15%	21.33%	0.00%	100.00%	
함안	22	49	139	83	0	293	
	7.51%	16.72%	47.44%	28.33%	0.00%	100.00%	
함양	26	38	61	50	0	175	
	14.86%	21.71%	34.86%	28.57%	0.00%	100.00%	
합천	26	23	96	52	0	197	
	13.20%	11.68%	48.73%	26.40%	0.00%	100.00%	
무응답	44	65	180	114	3517	3920	
	1.12%	1.66%	4.59%	2.91%	89.72%	100.00%	
전체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표 209〉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동/읍, 면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570	2680	4403	2994	0	11647
		13.48%	23.01%	37.80%	25.71%	0.00%	100.00%
	읍, 면지역	942	1573	2823	2036	0	7374
		12.77%	21.33%	38.28%	27.61%	0.00%	100.00%
	무응답	44	65	180	114	3517	3920
		1.12%	1.66%	4.59%	2.91%	89.72%	100.00%
전체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표 210〉 30. 시험, 평가 또는 검사의 결과를 본인만 확인합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1156	1986	3617	2153	0	8912
		12.97%	22.28%	40.59%	24.16%	0.00%	100.00%
	사립	862	1458	2088	1231	0	5639
		15.29%	25.86%	37.03%	21.83%	0.00%	100.00%
	모름	494	809	1521	1646	0	4470
		11.05%	18.10%	34.03%	36.82%	0.00%	100.00%
	무응답	44	65	180	114	3517	3920
		1.12%	1.66%	4.59%	2.91%	89.72%	100.00%
	전체	2556	4318	7406	5144	3517	22941
		11.14%	18.82%	32.28%	22.42%	15.33%	100.00%

〈표 211〉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성별	남성	440	1729	3324	2398	0	7891
		5.58%	21.91%	42.12%	30.39%	0.00%	100.00%
	여성	725	2596	4212	3469	0	11002
		6.59%	23.60%	38.28%	31.53%	0.00%	100.00%
	기타	12	29	50	37	0	128
		9.38%	22.66%	39.06%	28.91%	0.00%	100.00%
	무응답	24	78	181	120	3517	3920
		0.61%	1.99%	4.62%	3.06%	89.72%	100.00%
	전체	1201	4432	7767	6024	3517	22941
		5.24%	19.32%	33.86%	26.26%	15.33%	100.00%

〈표 212〉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년	초5	192	471	705	909	0	2277
		8.43%	20.69%	30.96%	39.92%	0.00%	100.00%
	초6	305	682	994	1360	0	3341
		9.13%	20.41%	29.75%	40.71%	0.00%	100.00%
	중1	172	549	832	1561	0	3114
		5.52%	17.63%	26.72%	50.13%	0.00%	100.00%
	중2	129	631	1148	548	0	2456
		5.25%	25.69%	46.74%	22.31%	0.00%	100.00%
	중3	98	542	1156	290	0	2086
		4.70%	25.98%	55.42%	13.90%	0.00%	100.00%
	고1	108	596	1102	706	0	2512
		4.30%	23.73%	43.87%	28.11%	0.00%	100.00%
	고2	109	551	1029	371	0	2060
		5.29%	26.75%	49.95%	18.01%	0.00%	100.00%
	고3	64	332	620	159	0	1175
		5.45%	28.26%	52.77%	13.53%	0.00%	100.00%
	무응답	24	78	181	120	3517	3920
		0.61%	1.99%	4.62%	3.06%	89.72%	100.00%
전체	1201	4432	7767	6024	3517	22941	
	5.24%	19.32%	33.86%	26.26%	15.33%	100.00%	

〈표 213〉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7	42	115	58	0	222
		3.15%	18.92%	51.80%	26.13%	0.00%	100.00%
	거제	95	291	517	503	0	1406
		6.76%	20.70%	36.77%	35.78%	0.00%	100.00%
	거창	24	121	211	134	0	490
		4.90%	24.69%	43.06%	27.35%	0.00%	100.00%
	김해	145	564	904	810	0	2423
		5.98%	23.28%	37.31%	33.43%	0.00%	100.00%
	남해	11	50	102	102	0	265
		4.15%	18.87%	38.49%	38.49%	0.00%	100.00%
	밀양	26	116	216	153	0	511
		5.09%	22.70%	42.27%	29.94%	0.00%	100.00%
	사천	40	149	257	178	0	624
		6.41%	23.88%	41.19%	28.53%	0.00%	100.00%
	산청	8	21	74	32	0	135
		5.93%	15.56%	54.81%	23.70%	0.00%	100.00%
	양산	101	414	754	456	0	1725
		5.86%	24.00%	43.71%	26.43%	0.00%	100.00%
	의령	11	51	92	66	0	220
		5.00%	23.18%	41.82%	30.00%	0.00%	100.00%
	진주	197	693	1053	918	0	2861
		6.89%	24.22%	36.81%	32.09%	0.00%	100.00%
	창녕	28	106	226	131	0	491
		5.70%	21.59%	46.03%	26.68%	0.00%	100.00%
	창원	393	1375	2342	1864	0	5974
		6.58%	23.02%	39.20%	31.20%	0.00%	100.00%
	통영	36	148	218	185	0	587
		6.13%	25.21%	37.14%	31.52%	0.00%	100.00%
하동	18	88	194	122	0	422	
	4.27%	20.85%	45.97%	28.91%	0.00%	100.00%	
함안	18	59	135	81	0	293	
	6.14%	20.14%	46.08%	27.65%	0.00%	100.00%	
함양	15	32	69	59	0	175	
	8.57%	18.29%	39.43%	33.71%	0.00%	100.00%	
합천	4	34	107	52	0	197	
	2.03%	17.26%	54.31%	26.40%	0.00%	100.00%	
무응답	24	78	181	120	3517	3920	
	0.61%	1.99%	4.62%	3.06%	89.72%	100.00%	
전체	1201	4432	7767	6024	3517	22941	
	5.24%	19.32%	33.86%	26.26%	15.33%	100.00%	

〈표 214〉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715	2739	4581	3612	0	11647
		6.14%	23.52%	39.33%	31.01%	0.00%	100.00%
	읍, 면지역	462	1615	3005	2292	0	7374
		6.27%	21.90%	40.75%	31.08%	0.00%	100.00%
	무응답	24	78	181	120	3517	3920
		0.61%	1.99%	4.62%	3.06%	89.72%	100.00%
전체	1201	4432	7767	6024	3517	22941	
	5.24%	19.32%	33.86%	26.26%	15.33%	100.00%	

〈표 215〉 31. 학교 생활에 관한 개인정보(예: 수행평가 점수, 봉사활동 시간 등)를 학생 본인이 원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589	2020	3692	2611	0	8912
		6.61%	22.67%	41.43%	29.30%	0.00%	100.00%
	사립	320	1450	2438	1431	0	5639
		5.67%	25.71%	43.23%	25.38%	0.00%	100.00%
	모르 겠다	268	884	1456	1862	0	4470
		6.00%	19.78%	32.57%	41.66%	0.00%	100.00%
	무응답	24	78	181	120	3517	3920
		0.61%	1.99%	4.62%	3.06%	89.72%	100.00%
	전체	1201	4432	7767	6024	3517	22941
		5.24%	19.32%	33.86%	26.26%	15.33%	100.00%

〈표 216〉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성별	남성	6790	1101	0	7891
		86.05%	13.95%	0.00%	100.00%
	여성	9731	1271	0	11002
		88.45%	11.55%	0.00%	100.00%
	기타	99	29	0	128
		77.34%	22.66%	0.00%	100.00%
	무응답	354	49	3517	3920
		9.03%	1.25%	89.72%	100.00%
	전체	16974	2450	3517	22941
		73.99%	10.68%	15.33%	100.00%

〈표 217〉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2057	220	0	2277
		90.34%	9.66%	0.00%	100.00%
	초6	3015	326	0	3341
		90.24%	9.76%	0.00%	100.00%
	중1	2818	296	0	3114
		90.49%	9.51%	0.00%	100.00%
	중2	2124	332	0	2456
		86.48%	13.52%	0.00%	100.00%
	중3	1737	349	0	2086
		83.27%	16.73%	0.00%	100.00%
	고1	2173	339	0	2512
		86.50%	13.50%	0.00%	100.00%
	고2	1745	315	0	2060
		84.71%	15.29%	0.00%	100.00%
	고3	951	224	0	1175
		80.94%	19.06%	0.00%	100.00%
	무응답	354	49	3517	3920
		9.03%	1.25%	89.72%	100.00%
	전체	16974	2450	3517	22941
		73.99%	10.68%	15.33%	100.00%

〈표 218〉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	고성	195	27	0	222
		87.84%	12.16%	0.00%	100.00%
	거제	1245	161	0	1406
		88.55%	11.45%	0.00%	100.00%
	거창	397	93	0	490
		81.02%	18.98%	0.00%	100.00%
	김해	2136	287	0	2423
		88.16%	11.84%	0.00%	100.00%
	남해	230	35	0	265
		86.79%	13.21%	0.00%	100.00%
	밀양	439	72	0	511
		85.91%	14.09%	0.00%	100.00%
	사천	535	89	0	624
		85.74%	14.26%	0.00%	100.00%
	산청	122	13	0	135
		90.37%	9.63%	0.00%	100.00%
	양산	1494	231	0	1725
		86.61%	13.39%	0.00%	100.00%
	의령	187	33	0	220
		85.00%	15.00%	0.00%	100.00%
	진주	2497	364	0	2861
		87.28%	12.72%	0.00%	100.00%
	창녕	417	74	0	491
		84.93%	15.07%	0.00%	100.00%
	창원	5254	720	0	5974
		87.95%	12.05%	0.00%	100.00%
	통영	524	63	0	587
		89.27%	10.73%	0.00%	100.00%
하동	362	60	0	422	
	85.78%	14.22%	0.00%	100.00%	
함안	258	35	0	293	
	88.05%	11.95%	0.00%	100.00%	
함양	154	21	0	175	
	88.00%	12.00%	0.00%	100.00%	
합천	174	23	0	197	
	88.32%	11.68%	0.00%	100.00%	
무응답	354	49	3517	3920	
	9.03%	1.25%	89.72%	100.00%	
전체	16974	2450	3517	22941	
	73.99%	10.68%	15.33%	100.00%	

〈표 219〉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0220	1427	0	11647
		87.75%	12.25%	0.00%	100.00%
	읍, 면지역	6400	974	0	7374
		86.79%	13.21%	0.00%	100.00%
	무응답	354	49	3517	3920
		9.03%	1.25%	89.72%	100.00%
전체	16974	2450	3517	22941	
	73.99%	10.68%	15.33%	100.00%	

〈표 220〉 32.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 종교, 질병이나 감염여부, 개인 정보, 성적 등)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7835	1077	0	8912
		87.92%	12.08%	0.00%	100.00%
	사립	4811	828	0	5639
		85.32%	14.68%	0.00%	100.00%
	모름	3974	496	0	4470
		88.90%	11.10%	0.00%	100.00%
무응답	354	49	3517	3920	
	9.03%	1.25%	89.72%	100.00%	
전체	16974	2450	3517	22941	
	73.99%	10.68%	15.33%	100.00%	

〈표 221〉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성별 응답)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기타	전체
성별	1	7082	809	0	7891
		89.75%	10.25%	0.00%	100.00%
	2	9344	1658	0	11002
		84.93%	15.07%	0.00%	100.00%
	3	89	39	0	128
		69.53%	30.47%	0.00%	100.00%
	99	346	57	3517	3920
		8.83%	1.45%	89.72%	100.00%
	전체	16861	2563	3517	22941
		73.50%	11.17%	15.33%	100.00%

〈표 222〉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학년별 응답)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2100	177	0	2277
		92.23%	7.77%	0.00%	100.00%
	초6	3039	302	0	3341
		90.96%	9.04%	0.00%	100.00%
	중1	2873	241	0	3114
		92.26%	7.74%	0.00%	100.00%
	중2	2077	379	0	2456
		84.57%	15.43%	0.00%	100.00%
	중3	1666	420	0	2086
		79.87%	20.13%	0.00%	100.00%
	고1	2211	301	0	2512
		88.02%	11.98%	0.00%	100.00%
	고2	1654	406	0	2060
		80.29%	19.71%	0.00%	100.00%
	고3	895	280	0	1175
		76.17%	23.83%	0.00%	100.00%
	무응답	346	57	3517	3920
		8.83%	1.45%	89.72%	100.00%
	전체	16861	2563	3517	22941
		73.50%	11.17%	15.33%	100.00%

〈표 223〉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	고성	193	29	0	222
		86.94%	13.06%	0.00%	100.00%
	거제	1238	168	0	1406
		88.05%	11.95%	0.00%	100.00%
	거창	434	56	0	490
		88.57%	11.43%	0.00%	100.00%
	김해	2134	289	0	2423
		88.07%	11.93%	0.00%	100.00%
	남해	220	45	0	265
		83.02%	16.98%	0.00%	100.00%
	밀양	434	77	0	511
		84.93%	15.07%	0.00%	100.00%
	사천	550	74	0	624
		88.14%	11.86%	0.00%	100.00%
	산청	103	32	0	135
		76.30%	23.70%	0.00%	100.00%
	양산	1483	242	0	1725
		85.97%	14.03%	0.00%	100.00%
	의령	197	23	0	220
		89.55%	10.45%	0.00%	100.00%
	진주	2489	372	0	2861
		87.00%	13.00%	0.00%	100.00%
	창녕	416	75	0	491
		84.73%	15.27%	0.00%	100.00%
	창원	5198	776	0	5974
		87.01%	12.99%	0.00%	100.00%
	통영	500	87	0	587
		85.18%	14.82%	0.00%	100.00%
하동	348	74	0	422	
	82.46%	17.54%	0.00%	100.00%	
함안	269	24	0	293	
	91.81%	8.19%	0.00%	100.00%	
함양	146	29	0	175	
	83.43%	16.57%	0.00%	100.00%	
합천	163	34	0	197	
	82.74%	17.26%	0.00%	100.00%	
무응답	346	57	3517	3920	
	8.83%	1.45%	89.72%	100.00%	
전체	16861	2563	3517	22941	
	73.50%	11.17%	15.33%	100.00%	

〈표 224〉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동/읍, 면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10144	1503	0	11647
		87.10%	12.90%	0.00%	100.00%
	읍, 면지역	6371	1003	0	7374
		86.40%	13.60%	0.00%	100.00%
	무응답	346	57	3517	3920
		8.83%	1.45%	89.72%	100.00%
전체	16861	2563	3517	22941	
	73.50%	11.17%	15.33%	100.00%	

〈표 225〉 33. 학교 시설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학생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없다	있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7659	1253	0	8912
		85.94%	14.06%	0.00%	100.00%
	사립	4798	841	0	5639
		85.09%	14.91%	0.00%	100.00%
	모름	4058	412	0	4470
		90.78%	9.22%	0.00%	100.00%
무응답	346	57	3517	3920	
	8.83%	1.45%	89.72%	100.00%	
전체	16861	2563	3517	22941	
	73.50%	11.17%	15.33%	100.00%	

〈표 226〉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성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을 하지않는다	기타	전체
성별	1	708	867	642	5674	0	7891
		8.97%	10.99%	8.14%	71.90%	0.00%	100.00%
	2	646	801	483	9072	0	11002
		5.87%	7.28%	4.39%	82.46%	0.00%	100.00%
	3	7	7	17	97	0	128
		5.47%	5.47%	13.28%	75.78%	0.00%	100.00%
	99	29	32	47	295	3517	3920
		0.74%	0.82%	1.20%	7.53%	89.72%	100.00%
	전체	1390	1707	1189	15138	3517	22941
		6.06%	7.44%	5.18%	65.99%	15.33%	100.00%

〈표 227〉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학년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을 하지않는다	기타	전체
학년	초5	153	290	190	1644	0	2277
		6.72%	12.74%	8.34%	72.20%	0.00%	100.00%
	초6	238	359	229	2515	0	3341
		7.12%	10.75%	6.85%	75.28%	0.00%	100.00%
	중1	163	259	175	2517	0	3114
		5.23%	8.32%	5.62%	80.83%	0.00%	100.00%
	중2	140	165	101	2050	0	2456
		5.70%	6.72%	4.11%	83.47%	0.00%	100.00%
	중3	148	189	120	1629	0	2086
		7.09%	9.06%	5.75%	78.09%	0.00%	100.00%
	고1	196	188	142	1986	0	2512
		7.80%	7.48%	5.65%	79.06%	0.00%	100.00%
	고2	216	142	122	1580	0	2060
		10.49%	6.89%	5.92%	76.70%	0.00%	100.00%
	고3	107	83	63	922	0	1175
		9.11%	7.06%	5.36%	78.47%	0.00%	100.00%
	무응답	29	32	47	295	3517	3920
		0.74%	0.82%	1.20%	7.53%	89.72%	100.00%
	전체	1390	1707	1189	15138	3517	22941
		6.06%	7.44%	5.18%	65.99%	15.33%	100.00%

〈표 228〉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니까? (지역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을 하지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위치	고성	7	17	17	181	0	222
		3.15%	7.66%	7.66%	81.53%	0.00%	100.00%
	거제	87	153	82	1084	0	1406
		6.19%	10.88%	5.83%	77.10%	0.00%	100.00%
	거창	58	39	34	359	0	490
		11.84%	7.96%	6.94%	73.27%	0.00%	100.00%
	김해	122	177	124	2000	0	2423
		5.04%	7.30%	5.12%	82.54%	0.00%	100.00%
	남해	18	16	16	215	0	265
		6.79%	6.04%	6.04%	81.13%	0.00%	100.00%
	밀양	27	45	37	402	0	511
		5.28%	8.81%	7.24%	78.67%	0.00%	100.00%
	사천	36	63	43	482	0	624
		5.77%	10.10%	6.89%	77.24%	0.00%	100.00%
	산청	4	14	11	106	0	135
		2.96%	10.37%	8.15%	78.52%	0.00%	100.00%
	양산	68	135	109	1413	0	1725
		3.94%	7.83%	6.32%	81.91%	0.00%	100.00%
	의령	9	25	12	174	0	220
		4.09%	11.36%	5.45%	79.09%	0.00%	100.00%
	진주	198	255	146	2262	0	2861
		6.92%	8.91%	5.10%	79.06%	0.00%	100.00%
	창녕	86	55	62	288	0	491
		17.52%	11.20%	12.63%	58.66%	0.00%	100.00%
	창원	545	534	337	4558	0	5974
		9.12%	8.94%	5.64%	76.30%	0.00%	100.00%
	통영	25	41	38	483	0	587
		4.26%	6.98%	6.47%	82.28%	0.00%	100.00%
하동	19	34	32	337	0	422	
	4.50%	8.06%	7.58%	79.86%	0.00%	100.00%	
함안	30	41	25	197	0	293	
	10.24%	13.99%	8.53%	67.24%	0.00%	100.00%	
함양	10	17	4	144	0	175	
	5.71%	9.71%	2.29%	82.29%	0.00%	100.00%	
합천	12	14	13	158	0	197	
	6.09%	7.11%	6.60%	80.20%	0.00%	100.00%	
무응답	29	32	47	295	3517	3920	
	0.74%	0.82%	1.20%	7.53%	89.72%	100.00%	
전체	1390	1707	1189	15138	3517	22941	
	6.06%	7.44%	5.18%	65.99%	15.33%	100.00%	

〈표 229〉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니까? (동/읍, 면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을 하지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지역성	동지역	854	963	666	9164	0	11647
		7.33%	8.27%	5.72%	78.68%	0.00%	100.00%
	읍, 면지역	507	712	476	5679	0	7374
		6.88%	9.66%	6.46%	77.01%	0.00%	100.00%
	무응답	29	32	47	295	3517	3920
		0.74%	0.82%	1.20%	7.53%	89.72%	100.00%
전체	1390	1707	1189	15138	3517	22941	
	6.06%	7.44%	5.18%	65.99%	15.33%	100.00%	

〈표 230〉 34. 학교에서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니까? (설립유형별 응답)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을 하지않는다	기타	전체
학교의 설립 유형	국, 공립	427	674	529	7282	0	8912
		4.79%	7.56%	5.94%	81.71%	0.00%	100.00%
	사립	657	482	314	4186	0	5639
		11.65%	8.55%	5.57%	74.23%	0.00%	100.00%
	모름	277	519	299	3375	0	4470
		6.20%	11.61%	6.69%	75.50%	0.00%	100.00%
무응답	29	32	47	295	3517	3920	
	0.74%	0.82%	1.20%	7.53%	89.72%	100.00%	
전체	1390	1707	1189	15138	3517	22941	
	6.06%	7.44%	5.18%	65.99%	15.33%	100.00%	

연구보고서 2020(수시)-2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이 영 주

연구수행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 견 교 사 이 희 진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 터 장 이 필 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조 사 관 김 서 훈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